

SEOUL
MY SOUL

서울
디자인
리포터

디자이너 머무는 도시, 세계 도시 디자인 트렌드 2024

: SEOUL DESIGN REPORTER

BANGKOK

BERLIN

CHICAGO

CHRISTCHURCH

DONGGUAN

DUBAI

ESPOO

FRANKFURT

FUKUOKA

LONDON

LUND, MALMO

MILANO

NEW YORK

PARIS

ROTTERDAM

SINGAPORE

STOCKHOLM

TORINO

VANCOUVER

WARSAWA

디자인이 머무는 도시,
세계 도시 디자인 트렌드
2024

: SEOUL DESIGN REPORTER

CONTENTS

들어가며

4

서울디자인리포터 소개

5

시민참여 프로젝트 Civic Engagement Project

ROTTERDAM

네덜란드, 로테르담 | CityLab010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도시 실험실

10



STOCKHOLM

스웨덴, 스톡홀름 | Utsikten 프로젝트
스웨덴 스톡홀름의 비밀 정원에서 아이들이 창조하는 마법

26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포르 | <Enabling Village> 커뮤니티
사람과 환경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템피니스 허브

44



도시재생 프로젝트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RINO

이탈리아, 토리노 | 스피나3의 재생사업과 파르코 도라
자동차 공장이 멈춘 자리에 피어난 친환경 그라피티 공원

60



NEW YORK

미국, 뉴욕 | 브루클린 인더스트리 시티
브루클린 최대의 문화 허브: 예술과 창작의 중심지

76



DONGGUAN

중국, 동관 | 광둥 샤오전(广东33小镇·Guangdong 33town)
세계의 공장에서 광동 문화예술의 등지로

92



공공예술 프로젝트 Public Art Project

CHRISTCHURCH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 대지진 이후 도심지 재건사업
도시재건을 위한 낙서방지와 예술벽화를 통한 도시갤러리

108



LUND, MALMO

스웨덴, 말뫼·룬드 | 말뫼와 룬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말뫼 Southern Sweden Design Days와 룬드 예술의 전당(Konsthall)에서 진행되는 연도별 공공예술 프로젝트

124



도시 브랜딩 / 굿즈 City Branding and Merchandise

CHICAGO

미국, 시카고 | 시카고 굿즈
I ♡ 시카고 -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굿즈로 표현하는 미국인들

140



WARSZAWA

폴란드, 바르샤바 |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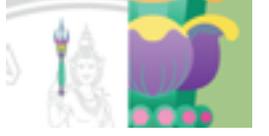
154



BANGKOK

태국, 방콕 /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2024년 새롭게 발표한 태국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174



도서관 및 건축물 Libraries and Architecture

VANCOUVER

캐나다, 밴쿠버 | 밴쿠버 중앙도서관 (VPL Central)
시공간을 초월한 모두의 커뮤니티, 밴쿠버 중앙 도서관(VPL Central)

190



HELSINKI

핀란드, 헬싱키 | 핀란드 Oodi 도서관
핀란드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이자 모두를 위한 도서관 Oodi

208



DUBAI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두바이 프레임(Dubai Frame)
과거에서 미래로, 두바이의 이야기를 담은 거대한 액자

226



도시여가정책 Urban Leisure Policy

LONDON

영국, 런던 | 생제임스 공원, 더리젠츠 공원, 하이드파크, 빅토리아 공원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단순하면서 화려한 런던의 공원 조경 및 공공 시설물 디자인

240



PARIS

프랑스, 파리 | 존 센시블 Zone sensible, 라빌레트 공원 La Villette
파리의 중심에서 농사를 외치다!

262



디자인 행사 Design Event

BERLIN

독일, 베를린 | 그린테크 페스티벌
'그린테크 페스티벌 베를린' 콘퍼런스 행사 방식과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278



FRANKFURT

독일, 프랑크푸르트 | 플랫폼 시티 프랑크푸르트의 MICE 산업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세계적인 박람회 유치로 중심으로

296



디자인 전시회 Design Exhibition

MILANO

이탈리아, 밀라노 | 국제가구 전시회 SALONE DEL MOBILE 2024
디자이너 정명웅(MICHI JUNG)과 떠나는 밀라노 가구 전시회 산책

310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FUKUOKA

일본, 후쿠오카 | 후쿠오카의 공중화장실의 사례 -
오스트메이트(Ostomate)를 위한 시설관련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후쿠오카시의 모습

324



들어가며

서울 디자인 리포터는 누구일까?

서울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세계디자인수도(WDC)'로 공식 선정되고,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된 만큼, 디자인에 중점을 둔 도시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은 해외 우수 디자인 사례를 모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서울디자인리포터'는 단순한 조사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책에서 혹은 인터넷에 찾은 정보들의 나열이 아니라, 각 리포터들이 생활하는 도시에서 거주자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디자인리포터'가 16개의 나라, 20개의 도시에서 수집한 현장감 넘치는 사례들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우리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디자인리포터'는 서울디자인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훌륭한 디자인 사례들을 거주하고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알립니다. 세계가 서로 좋은 사례들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나아가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정보를 아낌없이 주는 서울디자인의 든든한 파트너, 서울디자인리포터들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외협력팀
엄아영 팀장

그들과 함께한 이야기

2024년, '서울디자인리포터'의 여정은 서울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뉴욕, 토리노, 스톡홀름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 20개 도시에서 서울의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20명의 리포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지만, '리포터 활동을 통해 서울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 티안나게 내밀었던 배려를 알아보고 전해온 감사의 말, 응원과 친절에 힘입어 해낼 수 있었다는 말들이 모여 리포터 사업을 향한 무한 애정이 만들어졌습니다.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서울디자인재단'과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된 20명의 리포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끌어갈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그들의 여정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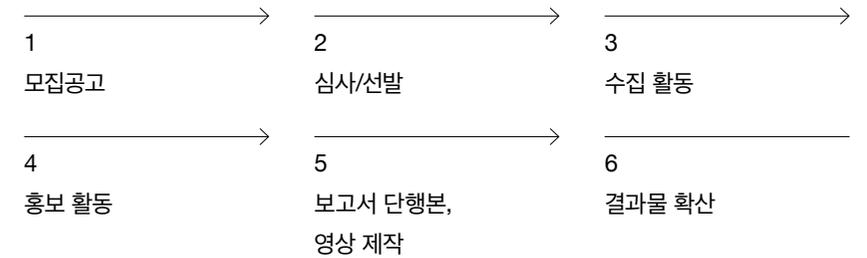
서울디자인재단 대외협력팀
정나은 선임

서울디자인리포터 소개

핵심만 보는 2024 리포터 활동

리포터	해외 거주 한국인 디자인 전문가 20명
국가	16개국
도시	20개 도시
수집 활동	해외의 우수 디자인 사업/정책 수집 (총20건)
전파 활동	서울의 디자인 철학과 실천 사례 세계로 전파

어떻게 진행될까?



리포터가 모아온 프로젝트 소개

어떤게 담겨있을까?

- 들어가며
- 추진 배경
-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 추진 현황과 결과
- 접근성 (편의성)
- 서울 적용 방안
- 마무리하며

서울이 원했던 프로젝트 분야 (from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

- 시민 참여 프로젝트
- 도시 재생 프로젝트
- 공공예술 프로젝트
- 도시 브랜딩 / 곳즈
- 도서관 및 건축물
- 도심 여가 정책
- 디자인 행사
- 디자인 전시회
- 유니버설 디자인

키워드로 보는 프로젝트

국가	도시	키워드
1 미국	시카고	도시 브랜딩, 굿즈, I ♥ 시카고
2 독일	베를린	그린테크 페스티벌, 지속 가능한 미래, 미래를 위한 투자
3 영국	런던	런던의 공원, 조경 디자인, 공공 시설물
4 독일	프랑크푸르트	플랫폼 시티, 글로벌 박람회, 디자인 페어
5 이탈리아	토리노	문 달은 자동차 공장, 도시 재생 디자인, 탈 산업적 도시 재생
6 싱가포르	싱가포르	친환경 커뮤니티 모델, 커뮤니티 디자인, 주민 중심형 디자인
7 미국	뉴욕	대규모 복합단지, 산업 지역 재탄생, 창작자 협력 플랫폼
8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도시 우범화, 낙서 관리, 그래피티 예술, 아트 갤러리
9 네덜란드	로테르담	세계 최초 도시 서핑 풀, 크라우드 펀딩, 시민 참여 공공 시설물
10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 콜로세움, 중앙도서관, 공공 도시공간, 도심의 오아시스
1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두바이 프레임, 랜드마크, 두바이의 과거와 미래
12 폴란드	바르샤바	도시 브랜딩,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쇼팽 굿즈
13 일본	후쿠오카	유니버설디자인, 공중화장실, 배려, 오스트메이트
14 스웨덴	룬드말뫼	국제적 예술가 플랫폼, Sweden Design Days, 룬드 예술의 전당
15 핀란드	에스포	도서관, 복합 문화공간, 모든 시민을 위한 디자인
16 태국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도시 정체성
17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가구 전시회, 가구 디자인 트렌드
18 중국	동관	문화 인프라, 노후산업 대체, 문화예술의 동지
19 프랑스	파리	도심 농장, 여가 정책, 시민행사
20 스웨덴	스톡홀름	지속 가능 디자인, 사회적 포용, 마법 같은 정원, 어린이 체험 공간

세계로 홍보한 서울의 디자인 사업들

홍보 일정	홍보 주제
6월	서울디자인어워드 접수 홍보
7월	서울의 디자인 정책 홍보 (서울디자인백서, 서울디자인 자산)
8월	서울의 도시 브랜딩 및 마스코트 '해치' 굿즈 홍보
9월	서울의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 2024' 홍보
10월	서울디자인어워드 세계 시민 대상 시민투표 홍보
11월	서울 DDP 소개 및 서울라이트 행사 홍보



CIVIC ENGAGEMENT PROJECT

시민참여 프로젝트
: 내 손에서 시작되는 도시의 변화

ROTTERDAM

10

네덜란드, 로테르담 | CityLab010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도시 실험실

STOCKHOLM

26

스웨덴, 스톡홀름 | Utsikten 프로젝트
스웨덴 스톡홀름의 비밀 정원에서 아이들이 창조하는 마법

SINGAPORE

44

싱가포르, 싱가포르 | <Enabling Village> 커뮤니티
사람과 환경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템피니스 허브



1



유튜브 영상

국가	네덜란드
도시	로테르담
분류	시민참여 프로젝트

CityLab010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도시 실험실

박호선

한국에서 건축학과 학사, 미국에서 석사를 마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UNStudio에서 Junior Designer로 시작하여 Associate까지 근무하며 3대륙 7개국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 유럽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도시/건축답사를 즐기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의 공공 디자인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2023년은 서울 디자인 재단 암스테르담 해외 리포터로 활동 하였다. 2024년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 해외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hyoseon.park.27@gmail.com

로테르담의 혁신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리프010(RiF010)과 루흐트 싱겔(Luchtsingel)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RiF010은 세계 최초의 도시 서핑 풀로, 도심 속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며 Luchtsingel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아 건설된 보행자 전용 다리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로테르담에 가져온 변화와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서울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NETHERLANDS, ROTTERDAM

1 들어가며

가.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유럽의 주요 항구 도시이며,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는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로테르담시는 2014년부터 브랜드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해 새로운 슬로건인 'Make it Happen'을 발표했다. '세계 항구, 세계 도시'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로,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이다. 재건된 도시의 개혁 정신과 경계 확장, 대담함을 표현한 슬로건인 것이다.

로테르담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실험실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항만청, 에라스무스 대학, Coolblue 등과 같은 40여 개의 기관, 기업과 함께 동반 관계를 맺는 방법을 통해 브랜드 얼라이언스를 이뤄왔다.



1947년 로테르담 재건당시의 RIF010 사이트 모습 © 로테르담 시립 기록 보관소/사진작가 FH Grimeijer



로테르담 시의 슬로건, Make It Happen © Rotterdam

나. CityLab010

그중의 한 예시로 CityLab010을 소개할 수 있다. CityLab010은 로테르담시에서 운영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기업, 학계가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한 점은 솔루션을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더 아름답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제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2015년 이전까지는 '도시 이니셔티브(Stadsinitiatief)'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CityLab010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2 추진배경

1 Rabobank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제공 은행. Rabobank는 주로 농업 및 식품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2 Erasmus Universiteit Rotterdam (Erasmus University Rotterdam)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공립 연구 대학으로, 1913년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과학, 의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3 Hogeschool Rotterdam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응용 과학 대학으로, 다양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4 Green Choice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재생 가능 에너지 제공업체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전력을 생산한다.

CityLab010은 시민들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로테르담 시와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Rabobank¹, Erasmus Universiteit², Hogeschool Rotterdam³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를 더 사회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젝트이며, 매년 약 100만 유로의 자금이 여러 프로젝트에 배분된다. 각 프로젝트는 최대 50,000유로의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제안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전문가의 협업과 워크숍, 세미나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도시를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CityLab010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로테르담에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 200-500단어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스타트 키트에는 비디오 피치, 포트폴리오, 스케치, 사진 등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다.

이후에는 계정을 통해 담당자가 배정되며 필요시 라보뱅크, 에라스무스 대학교, 민간 에너지 공급사인 그린 초이스(Green Choice⁴)와 같은 파트너사의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함께 심사위원들과 만남을 가지게 된다. 2024년에는 9월 4일과 10월 7일 두 번의 네트워킹 세션이 계획되어 있다. 세션 동안 자신만의 계획을 제시하고 고문과 파트너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전 년도의 당선자들도 함께 초대된다.



로테르담 시티랩010 홈페이지(https://www.citylab010.nl/)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가. RiF010

RiF010 프로젝트는 로테르담의 도심에 인공 서핑 파크를 설립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수상 스포츠 활동과 관광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서핑과 관련된 자연 요소인 암초를 의미하는 Reef와 로테르담을 상징하는 우편번호 010이 결합된 단어이다.

이 아이디어는 2013년에 Edwin van Viegen에 의해 CityLab010의 이전 프로그램인 Stadsinitiatief(어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도심에서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로테르담 시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해 3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는 로테르담의 운하가 있던 Steigersgracht⁵ 지역을 변모시켜,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Steigersgracht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운하이다. Steigersgracht는 1328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334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로테르담의 상업 활동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운하이다. Steigersgracht는 한동안 잊혀졌으나, 최근 RiF010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Edwin van Viegen © RiF010



Beach house © RiF010

나. 루흐트싱겔 (Luchtsi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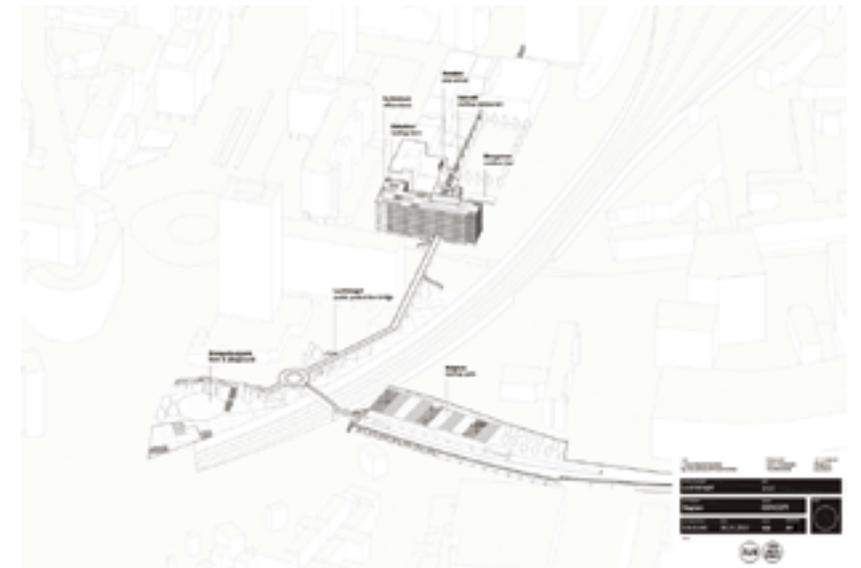
루흐트 싱겔(Luchtsingel)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rlf010이 제안되었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인 CityLab010의 전신인 ‘도시 이니셔티브 (Stadsinitiatief)’를 통해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시행된 프로젝트로, 클라이언트는 로테르담 시였으며, 이 아이디어는 ZUS 건축회사⁶를 주도로 시작되었다. ‘I Make Rotterdam’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25유로부터 시작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다리를 만드는 판자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주었다.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6 ZUS (Zones Urbaines Sensibles)⁶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 및 도시 계획 회사이다. 이 회사는 도시 재생, 건축 설계, 공공 공간 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루흐트싱겔 씨클 브릿지 © ZUS



루흐트싱겔 배치도 © ZUS

도시화 과정 중에 넓은 도로와 기차길로 인해 분리될 수 밖에 없었던 도시 블록에서 로테르담 중앙역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400미터 길이의 보행자용 다리를 설치하여 도심에 입체적인 3차원 도시경관을 심어준 프로젝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2011년 4분기에 시작되었으며, 이 방식을 통해 2011년에 약 1,300명의 개인 후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후원자들은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다리의 특정 구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소속감을 높였다.

더불어, 2011년 로테르담 시에서 도심에 계획중이던 한 오피스 건물 개발을 취소하였을 때, 건물의 많은 사무실 공간이 공실로 남게 되자, ZUS는 Schieblock⁷ 건물에 젊은 기업가들이 입주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건물은 크라우드 펀딩 다리와 함께 연결되는 건물이며 1층에는 리테일과 펍, 관광 정보센터가 입주하였으며, 건물의 옥상에는 텃밭이 있는 카페테리아가 들어오게 되었다.

7 Schieblock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한 다목적 건물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는 비어있던 오피스 건물이었으나, 혁신적인 도시 재생 전략을 통해 활기찬 창조적 허브로 탈바꿈했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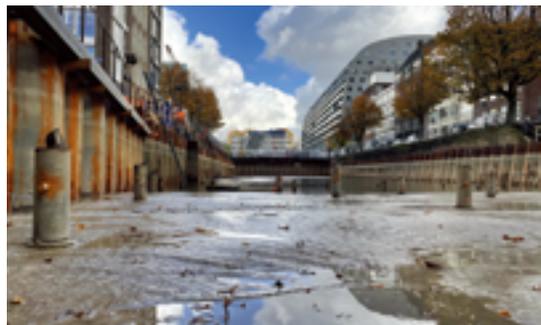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1. RiF010

RiF010의 추진과정은 먼저 로테르담 시민인 Edwin van Viegen의 아이디어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다. Edwin은 네덜란드 북해의 불규칙한 파도대신 도심에서 안정적인 서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두 사람은 로테르담 시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컨테스트에 2012년 최종 당선 되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실행가능성이 보여졌기에 공식적으로 추진 될 수 있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는 초기 자금확보를 위해 로테르담 시와 여러 민간 기업, 서핑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았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법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RiF010의 서핑 풀의 구체적 설계작업이 진행되었다. 서핑 풀의 구조, 인공 파도 생성 시스템, 주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중간에 각종 소송에 휩싸여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게 되었다.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환경 영향평가, 건설 허가 등을 포함한 필요한 각종 허가를 로테르담 시로부터 받았고, 소송이 끝난 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운하 공사 당시 모습 © RiF010



공사 이전의 운하 모습 © RiF010



완공 이후 © RiF010



시설 테스트 모습 © RiF010

이후 서핑풀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운하 부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공 파도 생성 시스템 설치, 주변 부대 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장을 홍보하게 되었다. 홍보 단계 또한 중요했는데, 이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서핑 풀의 존재와 이용방법을 이해시키고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10여년이 지난 2024년 7월 6일 RiF010은 공식적으로 개장했으며, 개장식에는 로테르담 시 관계자, 서핑 커뮤니티,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RiF010의 대형 파도에는 많은 기술들이 반영되었다. 부대시설은 모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가동되며, 이외의 부분에서도 에너지 절감은 설계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서핑 풀의 물은 마이크로 체로 여과되는데 이는 모래 필터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대시설인 서핑바와 레스토랑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서핑용품 매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서핑보드를 판매한다.



RiF010하우스와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 서핑보드 © 박효선

RiF010재단은 체육 수업이나 스포츠의 날을 통해 로테르담 학생들에게 웨이브 서핑과 기타 수상스포츠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핑바와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지는 수익금을 통해 공공기여를 하고자 하며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이런식으로 RiF010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스포츠를 즐기도록 동기부여하는 장소이다.

파도는 7초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시간당 약 330개의 파도가 운하를 통과하며, 초보자는 0.5m의 파도에서, 서핑 경력자는 최대 1.5m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완벽한 파도 위에서 웨이브 서핑, 래프팅, 서핑카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정적인 스포츠를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누도 대여 가능하다.

2. 루흐트 싱겔

루흐트 싱겔이 있는 호프플레인 지역은 한 때 로테르담 도심의 활기찬 지역이었지만, 고층 빌딩으로 지배된 블록이 되면서 보행자들이 이동할 수 없는 분리된 블록이 되었다.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시작되었지만, 공적 자금이 없어서 실현 가능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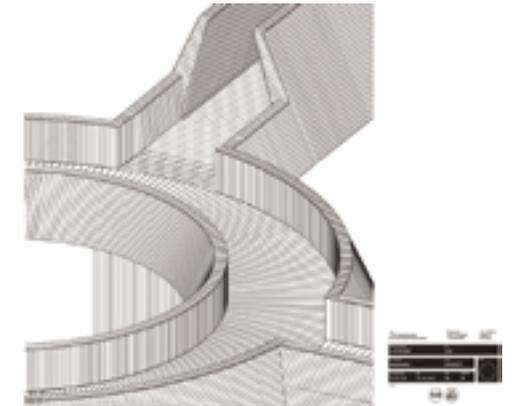
건축 설계 회사 ZUS는 “도시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 문제는 미래에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해지며, 로테르담은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 문제에 대해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가와 주민들은 진보적인 공공 공간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ZUS는 크라우드 펀딩을 주도하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다리의 설계 방법을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지어지고 조립되도록 설계하였다. 즉, 적은 비용으로 첫 번째 구간을 확보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400m에 가까운 길이의 다리는 17,000개의 판자로 나뉘었으며, 사람들은 25유로에 원하는 글자가 새겨진 판자를 살 수 있었다. 기부자의 이름이나 소원, 도시에 대한 메시지 등 기부자가 원하는 문구가 새겨졌다.



기존 나무를 고려하여 설계된 보행 브릿지 디자인 © ZUS



보행 브릿지 엑소메트릭 © ZUS



크라우드펀딩 구성품 © ZUS

‘기부할수록 길어지는 다리’로, 하나의 판자 뿐만 아니라 다리의 일부 또는 하나의 판자 이상의 요소를 함께 구매하는 옵션도 있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처음 3개월 동안 100,000유로를 모금할 수 있었다.

루흐트싱겔 프로젝트를 위해 재단은 문화 거버넌스 모델의 지침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사회는 로테르담 시의 이전 도시 개발 국장과 인프라 및 환경부 개발 대행국장이 맡았으며, 로테르담 시에서 감독기관을 맡았다. 매달 회의를 열어 프로젝트 계획, 실행 현황,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총 6단계의 공사가 있었으며, 1단계는 2012년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는 2014년에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공식 개통은 2015년 6월 20일에 시작되었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1. RiF010

1. 도시 재생

RiF010은 로테르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재생에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방치된 지역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2. 경제 활성화

RiF010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핑 풀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3. 커뮤니티 형성

서핑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는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4. 도시 문화생활의 다양성 기여

RiF010은 서핑이라는 비전통적인 스포츠를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로테르담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했다. 이는 기존의 문화적, 체육적 활동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5. 공공을 위한 운하

운하는 보통 보트를 타야 즐길 수 있는 도시 시설인데 RiF010을 통해 길을 걷던 행인들도 운하 주변에 둘러 앉거나 서서 운하에서 일어나는 서핑을 하거나 패들보트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도시락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운하의 청결과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 운하의 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6. 지속가능성 반영 (Integration)

환경 기업과 함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소비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 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서핑바와 레스토랑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포츠의 날 동안 서핑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남녀 노소가 운하를 둘러싸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을 보면 사회적(Social)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루흐트싱겔 (Luchtsingel)

1. 도시 연결성

루흐트 싱겔은 도시 내 단절된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보행자들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여러 주거 단지가 기차길과 도로로 단절 되었으나, 높아진 접근성 덕분에 심적 거리감이 줄어든 것이다.



서핑하는 시민 © RiF010



서핑 커뮤니티 © RiF010



서핑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민 © 박효선



서핑을 구경하는 시민 © 박효선



서핑을 구경하는 시민들과 파트너 회사들의 로고 © 박효선

2.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판자를 통해 프로젝트에 개인적인 소속감을 느꼈다. 시민들이 다리의 나무 판자를 구매하여 자금을 모았기에, 이러한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와 도시에 대한 높은 소속감을 불러일으켰다.

3. 경제 활성화

루흐트싱겔은 새로운 상업 공간과 공공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새로운 다리와 동선들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났으며 레스토랑과 카페, 꽃집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냈다.

4. 장소 조성 (Place Making)

다리 자체 뿐만 아니라 연결된 여러 공공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약속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어 있던 건물물을 소규모 사업가들의 업무공간 인큐베이터로 탈바꿈한 Schiebblock도 있고, 옥상농장 DakAkker, 그리고 리테일이자 이벤트 공간 Hofbogen⁸까지 보행자 다리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차량 동선의 방해 없이 일행을 만나서 다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5.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옥상 농장 DakAkker와 같은 요소는 도시 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8 Hofbogen은 오래된 철도 선로를 재생하여 공원화 이벤트 공간으로 변모시킨 프로젝트로,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이벤트를 촉진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보행 브릿지로 이어지는 노란색 바닥 패턴 © 박효선



보행 브릿지의 입구 © 박효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브릿지 © 박효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브릿지와 도시 모습 © 박효선



DakAkker 옥상 농장 © ZUS

5 접근성

1. RiF010

RiF010은 로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요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

시설의 편의성을 살펴보면, RiF010은 인공 파도를 생성하는 서핑 풀 외에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비치하우스, 탈의실, 서프바, 레스토랑 등이 함께 운영되어서 서핑을 하지 않는 관광객들도 서핑장의 레벨까지 내려가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핑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판과 안내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국내외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루흐트싱겔

먼저 루흐트싱겔은 로테르담 북부와 도심에 연결하면서 보행자들이 긴 거리와 복잡한 교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일상적인 통근과 쇼핑, 여가활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루흐트싱겔은 각기 다른 주거 블록을 연결하는 접근성이 뛰어난 인프라로, 편리성,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로테르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선에 따른 지점들과 내부 재료를 노란색으로 통일하여 보행자 브릿지가 시작되는 지점들과 브릿지를 도심에서 알아보기 쉬운 뿐더러 눈에 띄기 쉬운 색이라 늦은 시간에 범죄가 일어나기 쉽지않은 것도 있기에, CPTED⁹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9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는 다학문적 접근 방법이다. CPTED의 주요 목표는 범죄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 적용 방안

서울에서 도시 이니셔티브(Stadsinitiatief)나 시티랩010(CityLab010)은 도시 재생을 위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공공 참여 프로젝트이다.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서울형 시티랩010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선보인다.
2.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안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3. 자금 지원: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 혹은 단체가 일부 출자하여 시작하며, 시에서는 프로젝트별 지원금 상한선과 선정 프로젝트 최대 개수를 정하여 둔다.
4. 인적 지원: 선정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발전 및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서울시 내의 기업 및 서울시 관련 부처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소개해준다.
5. 추가 예산 관련: 서울시에서 출자된 지원금 이외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기부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

나. 적용 예시

서울시에 적용해본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볼 수 있다.

예시 1. 서울 옥상 농장 프로젝트

로테르담의 Dakakker¹⁰ 프로젝트처럼, 서울의 대형 건물 옥상을 활용한 도시 농업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주요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옥상을 활용하여 채소, 과일, 허브 등을 재배하는 옥상 농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예시 2. 서울 보행자 다리 프로젝트

루히트싱겔 프로젝트처럼 서울의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다리를 제안할 수 있다. 서울의 복잡한 교통망 속에서 보행자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3. 커뮤니티 공원프로젝트

로테르담의 De Hofbogen¹¹ 프로젝트처럼, 서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한다.

이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¹⁰ DakAkker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Schieblock(상업 및 업무시설 빌딩) 위에 있는 1,000m² 옥상 농장이다. 옥상에서 채소, 식용 꽃, 과일을 재배하고 벌을 키운다.

¹¹ Hofbogen은 오래된 철도 선로를 재생하여 공원과 이벤트 공간으로 변모시킨 프로젝트로,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이벤트를 촉진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리프010(RiF010)과 루흐트싱겔(Luchtsingel)은 로테르담에서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리프010은 긴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도심 속 서핑 풀을 통해 레크리에이션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접근성과 편의성 면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제공한다. 한편, 루흐트싱겔은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혁신적인 재정 조달 방식으로 도시 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서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킨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각각의 목표와 접근 방식에서 차별화되지만, 모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을 위한 멋진 아이디어만 있다면, 시민이나 단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적자원 제공과 일정 금액의 재정적 지원은 보장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다.

서울과 같은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문제를 공공 주도하에 해결하고자 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 재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두 프로젝트는 각각의 목표와 접근 방식에서 차별화되지만, 모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을 위한 멋진 아이디어만 있다면, 시민이나 단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적 자원 제공과 일정 금액의 재정적 지원이 보장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다.

서울과 같은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문제를 공공 주도하에 해결하고자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 재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유튜브 영상

국가	스웨덴
도시	스톡홀름
분류	시민참여 프로젝트

Utsikten 프로젝트

스웨덴 스톡홀름의 비밀 정원에서 아이들이 창조하는 마법

황지은 미국 아트센터 대학교에서 환경디자인(공간*경험 디자인과)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enhwang10@gmail.com

스웨덴은 공공 예술과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문화가 깊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Utsikten 프로젝트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크데스(Arkdes)에서 진행된 공공 예술 및 디자인 프로젝트로, 자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마법 같은 정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WEDEN, STOCKHÖLM

1 들어가며

Utsikten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

Utsikten 프로젝트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크데스(ArkDes, Swedish Centre for Architecture and Design) 건축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국립 박물관에서 진행된 공공 예술 및 디자인 프로젝트로, 자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마법 같은 정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tsikten은 스웨덴어로 '전망'을 의미하며, 이 공간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창의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디자이너인 MYCKET 그룹은 전통적인 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이 공간을 설계했으며, 여름 동안 방문객들과 함께 이 공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의 기본 정보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동쪽으로는 발트해를 경계로 핀란드와 접하고 있다. 면적 450,295 km²로 유럽 연합(EU)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높은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복지국가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발트해와 멜라렌 호수의 교차점에 위치한 도시로,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북유럽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현대적 도시 생활과 풍부한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Arkdes 박물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케페스홀멘(Skeppsholmen) 섬에 위치한 건축, 도시 계획, 디자인 중심의 전시 공간이다.



1. Arkdes 전경 © 황지은



2. Arkdes 후문 © 황지은

2 이 이미지는 ArkDes 박물관의 후문을 보여준다. 페리를 이용해 도착한 방문객들이 이 입구를 통해 들어와, 박물관의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Utsikten 프로젝트 전시 공간에 도달한다. 이 후문은 박물관의 고요한 분위기와 깔끔한 주변 환경을 강조한다.

스톡홀름 도시의 정보

스톡홀름은 약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스웨덴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다. 이 도시는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와 활동이 열리는 활기찬 도시이다. 또한, 스톡홀름은 많은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스톡홀름의 기후는 북유럽의 특징을 반영하여 겨울에는 눈이 자주 내리며 추운 날씨를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온화한 기후를 누릴 수 있다.

ArkDes 박물관 소개

ArkDes는 스웨덴 국립 건축 및 디자인 박물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tens centrum för arkitektur och design”이다. 이전에는 “Arkitekturmuseet”로 알려졌으며, 스톡홀름의 스케페스홀멘(Skeppsholmen) 섬에 위치해 있다. ArkDes는 건축, 도시 계획,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진행하며, 현재 관장인 Kieran Long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스웨덴 문화부 산하의 행정 기관으로,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rkDes의 역사와 권위

ArkDes는 1962년 스웨덴 건축가 협회(Sveriges Arkitekters Riksförbund)의 주도로 사립 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에 국유화되었다. 박물관은 Skeppsholmen 섬에 자리잡기 전에는 해군 항해 차트 부서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후 국제 경쟁을 통해 선

정된 Pritzker 상 수상자인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가 설계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건물은 1998년에 개관하였으며, 같은 해 Kasper Salin 상을 수상하였다.

ArkDes는 상설 전시와 여러 개의 임시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스웨덴 건축의 역사를 다양한 도면, 모델, 사진, 역사적 유물 등을 통해 선보인다. ArkDes는 또한 500여 명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포함한 도면, 모델,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으며, 1930년대부터의 저널과 24,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ArkDes의 역할과 기능

ArkDes는 스웨덴 전역에서 건축과 디자인의 역할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건축과 디자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시, 강연, 창의적인 워크숍 및 토크 등을 제공한다. 박물관은 상설 전시와 다양한 주제의 임시 전시를 통해 스웨덴 및 국제적인 건축과 디자인의 역사를 탐구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건축과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ArkDes는 스웨덴 건축 및 디자인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과 디자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공 디자인 환경 소개

스웨덴은 공공 예술과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문화가 깊다. 공공 예술은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ArkDes는 건축과 디자인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으며, Utsikten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목표를 반영한다. 프로젝트는 공공 예술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ArkDes 박물관의 배경 설명

ArkDes 박물관은 스웨덴의 국립 건축 및 디자인 박물관으로, 스톡홀름의 스케페스홀멘(Skeppsholmen) 섬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은 공공 예술과 디자인을 통해 도시 환경과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Utsikten 프로젝트는 이러한 ArkDes의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자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추진배경

Ararat 전시와의 연관성

Utsikten 프로젝트는 바로 옆에 위치한 모데르나 뮤지엄(Moderna Museet)의 이전 전시 중 하나인 “Ararat”에서 영감을 받았다. “Ararat” 전시는 1976년에 Arkdes 박물관과 건물을 같이 공유하는 Moderna Museet에서 개최된 전시로, 건축, 예술, 기술, 생태를 결합한 대규모 전시였다. 이 전시는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접근을 선보였다. Utsikten 프로젝트는 이러한 “Ararat” 전시의 철학과 방법론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공간에서의 창의적 놀이와 공동 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공 예술 및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스웨덴은 공공 예술과 디자인을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 활용하여 환경 보호와 사회적 포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철학은 Utsikten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MYCKET 그룹은 전통적인 공예 기법과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고, 방문객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 예술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매개체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Utsikten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행 과정 설명

Utsikten 프로젝트는 ArkDes 박물관의 비밀 정원에서 진행되며, MYCKET 그룹이 디자인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공예 기법, 재활용 및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방문객들은 이 공간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다. MYCKET은 특히 ArkDes 박물관의 폐기물 재료를 재활용하여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이들은 과거 전시물에서 나온 금속과 나무 등을 재활용하여 공간을 꾸미고, 이를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MYCKET의 역할 및 기여 설명

MYCKET은 프로젝트의 주요 디자인 파트너로, 전통적인 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MYCKET의 멤버인 Katarina Bonnevier는 인터뷰에서 MYCKET이 이전 전시에서 사용되었던 재활용 금속과 나무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방문객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MYCKET은 또한 점토를 사용한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적용하여 정원 내 설치물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제공하여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Utsikten 프로젝트는 2023년 10월에 착수되어 2024년 4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MYCKET과 ArkDes는 다양한 워크숍과 이벤트를 기획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규제 제한으로 인해 땅을 파지 않고도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MYCKET은 창의적인 재활용 재료와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했다. 이들은 방문객들이 정원을 탐험하고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공간을 재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1. 시민 1과의 인터뷰

질문: Utsikten 방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민 1: 첫 방문입니다. 친구 중에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나 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좋아했나요?

시민 1: 건축 활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Utsikten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1: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문: Utsikten은 다른 전시나 박물관과 어떻게 다른가요?

시민 1: 매우 자유롭습니다. 여기서는 소음을 내도 되고,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상호작용적입니다.

질문: 다른 가족들에게 Utsikten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추천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시민 1: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2. 시민 2와의 인터뷰

질문: Utsikten 방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민 2: 아내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망치질, 건축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나 정원 중, 어떤 부분을 좋아했나요?

시민 2: 아이들은 물을 주고 색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질문: 아이들이 Utsikten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2: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2살이고, 다른 아이는 4.5살입니다. 오늘 Utsikten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Utsikten은 다른 전시나 박물관과 어떻게 다른가요?

시민 2: 매우 환상적이고 상호작용적이어서 아이들이 이 공간을 즐깁니다. 조용하고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른 가족들에게 Utsikten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민 2: 네, 추천합니다. 여기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다만, 이 전시가 더 클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작았습니다.

3. ArkDes 박물관의 공공 공간 관리 담당, 워크숍 진행자인 울리카(Ulrika)와의 인터뷰

질문: Utsikten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Ulrika: 저는 ArkDes에서 공공 공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 워크숍이나 활동을 설명해주시고,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Ulrika: 우리는 MYCKET과 함께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제공하여 재료의 측면을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남부 스웨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점토 건축 기법을 이용하여 뱀을 만들고, 이 뱀이 비가 온 후에도 다시 점토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협력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묶는 데 필요한 빵 반죽을 만들 때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두꺼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협력의 본질입니다.

질문: 방문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어떤가요?

Ulrika: 많은 방문객들이 이 거대한 설치물에 놀랍니다. 가까이서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이 사진은 Utsikten 프로젝트의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점토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점토를 만지거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워크숍은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 재료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시민들의 워크숍 참여 © 헝지은

질문: 방문객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찾았다고 생각하시나요?

Ulrika: 이곳은 '비밀 정원'이라고도 불리며, 건물 뒤편에 있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다면, 이 공간을 더 다르게 홍보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입소문을 통해 정보가 퍼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이 공간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를 찾는 아이들은 8-10세이며, 아주 어린 아이들은 2세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진은 그늘진 곳에서 진행된 Utsikten 프로젝트의 설치물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이는 방문객들이 창의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무에 걸려 있는 실들도 재활용된 것으로, 여러 차례 묶어 튼튼하고 안전한 매듭을 만들어 설치물을 완성했다. 이 작업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예술을 구현하고, 재활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버려진 나무의 재활용 © 황지은



5. Mycket그룹의 Katarina © 황지은

5 Mycket 그룹의 Katarina Bonnevier는 Utsikten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처음에 스페르스홀멘 섬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 요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Arkdes가 위치한 바위의 윤곽에서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잠들어 있는 듯한 형상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로보로스'라는 상징을 디자인에 포함시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오리 가족이 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프로젝트의 환경친화적인 성공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4. Utsikten 프로젝트를 디자인한 미켓(MYCKET) 그룹의 카타리나 보네비에(Katarina Bonnevier)와의 인터뷰

질문: MYCKET의 소개와 디자인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Katarina: MYCKET은 "많다"는 의미의 스웨덴어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은 지루하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미학과 재료를 탐구합니다. 스웨덴의 디자인 문화가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반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다양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질문: Utsikten 프로젝트에서의 역할과 기여는 무엇인가요?

Katarina: MYCKET은 프로젝트의 주요 디자인 파트너로, 전통적인 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ArkDes의 폐기물 재료를 재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점토 건축 기법을 적용하여 정원 내 설치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제공했습니다.

질문: Utsikten의 디자인 영감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Katarina: 우리는 처음에 스페르스홀멘 섬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 요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이 위치한 바위의 윤곽에서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잠들어 있는 듯한 형상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로보로스'라는 상징을 디자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무는 뱀으로,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고대 남미 신화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자연의 순환과 재생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디자인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ArkDes의 전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Katarina:

우리는 박물관의 철거된 전시물에서 나온 금속 조각과 나뭇가지 등을 재 활용하여 공간을 꾸몄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숨겨진 보물'로 보고 창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5. 아크데스(ArkDes)의 Utsikten 프로젝트 담당자, 현대 건축 및 디자인 큐레이터 (Curator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제임스 타일러-포스터 (James Taylor-Foster)와의 인터뷰

질문: Utsikten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영감을 받았으며, MYCKET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James Taylor-Foster:

우리는 MYCKET을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Ararat' 전시는 건축, 예술, 기술, 생태가 함께하는 전시였고, 그 당시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MYCKET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질문: Utsikten 프로젝트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했나요?

James Taylor-Foster:

대부분의 뮤지엄처럼 초기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전시회를 위해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곤 하는데, Utsikten 프로젝트에서는 금속과 강철의 70% 이상을 재활용했습니다. 또 우리는 섬에서 나온 재료들도 사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쓰레기라고 부를 수 있지만, MYCKET은 이를 숨겨진 보물로 보았습니다.

질문: 이러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James Taylor-Foster:

항상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무는 부드럽게 다듬어졌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처리되었습니다.

질문: Utsikten이 지역 사회에 어떤 유익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James Taylor-Foster:

Utsikten이 놀이와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YCKET이 가진 놀라운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 공간에 '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는 잠든 트롤이 깨어날 때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급진적인 프로젝트는 다른 박물관들도 유사한 시도를 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문객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았나요?

James Taylor-Foster:

이 장소가 자연스러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피드백은 긍정적입니다. 볼만 사항이 있을 때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질문: Utsikten에서의 워크숍이나 활동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James Taylor-Foster:

워크숍은 MYCKET과 제 동료인 사라(Sara Sandell)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특정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봐왔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리거나, 만들거나, 페인트칠을 합니다. 기본적인 도구들(물, 물감, 붓, 가위 등)이 제공됩니다.

질문: 이러한 워크숍이 ArkDes의 교육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James Taylor-Foster:

우리는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교육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테스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문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질문: Utsikten과 같은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나요?

James Taylor-Foster:

이 프로젝트는 1년 또는 2년 동안 계획된 것이며, 여름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보여줍니다. 매년 새로운 디자이너를 선정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James Taylor-Foster:

이 공간은 많은 기쁨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숫자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외 공공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문객 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고, 행복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방문객들은 이 장소를 어떻게 찾나요?

James Taylor-Foster:

방문객들은 페리나 도보로 이곳에 오며, 근처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를 사용하지만, 입소문이 가장 강력합니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Utsikten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특히 어린이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Katarina Bonnevier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로 오리 가족이 정원의 연못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언급했다. 이는 프로젝트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리 가족의 방문은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6. 시민들의 워크숍 참여 © 황지은

6
워크숍에서 시민들이 뱀 모양의 점토 설치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워크숍에서는 물, 물감, 붓 등 기본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James Taylor-Foster는 Utsikten 프로젝트가 공공 예술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환경 보호와 창의적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Utsikten은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환경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Utsikten은 공공 예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공 공간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또한 아크데스(ArkDes)의 교육 프로그램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공공 예술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물, 물감, 붓 등의 기본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아크데스(ArkDes)에는 많은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며, 프로젝트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워크숍은 박물관의 조용한 내부에서 벗어나 바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며,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변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체험학습으로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이 자연과 예술을 결합한 독특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Utsikten 프로젝트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예술이 도시 환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tsikten 프로젝트의 설치물인 트롤의 귀와 뱀 귀걸이 © 황지은



7
ArkDes 박물관에는 특히 유모차를 끌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많이 방문하고 있다. 워크숍을 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으며, 박물관의 조용한 내부를 벗어나 바깥에서 자유롭게 놀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주변 초등학교에 홍보를 한 결과,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7. 프로젝트의 워크숍 참여 © 황지은

5 접근성

정원 및 워크숍의 접근성 및 편의성 평가

Utsikten 정원은 스톡홀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매우 접근성이 뛰어나다. 방문객들은 대중교통, 자전거, 혹은 도보로 쉽게 방문할 수 있으며, 페리를 이용해 박물관의 뒤편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James Taylor-Foster는 방문객들이 자주 박물관의 뒷문을 통해 들어 오며, 이는 전통적인 박물관 방문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정원은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와 넓은 보행로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정원을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명

Utsikten 정원 내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부모들이 쉴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워크숍 공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모든 도구와 재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Katarina Bonnevier는 인터뷰에서 워크숍에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원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8 박물관이 위치한 스케프스올멘 섬으로 가는 다리이다. 이곳에는 도보가 차와 자전거 도로 양 옆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나가는 배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멋진 사진을 찍는다.



8. 스케프스올멘 섬으로 가는 다리 © 황지은



9. 박물관 뒤 프로젝트 1 © 황지은

9 이 프로젝트 바로 옆에는 레스토랑이 있으며, 식사 중에도 프로젝트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비록 건물의 뒤편이지만, 바깥 전망이 매우 좋아 사람들은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다.



박물관 뒤 프로젝트 2 © 황지은

6 서울 적용 방안

Utsikten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에서의 적용 가능성 논의

Utsikten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는 서울에서도 유사한 공공 예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 놀이 공간은 서울의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시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공 공원이나 도심 속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Utsikten과 같은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유사한 공공 예술 및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

서울에서는 다양한 공공 공간에서 Utsikten과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재료를 활용한 워크숍,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창작 활동,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공 예술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평가 및 결론

Utsikten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공공 예술과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성공적인 사례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Katarina Bonnevier와 James Taylor-Foster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방문객들에게 환경 보호와 창의적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로젝트는 특히 자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YCKET과 ArkDes의 협업을 통해 실행된 이 프로젝트는 창의적 놀이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공공 예술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서울 적용 방안 및 기대 효과

서울에서도 유사한 공공 예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창의적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및 기대 효과

Utsikten 프로젝트는 공공 예술과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공공 예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 보호와 창의적 놀이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도 유사한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예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튜브 영상

국가	싱가포르
도시	싱가포르
분류	시민참여 프로젝트

〈Enabling Village〉 커뮤니티

사람과 환경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템피니스 허브

김홍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 한국에서는 인하우스 브랜드디자이너로 일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kimhong.draw@gmail.com

Our Tampines Hub(OTH)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허브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행정 처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 문화 공간, 시민 활동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하여 지역 거주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역마다 자리 잡은 이러한 커뮤니티 허브를 “Community Centre”라고 부르며,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구마다 있는 주민센터와 유사합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문화 강습뿐만 아니라 도서관, 헬스케어 센터, 식당, 쇼핑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결속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SINGAPORE, SINGAPORE

1 들어가며



Our Tampines Hub 건물 전경 © 김홍

일상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끈끈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역 주민센터'입니다.

한국의 주민센터는 주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주민등록, 민원 처리, 세금 납부, 복지 서비스 신청 등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 문화 강좌, 체육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주민센터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민센터는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 문화 공간, 시민 활동 공간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싱가포르의 주민센터는 각각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센터는 주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주민센터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소개할 곳은 싱가포르 동쪽 주거 중심지에 위치한 템피니스 지역의 허브(Our Tampines Hub, 이하 OTH)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공동체의 연대를 키워나가는 곳으로, 현재 250,000명 이상의 주민과 약 80,000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추진 배경

이전에도 템피니스 지역에는 여러 커뮤니티 활동이 있었지만, OTH와 같은 통합된 주민센터는 없었습니다. OTH는 2014년 싱가포르의 미래형 도시국가 건설을 위한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로,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의 배경

싱가포르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습니다.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은 2014년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1. 도시 문제 해결

교통, 에너지 관리,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경제 및 사회 발전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템피니스 허브의 필요성

템피니스 지역은 싱가포르 동부에 위치한 주요 주거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커뮤니티 허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 센터들은 대부분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시설, 문화 공간, 공공 서비스 등이 분산되어 있어 주민들이 여러 장소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템피니스 허브는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 통합한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민 참여 기반의 설계

템피니스 허브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 로드쇼, 포커스 그룹 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템피니스 허브는 다목적 스포츠 홀, 문화 예술 극장, 공공 서비스 센터 등을 포함한 통합 커뮤니티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설 및 운영

템피니스 허브의 건설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설계도와 예상 모델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일부 시설이 먼저 개장되어 주민들이 초기 시설을 이용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템피니스 허브가 공식적으로 개장되었으며,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OTH는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입니다. 공공 서비스, 스포츠 시설, 문화 공간, 시민 활동 공간 등 30개 이상의 생활 시설이 한 곳에서 제공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템피니스 허브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주요 특징을 소개합니다.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의 5가지 E 정책

OTH는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입니다. 공공 서비스, 스포츠 시설, 문화 공간, 시민 활동 공간 등 30개 이상의 생활 시설이 한 곳에서 제공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템피니스 허브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주요 특징을 소개합니다.

- 1. Engage (참여)** OTH는 본격적인 설계 프로젝트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픈 후에도 정기적으로 주민들과의 미팅을 개최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듣는 등 소셜 미디어, 포커스 그룹 등을 통해 주민들과 양방향 소통과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2. Enrich (정보 강화)**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여 공간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키오스크는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배치합니다.

- 3. Empathy (공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공감하여 디자인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4. Empower (권한 부여)**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커뮤니티가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 정원인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OTH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 5. Evaluate (평가)**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의 평가를 듣습니다. 정기적인 피드백, 평가 설문지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OTH의 기획 및 설계 과정

이 프로젝트는 2011년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에 본격적인 설계와 주민 참여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 로드쇼, 포커스 그룹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설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템피니스 허브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6년 일부 시설이 먼저 개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템피니스 허브가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OTH 서비스 현황

식사, 수영, 클라이밍, 영화 관람, 스터디, 독서, 축구 등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 항상 많은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또한, OTH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OTH 건물 중심의 실외축구장 © 김홍



아이들을 위한 러닝키즈존 © 김홍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현재 싱가포르 커뮤니티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높은 이용률의 공공 서비스

OTH는 12개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도서관, 의료 센터, 체육 시설,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되며, 약 25만 명의 주민과 8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방문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첫 분기 동안 월 평균 방문자 수는 100만 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용객들이 OTH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인증된 친환경 시스템

OTH는 BCA의 Green Mark Platinum 인증을 받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친환경 커뮤니티 허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태양광 패널 설치, 물 저장 및 필터링 시스템, 자연 환기 시스템 등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싱가포르 내 다른 지역 주민 센터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A.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OTH는 매일 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Eco-Digester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드코트(Hawker center)와 슈퍼마켓, F&B 아울렛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음용수, 액체 식물 영양제, 유기 비료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B. 비음용수의 활용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는 비음용수로 전환되어 청소 및 정원 관리 용으로 사용됩니다. 비음용수는 마시거나 요리할 수는 없지만, 건물 내외부의 청소와 정원 관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물 자원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템피니스 허브는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 액체 식물 영양제와 유기 비료
음식물 쓰레기는 또한 액체 식물 영양제와 유기 비료로 전환되어 템피니스 허브 내의 옥상 정원과 녹지 공간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영양제와 비료는 화학 비료 대신 자연적인 성분을 사용하여 식물의 성장을 돕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주민들은 이 비료를 모으고 사용하여 직접 식물을 가꾸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D. 태양광 패널 설치
OTH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중 많은 햇빛을 받는 열대 기후인 싱가포르의 특성상, 태양광 패널은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 빗물 저장 및 필터링 시스템
OTH는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빗물을 받아놓은 후, 정원 관리와 청소 등에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빗물 저장 시스템은 건조한 시기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집된 빗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OTH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F. 자연 환기 시스템
건물에는 자연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연 환기 시스템은 바람과 공기 흐름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공조 시스템 사용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 환기 시스템은 또한 실내 온도를 조절하여 냉방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TH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G. 주민 참여형 친환경 교육
이곳은 주민들에게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리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재활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옥상 정원은 주민들이 직접 가꾸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식물을 키우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OTH의 성공적인 운영과 영향력

1. 친환경 지속 가능성 촉진

템피니스 허브의 친환경 솔루션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해 교육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은 매일 거의 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비음용수, 식물 영양소, 유기 비료로 변환하여 주민들이 환경 보호의 이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2. 다른 커뮤니티 센터들을 위한 본보기

템피니스 허브의 성공은 다른 커뮤니티 센터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역의 커뮤니티 센터들은 비슷한 친환경 솔루션을 채택하여 유사한 성공을 이루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역시 다른 커뮤니티 센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축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피드백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다른 커뮤니티 센터가 자신들만의 맞춤형 주민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OTH의 친환경 시스템 © Our Tampines Hub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옥상정원 © 김홍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대상의 리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 © 김홍

5 접근성

OTH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싱가포르 동쪽 교통의 중심지 위치

OTH는 싱가포르 동쪽 템피니스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3개의 지하철역(템피니스 웨스트, 템피니스, 템피니스 이스트)과 가까워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실내 주차 공간과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 주차 공간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

건물이 사방으로 트여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며, 곳곳의 식물들은 보행자들이 이동하는 동안 쾌적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노인, 휠체어 이용자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에서도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TH에서 주변 건물까지 연결되는 도보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 강한 햇볕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 네이션 기술 도입

QR 코드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카드 중심의 캐시리스(Cashless)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도 여러 대 구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연령과 나이를 아우르는 모든 편의시설

수영장, 클라이밍 월,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러닝트랙 등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닝트랙은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클라이밍처럼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특히 옥상 수영장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실외 영화관과 다양한 문화 이벤트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OTH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벤트와 공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싱가포르의 특성에 맞춰 도서관에는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해 스터디존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 다양한 가격대의 레스토랑 및 쇼핑몰

건물 곳곳에 식당과 카페,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 편리하게 식사와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호커센터부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카페와 음식점까지 다양하게 입점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문구점과 어른들을 위한 생활용품점도 운영되어 지역 쇼핑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6. 공공 서비스 지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와 다양한 공공 서비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불편함 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상주 직원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붐비는 서비스센터 © 김홍



OTH 건물 1층에 자리잡은 저렴한 가격의 야외 푸드코트 © 김홍



오픈스페이스에 자리한 클라이밍센터 © 김홍



공간 곳곳에 가득한 쉼터 © 김홍

6 서울 적용 방안

서울에서도 템피니스 허브(OTH)와 같은 통합 커뮤니티 공간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센터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생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1. 주민 참여 유도

먼저, 주민 참여는 커뮤니티 공간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민 회의,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간에 대한 애착과 사용 빈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생태 지속 가능성 고려

다음으로, 생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은 환경 보호와 자원 보존을 위해 이제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OTH 사례와 같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등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된 정수기나 커피숍에서는 주민센터용 컵을 활용하여 재사용을 장려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모으는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3. 각 지역의 특성 반영

또한, 각 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풍부한 자원이 있는 구에는 역사문화 커뮤니티 허브를 만들어 전통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미술 전시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음악, 미술, 디자인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허브를 만들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젊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 시설과 건강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요가 스튜디오, 수영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동 시설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커뮤니티 내에서의 유대감을 강화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

마지막으로, 주민센터는 단순한 공공 서비스 제공 장소를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각 구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커뮤니티 허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강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청소년들이 OTH 외벽에 그린 그래피티 © 김홍

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또 중앙에 있는 축구장이 정말 훌륭해요. 축구 매니아들도 구장만 보러 직접 찾아오는 곳이에요. 가끔 커뮤니티 축구 리그가 열리는데, 직접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구경만 해도 재미있어요. 다양한 운동 클래스도 열리는데,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아직 저도 다 못해봤어요.”

공간은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이 활발히 사용하고 참여하는 Our Tampines Hub(OTH)는 이러한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참여하면서, 단순한 주민센터가 아닌 템피니스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7 마무리하며

템피니스 허브의 한쪽 구석에서 학생이 버블티를 마시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는데요, 템피니스 허브에서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학생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 템피니스 허브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영장이 정말 좋아요. 싱가포르의 매일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욕상에 있는 수영장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밍 월도 있어요. 처음 도전하는 사람부

URBAN REGENERATION PROJECT

도시재생 프로젝트

: 버려진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

TORINO

60

이탈리아, 토리노 | 스피나3의 재생사업과 파르코 도라
자동차 공장이 멈춘 자리에 피어난 친환경 그라피티 공원

NEW YORK

76

미국, 뉴욕 | 브루클린 인더스트리 시티
브루클린 최대의 문화 허브: 예술과 창작의 중심지

DONGGUAN

92

중국, 동관 | 광둥 샤오전(广东33小镇·Guangdong 33town)
세계의 공장에서 광동 문화예술의 등지로



4



유튜브 영상

국가	이탈리아
도시	토리노
분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피나3의 재생사업과 파르코 도라

자동차 공장이 멈춘 자리에 피어난 친환경 그래피티 공원

김영인 한국에서 서양사를, 이탈리아에서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현재는 토리노 시에서 판화 공방을 운영하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kimyi525@gmail.com

1899년 탄생한 피아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로, 토리노를 거점으로 수많은 자동차를 제조했지만, 90년대를 마지막으로 본사만 남긴 채 제조 공장들은 모두 해외로 이전한 상태죠. 그렇다면 문을 닫은 자동차 공장은 그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글과 영상을 통해 피아트 자동차의 철공소와 미쉐린 타이어 공장이 있던 “스피나 3” 지역이 강물과 그래피티가 인상적인 파르코 도라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ITALY, TORINO

1 들어가며



파르코 도라 전경 © 김영인

2011년 토리노의 북서부에 파르코 도라(도라 공원 Parco Dora)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공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도라 강물을 중심으로 페인트칠 없이 드러난 콘크리트와 철근들, 벽에 가득한 그래피티, 스케이팅파크에서 땀을 흘리는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은 도시의 조경에 신선한 생기를 더해주고 있다. 개장 이후 국제적인 일렉트릭 뮤직 페스티벌부터 동네 아이들의 생일파티 장소까지 크고 작은 행사의 개최지로 사랑받으며 토리노의 문화생활에 활기를 더해주는 명소가 된 이 공원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된 도시 재생 사업의 결과이다. 한때는 버려진 공장들이 차지했던 도라 강가가 도시 디자인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된 과정은 어땠는지, 사업 이후 토리노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나가고 있는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2 추진 배경



스피나3가 공장부지로 사용되던 시절, ©<https://www.museotorino.it/view/s/2393d480122c41b4bf77b05b373abf7e>

19세기 후반부터 토리노에 많은 산업체가 들어섰다. 자동차 회사 피아트(Fi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철강, 제조 산업체들, 라바짜(Lavazza) 커피 같은 기호 식품 회사들, 신발 회사인 수페르가(Superga)와 의류회사 카파(KAPPA), 그 외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서며, 토리노는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산업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토착 인구만으로는 부족했던 공장의 일손은 남부로부터의 대규모 이주로 채워지며, 이탈리아 북서부, 알프스 산맥 근처의 도시는 인구 규모에 있어서 국내 4번째로 큰 대도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20세기 후반 오일쇼크와 경제 침체,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모두 제조산업에 크게 의존하던 토리노 시에 커다란 위기로 다가왔다.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도산하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공장 부지는 기능을 잃고 거대한 폐허로 남았다.

1990년대 중반, 시 당국은 도시를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던 트램 노선을 철거하면서, 철로가 있던 주변 지역인 “스피나 첸트랄레(Spina Centrale, 도심의 등뼈를 의미한다)”의 대대적인 재생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4개로 나누어진 “스피나 Spina” 구역 중 3번째 사업 대상지로서, 이 보고서의 주제가 되는 도라(Dora) 강 주변 옛 공업 지대가 선정되었으며 “스피나 3”로 불리게 되었다.

한때 피아트, 미쉐린(Michelin), 사빌리아노(Savigliano) 세 개 기업의 공장이 있었던 이 지역은 전성기에는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일터였다. 70년대 이후 점진적인 침체를 겪다 90년대 초반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았고, 당시에는 광대한 시설만 남은 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폐허로 남은 피아트 철공소, ©<https://www.museotorino.it/view/s/2393d480122c41b4bf77b05b373abf7e>

2006년 예정된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의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토리노시는 버려져 있던 산업 지대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민에게 열린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옛 공장 골격과 자연이 어우러진 파르코 도라의 디자인 © 김영민

2004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은 독일 뮌헨을 기반으로 하는 조경 스튜디오 “라츠 운트 파트너(Latz+Partner)”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와 독일 건축가들이 합작한 “파르코 도라” 프로젝트이다. 스피나 3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라 강의 존재는 이 지역에 과거 공장 지대가 들어선 중요한 이유였다. 새로 조성될 공원에서도 강물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주목 받았고,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공원 내 5개의 부지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공원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파르코 도라”라고 붙여졌다.

라츠 스튜디오는 해당 프로젝트 외에도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탈산업적 도시 재생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재생 사업의 규모나 이후 쓰임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의 손이 닿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존재하는 산업 시대의 기능을 잃은 건축물을 활용하여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동시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도시 경관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스피나 3 지역의 재생 사업 또한 남겨진 공장 단지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고,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존하여 재활용하였다. 재정비된 이후 들어선 45헥타르의 공원과 주거 지역, 쇼핑센터 및 문화 공간, 도로와 주차 공간에서는 새로운 자재로 덮어지거나 페인트칠 되지 않고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옛 건물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옛 건물의 사용이 단순히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오염과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사라져가는 산업 도시 토리노의 과거를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통해서 기억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스피나 3 프로젝트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탈산업화 이후의 미래 사회가 맞이한 위기를 직면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성을 강조한다. 부지 내에는 환경 박물관과 함께 환경 공원(Environmental Park)이 세워졌다. 환경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실용성과 경제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학술 활동이 진행되는 연구소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과 운영 전반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존중, 재활용, 유기 건축 등의 키워드는 반복되어 나타난다. 파르코 도라는 2012년 국제 건축상(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과 2017년 유럽 정원상(European Garden Award)을 수상하였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1995년	지역 정부에 의해 스피나 첸트랄레 재생 사업이 승인되었다
2000년	마스터 플랜이 결정되었다.
2004년	공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스피나 3 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고층 주거 건물과 쇼핑센터 등이 먼저 들어섰다.
2006년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작업인 Chiesa del Santo Volto 성당이 건축되었다.
2011년	주요 사업인 파르코 도라 일부 구역이 처음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방대한 규모의 사업인 만큼 지역별로 나누어 사업이 먼저 완료된 공원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였다. 공원 내 5개의 구역인 비탈리(Vitali), 인제스트(Ingest), 발도코(Valdocco), 미셴(Michelin), 모르타라(Mortara)는 각각 그 자리에 위치했던 공장의 이름을 따왔다. 당시 처음으로 개방되었던 구역은 옛 피아트 공장 단지였던 인제스트, 비탈리, 발도코 일부였다.
2012년	모르타라 구역이 개방되었다.
2016년	미셴 구역의 공원이 개방되었다.
2021년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발도코 북부는 “아이언 밸리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며 스피나 3 재생 사업이 완료되었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1. 도시조경

재생 사업 이전 스피나 3구역은 80%가 개인 소유, 20%가 공공 부지였다. 사업 이후 40%가 개인 소유, 60%가 공공 부지화되며 공원, 환경 박물관, 거주 단지, 영화관과 공연 시설, 서점을 포함하는 문화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되었다.

기능적인 산업 지대였던 해당 지역은, 현재는 시내에서 두 번째로 큰 표현적 가치를 가진 공원을 중심으로 자연과 열린 문화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주거지역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버려진 공장 골격과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한 덕분에, 쓰임새를 바꿔 새단장한 건물들과 새로 지은 시설물들 모두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주변 건축물들을 비롯한 도시의 풍경과 위화감 없이 어우러진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오래된 건물들은 스피나 3 지역의 일관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미학적 요소를 더해주고 있다.



재생 사업 이후 스피나 3의 모습 © 김영인



복원된 도라강의 모습 © 김영인

산업지대로 이용되던 시기에는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던 도라 강은, 재생 사업 이후 “물의 도시”라는 토리노의 슬로건과 걸맞게 해당 사업의 주역으로 꼽히며, 공원의 이름인 파르코 도라의 유래가 되었다. 한때 공장지로 덮여 있던 강을 복원한 후 그 물줄기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며, 강물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강물과 접근하지 않은 인제스트 구역도 인공 개울과 수중 정원과 같은 물을 테마로 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장식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거북이나 물고기 등 다양한 동물들은 물론 수중 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공원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2. 기념관 건립

파르코 도라 사업에는 두 개의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 과거 산업 사회와 산업화 이후의 미래 사회를 테마로 하고 있다.

아이언 밸리 뮤지엄 Iron Valley Museum

스피나 3에 자리했던 과거 산업 사회의 역사를 소개하는 아이언 밸리 뮤지엄은 건물 속에 있지 않다. 공원 곳곳에서 이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공장의 역사와 기능을 설명하는 “토템”이 배치되어 있다. 파르코 도라 전체가 곧 아이언 밸리 뮤지엄인 셈이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토템을 통해, 공원 내에 풍부하게 남은 옛 공업 지대의 흔적 사이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표시된 QR 코드를 따라가면 파르코 도라에 자리잡고 있던 옛 철강 산업 시대의 역사를 상세히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공원 내 토템의 모습 © 김영인

환경 박물관 Museo A come Ambiente

1947년에 세워진 기존의 건축물은 한때 미쉐린 공장 단지의 출입구, 구내 식당, 관할 소방서로 쓰였다. 2004년 새단장을 거친 후 같은 건물 안에 환경 박물관 MACA가 처음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에는 유럽에서 단일 주제로 환경만 다루는 박물관은 이곳뿐이었다고 한다.

환경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과거 산업화 시대에 스피나 3의 공장들은 제조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염 물질들을 방출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새로운 세대가 마주한 환경 위기에 대한 책임감이 이 공간을 통해 나타난다. 박물관은 기후 변화, 식량 부족 등의 문제를 다루며 효율적인 재활용 방식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에는 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운영 중이다.

환경 박물관과 연계된 환경 공원(Envi Park)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 정원이자 건물이며,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연구가 이루어지는 연구소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박물관 입구 © 김영인

3. 공원여가정책

혁신성이 많이 부각되는 파르코 도라이지만, 전통적인 공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시설들 또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공원 내 구역별로 각종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터,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마련되어 있고, 애완견들이 목줄을 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쳐진 애견 놀이터도 있다. 공원을 찾는 전 연령대의 다양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느껴진다.



공원 내 스케이트 보드 파크 © 김영인



파르코 도라의 식수대, 토렛 © 김영인



분리 수거 가능한 비탈리 구역 쓰레기통 © 김영인

공원 전역에 설치된 식수대에도 이러한 배려가 엿보인다. 수도 아래 부분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산책 나온 애완견들 또한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원 내 여러 종류의 식수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토렛(Toret)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소머리의 수도 디자인이다. 토리노의 상징은 숫소이며, 토렛은 지역 방언으로 작은 소를 의미한다. 1854년에 도시의 엠블럼 차원에서 지정된 녹색의 소머리를 본뜬 디자인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파르코 도라는 물론 도시 전역에서 700개 이상의 토렛을 만날 수 있다. 150년이 넘게 토리노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 이미지를 본뜬 티셔츠나 자석, 머그컵 등 다양한 관광 기념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토리노 시의 공공 장소 쓰레기통은 보통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 않지만, 공원 내 5개 구역 중 하나인 “비탈리” 구역은 예외이다. 남겨진 피아트 공장의 지붕 아래의 넓은 공터는 스포츠나 크고 작은 모임 장소로 인기가 있어 음료수나 맥주 등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 음식을 가져와 피크닉을 즐기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이에 맞게 캔과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4. 공공미술

용도를 잃고 버려지는 순간부터 건물들은, 무엇이든 정돈되고 통제 안에 있어야 할 도시의 생태계에 흥미로운 변주를 제공한다. 관리가 없이 흉물이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변화도 쉽게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가 언제 그려놓은 지도 모르는 스프레이 자국들이 하루가 다르게 건물 벽 위로 번져간다. 관점에 따라서는 반달리즘으로도, 예술로도 볼 수 있는 그 행위에서 도시의 폐건물들은 자주 스트리트 아트를 품은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파르코 도라의 벽화 © 김영인



그라피티 전용 벽 © 김영인

스트리트 아트는 도시의 인공물들을 소재로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미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라면, 그중에서도 그라피티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라이터(writer) 개인 혹은 다수로 구성된 크루(Crew)가 스스로를 상징하는 단어인 “태그(Tag)”를 써내는 보다 좁은 의미의 장르이다. 그라피티 문화는 경범죄와 예술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있는 반문화에서 출발하여 조심스레 기성 예술 문화의 일부로 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라이터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를 꺼려한다.

파르코 도라에는 더 이상 버려진 건물이 없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그라피티들이 그려지고 있다. 공원 전체는 공식적으로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권장하고 있다. 공원 내 기물들 위에는 태그가 쌓여 있지만, 아무도 덧칠하는 수고는 하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태그가 그 위에 쓰여질 것이다.

공원 내 비탈리 구역은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을 위한 배려가 유달리 눈에 띈다. 친절하게 그라피티를 하기 좋은 높이로 라이터들을 위한 전용 벽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전용 공간 이외에도 어디든지 작업할 수 있다.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거대한 피아트 공장의 냉각탑 역시 벽화를 담은 캔버스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시마다 그라피티 허용에 관한 규율이 각기 다르다. 대부분의 도시

들은 암묵적으로 지정된 일부 건물, 시설 등에 작업하는 것은 관용하는 편이다. 한편 토리노 시에는 이례적으로 무라르테(MURARTE)라는 자치 기관을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라르테의 목적은 스트리트 아트와 관련한 행정 전반을 명확히 하고,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지역 상생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 이 기관을 통해 예술가들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간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파르코 도라와 같이 도시 내 그라피티가 허용된 지역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시와 외부 기관을 통한 정기적, 비정기적인 지원을 보급하는 역할도 한다. 간혹 생기는 아티스트 간, 다른 시민들과의 분쟁에 대변자 혹은 중재자가 되기도 한다.

공식적인 기관의 존재를 통해 스트리트 아트 문화에 사회적 인정을 더하며, 창작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스트리트 아트에 관심은 있었으나 직접 시도하기는 부담스러워하던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었다. 기존의 라이터들이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것이 대다수였던 데 반해, 공개적인 파르코 도라에서의 행사에는 여성들은 물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파르코 도라와 무라르테의 운영에서 보이는 토리노 시의 방침은 스트리트 아트와 그라피티 문화를 양지로 불러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공원 내 대규모의 공공미술 작업이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베르니 스쿠르사토네 © 김영인

베르니 스쿠르사토네 Berny Scursatone (스트리트 아트 단체 몽키즈 에볼루션 Monkeys Evolution 대표)

Q. 파르코 도라의 그라피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공원 전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끔 잼이라고 불리는 작은 행사를 하는데, 10명에서 50명 정도까지 모입니다. 이미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덮기 위해 함께 배경을 칠하기도 하죠. 배경을 칠할 페인트를 사기 위한 돈을 나눠서 내고, 그 후 각자 자기 재료로 작업을 합니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시에서 지정된 벽에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자주 혼자 오기도 합니다. 어느 여름 일요일 저녁, 저희가 ‘피타타(낙서)’라고 부르는 걸 하러 오곤 하죠. 친구들과 함께 오면, 다 같이 가까이 서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리기도 합니다.

공원에 유달리 큰 벽들과 큰 작업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의미나 표현 방식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작업들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자유와 자율의 영역으로 남

아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라도 다른 작업이 계속해서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벽 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Q. 삼촌께서 예전에 이 자리에 있던 피아트 철공소에서 일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새롭게 변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A. 제 부모님은 베네토 지방과 남쪽에서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1960년대에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이 공장, 바로 여기 지금은 공원이 있는 자리에서 3교대로 일을 하셨어요. 6개월 전에 외삼촌은 처음으로 저와 함께 파르코 도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오셨습니다.

“저기 산처리를 하는 탱크가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약간 “지옥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아주 구식 철공소였으니 그럴 만하죠.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커다란 지붕을 가진 공장, 철과 금속을 다루는 엄청난 공간을 차지한 괴물 같았어요.

외삼촌께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만족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삼촌은 85세이십니다. 공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분께 이런 그래피티는 좀 이상한 무언가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5. 시민 행사

옛 피아트 공장의 지붕을 그대로 남겨놓은 공터인 비탈리 구역은 야외 장소임에도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어, 파르코 도라가 개방된 이후 다양한 시민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단계에서 이미 다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고려하여 축구, 농구, 테니스, 배구, 스케이트 등 다양한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넓게 트인 공간적 특성 덕분에, 시민들의 개인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플리마켓, 저글링 컨벤션 같은 행사, 무슬림 신자들이 라마단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종교 행사 장소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개방 직후부터 이곳에서 ‘카파 푸투르 페스티벌(KAPPA Futur Festival)’이라는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이 매년 여름 개최되기도 합니다.



2023년 카파 푸투르 페스티벌 © 마르코 멘기 Marco Menghi, 페스티벌 제공



파르코 도라에 남은 옛 피아트 공장 지붕 © 김영인

6. 도시 브랜딩

파르코 도라가 개장한 이후 약 10년간, 스프레이 파크로 유명세를 타면서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크고 작은 행사들의 개최지로 사용되면서 도시의 북부에 부재했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파르코 도라가 대표하는 근현대 산업 사회의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토리노 관광 명소들이 왕정 시대 귀족 문화의 유산임과 대비되며 토리노의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5 접근성

주차난으로 악명이 높은 토리노이지만, 파르코 도라만큼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와 애완동물을 동반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파르코 도라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들도 쉽게 공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환경 보호와 함께 더욱 편리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토리노 물의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리노의 4개 강을 잇는 약 70km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었고, 도라 강 주변의 파르코 도라 역시 이 정비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망을 통해 시내 전역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공원 내부 전역 또한 자전거로 누빌 수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조성된 주차 공간 © 김영인

시민들이 찾아내는 공간의 목적

과거 자동차 제조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사용되던 공간은 결국 시대의 변화와 함께 쓸모를 잃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며, 파르코 도라는 공원이자 박물관, 미술관, 연구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파르코 도라 공원의 시설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공장 건물을 이용해 만든 지면 위의 각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역사적 유물이면서 동시에 벤치로 사용되고, 그래피티 작업의 도구가 되며, 팔굽혀펴기 운동기구로도 활용됩니다. 옛 제철소의 거대한 지붕 아래의 공터는 야외이면서 실내처럼 쓰이며, 농구장, 콘서트장, 동네 어린이들의 생일 파티 장소로 다양하게 변모합니다. 이 공간들은 특정 용도를 고집하지 않고, 시민들이 그때그때 일상 속에서 용도를 찾아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미술을 위한 실험

공원 운영에 있어서, 특히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관용은 인상 깊은 점이 많다. 공원 내 그라피티를 허용한 이후, 운영 측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언 밸리 뮤지엄 프로젝트의 일부 토렘은 그라피티로 덮여 정보가 가려지기도 했고, 벽화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언론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파르코 도라는 10년 넘게 검열을 지양하는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작업을 덮을 수 있는 자유도 인정하면서 공원의 자체적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와 불편함이 공존하면서 예술적 대화와 갈등을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파르코 도라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를 보장받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들과 예술가들은 한밤중 후미진 골목에서 몰래 작업할 필요 없이, 공공의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지에 있던 비주류 문화를 공공의 공간으로 끌어내,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벽화 마을”로 대변되는 벽화를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 벽화 작업은 한 번 조성된 후에는 쉽게 바뀌지 않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한편, 파르코 도라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들이 갱신된다. 일부 외부의 지원을 받은 작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율적인 작업이기에 운영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주기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라피티 작업을 하는 모임인 “그라피티 잼” 역시 무라르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르코 도라 인근 쇼핑센터와 주거지역 © 김영민

이 보고서는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로서 스피나 3 재생 사업의 성과에 집중했다. 하지만 어떤 훌륭한 프로젝트라도 과정과 결과가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다. 향후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마주한 몇 가지 의미 있는 비판을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스피나 3 재생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녹지율을 높이고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들어선 후, 인근 지역의 환경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원의 주요 시설이 들어선 것은 2011년 이후였고, 공사 완료는 2021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의 주거 건물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먼저 들어섰다. 친환경 시설을 짓는 것과는 별개로, 공사 과정에서는 소음 공해와 지면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대기 오염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주거 시설이 들어선 당시에는 공사가 20년 가까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입주를 서두른 주민들이 재생 공사 과정에서 공해와 각종 불편에 노출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스피나 3의 재생 사업은 파르코 도라의 완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스피나 3 주민 협회의 입장에 따르면, 재생 사업 이후 이 지역에 새롭게 이주한 주민은 1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반에 약속되었던 의료 시설, 교육 시설, 우체국 등의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사 기간 동안 지역 행정이 파르코 도라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세심한 행정이 뒤로 미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스피나 3에서 버려진 공간들은 새로운 용도를 찾았지만, 토리노에는 여전히 방치된 공간이 많다. 토리노 공과대학에서 진행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6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표면적이 방치되어 있다. 최근 주택 부족 문제와 그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방치된 공간들은 큰 손실로 여겨진다. 이 모든 건물들이 파르코 도라처럼 대대적인 공모와 예산, 시간이 투입되어 재탄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 당국이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서, 폐건축물 전반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도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과 소외 지역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도시 전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파르코 도라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5



유튜브 영상

국가	미국
도시	뉴욕
분류	도시재생 프로젝트

브루클린 인더스트리 시티

브루클린 최대의 문화 허브: 예술과 창작의 중심지

김효중 Pratt Institute 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 후 현재는 뉴욕에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탈리티 회사에서 아트디렉터로 활동중입니다.
hyojoong1219@gmail.com

브루클린 인더스트리 시티는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과거의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업무 및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더스트리 시티는 35에이커(약 14만 평) 부지에 걸쳐 있으며, 오피스, 소매점, 레스토랑,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 행사와 워크숍,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려 지역 사회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브루클린의 도시 속 작은 도시, Industry City에 대해 소개합니다.

USA, NEW YORK

1 들어가며



곳곳에 자리한 아트 © 김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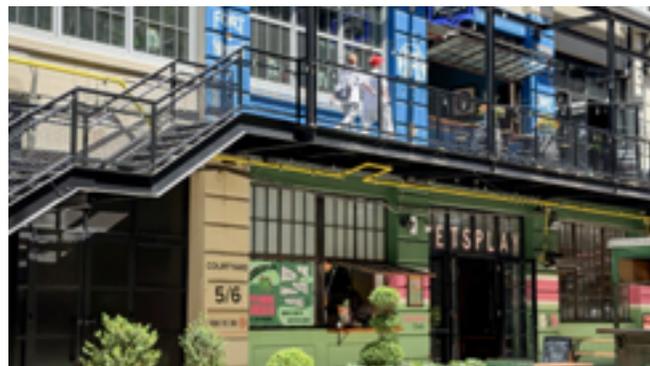
서울은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도시 재개발과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Industry City 프로젝트는 과거의 낙후된 산업 지역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허브로 재탄생시킨 성공 사례로, 서울의 유사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Industry City는 다양한 산업과 창의적 기업이 공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포용성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보고서는 Industry City 모델을 서울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Industry City의 추진 배경, 경과, 현황을 살펴본 후, 서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디자인 정책 및 사업 계획,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방안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특정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세계 첫 번째 공식 '세계디자인수도(WDC)'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UNESCO Creative City of Design, Seoul)에 동시에 선정되며 이미 기술과 창의적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ndustry City와 같은 혁신적인 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가 서울의 도시 재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더스트리 시티 빌딩 5 © 김효중

2 추진 배경

1.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

브루클린의 선셋 파크 지역은 한때 제조업과 산업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산업 쇠퇴와 함께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많은 공장과 창고가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창의적 산업의 발전이 이러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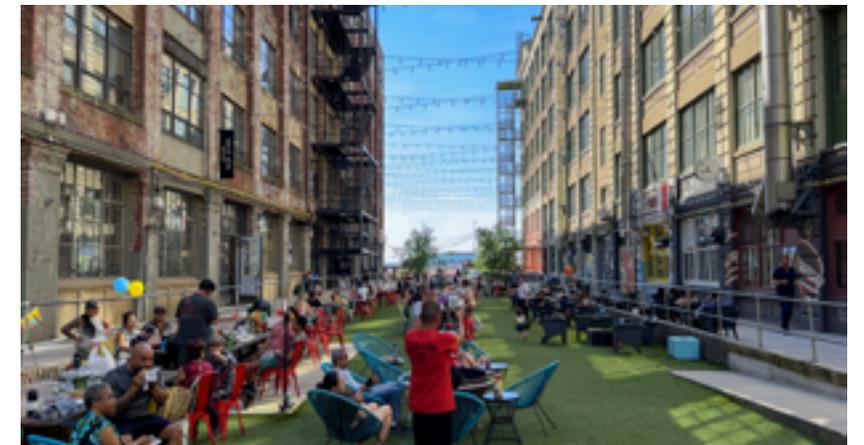


1910년 인더스트리 시티의 모습. ©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2. 창의적 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

브루클린은 이미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창의적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ndustry City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의적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시는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브루클린 역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Industry City는 기술 기업들이 입주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더스트리 시티 건물사이의 작은 공원 © 김효중

3. 지역 사회 및 경제적 포용성 강화

지역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혜택이 지역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Industry City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포용적 경제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지역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부착된 이달의 이벤트 포스터 © 김효중

4.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목표

Industry City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건축 설계와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녹지와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Industry City의 추진 배경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창의적 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 포착, 지역 사회의 경제적 포용성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네 가지 주요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Industry City는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뉴욕시와 브루클린의 중요한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인더스트리 공원 식물 플래닝 © Terrain <https://www.terrain-nyc.net/index#/industry-city/>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Industry City는 브루클린의 선셋 파크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과거의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창의적 허브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35에이커의 부지에 16개의 건물을 포함하며, 다양한 산업, 상업, 교육,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주요 목표

- a. 복합 용도 개발**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산업과 커뮤니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b. 지역 경제 활성화** 창의적 산업과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c. 사회적 포용성**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혜택이 지역 사회 전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포용적 개발을 추구합니다.
- d. 지속 가능한 개발** 친환경 건축 및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실현합니다.

2. 디자인 정책

- a. 기존 산업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유연한 공간 배치를 통해, 기업과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3. 사업 구성

- a. **상업 및 오피스 공간** 기술, 디자인, 예술 분야의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소매점과 레스토랑이 입주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 b. **제조 및 작업 공간**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 c.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기술 및 창의적 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4. 기대 효과

- a. **경제적 효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티스트들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합니다.
- b. **사회적 효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킵니다.
- c. **환경적 효과** 녹지와 공공 공간을 확충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Industry City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통해 Industry City는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1. 추진 경과

- a. **초기 단계**
 - i 2013년: 부동산 개발 회사인 Jamestown, Belvedere Capital, 그리고 Angelo Gordon이 공동으로 Industry City를 인수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산업용 창고 및 제조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상당 부분이 비어 있거나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 ii 2014년: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35에이커의 부지를 혁신적인 복합 용도의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창의적인 산업, 소매, 사무실, 제조, 그리고 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Crane's의 인더스트리 시티 초기 렌더링 © Crane's
<https://www.crainsnewyork.com/article/20150310/BLOGS04/150309853/brooklyn-mega-project-will-be-major-test-for-de-blasio>

b. 중기 단계

- i 2017년: Industry City는 뉴욕 시의회에 공식 재개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ii 2019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사회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계획은 지역 사회와 정치인들로부터 혼합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부는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다른 일부는 급격한 지역 변화와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2. 현황

- a. 2020년 이후**
- i 2020년: 2020년 9월에는 인더스트리 시티의 지역재조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지역발전과 더불어 세금인상과 렌트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 의해 맨해튼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지역 사회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수정된 재개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시의회는 최종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 측은 계획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ii 현재: Industry City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서 여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에는 제조업, 예술, 기술, 그리고 교육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다양한 문화 및 예술 행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시티 지역재조정 반대 시위 © Jorge Muniz-Reyes
<https://www.brooklynpaper.com/protesters-rally-industry-city-hearing/>



인더스트리시티 이미지 © Susan De Vries
<https://www.brownstoner.com/brooklyn-life/brooklyn-chamber-of-commerce-international-partnership-tech-industry-city/>

3.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 a. 일자리 창출** Industry City는 약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b.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매 및 음식점, 문화 공간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c. 커뮤니티와의 협력** Industry City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dustry City 프로젝트는 초기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에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1. 파급력

- a. 경제적 파급력**
 - i 일자리 창출: Industry City의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약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ii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지원: 다양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이 Industry City에 입주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 iii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 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b. 사회적 파급력**
 - i 지역 커뮤니티 강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ii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Industry City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 추가 성과

a. 혁신 및 창의성 촉진

- i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 Industry City는 기술, 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드는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의 창의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ii 협업 촉진: 입주 기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 환경 및 지속 가능성

- i 친환경 건축: 빌딩 중간에 있는 작은 공원에는 재활용된 골재 포장, EPP 인증을 받은 지역 목재, 그리고 100% 재활용된 인공 잔디 등 지속 가능한 자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자료: Terrain <https://www.terrain-nyc.net/industry-city>)
- ii 친환경 브랜드 서포트: 지속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는 패키지,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스타트업 기업들을 서포트하고, 홍보합니다.



인더스트리시티에 스튜디오를 둔 친환경 패션 브랜드 Santos ©Industry City
<https://industrycity.com/sustainable-fashion-takes-shape-at-industry-city/>

- iii 녹색 공간 조성: 개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를 포함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iv 2014년 Industry City Management Office 는 U.S Green Building Council 로부터 LEED 실버 상업 인테리어 인증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U.S Green Building Council <https://www.usgbc.org/projects/industry-city-management-office>)

3. 추가 성과

a. 장기적 경제 성장

- i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Industry City의 지속적인 확장과 운영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 ii 관광 및 상업 활성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소매업의 활성화로 인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이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b. 지역 사회 발전

- i 교육 기회 확대: Industry City는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 ii 사회적 포용성 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Industry City는 초기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에서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큰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교훈과 모델이 될 것입니다.

A Current Affair: Pop Up Vintage Marketplace

1년에 3번 열리는 A Current Affair: Pop Up Vintage Marketplace 가 Industry City에서 열려 직접 방문하고 주최자인 Arcade 사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뉴욕 브루클린과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에서 번갈아 열리며, 전미에서 200개 이상의 빈티지 셀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리포터: 저는 이 이벤트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이벤트는 매년 열리나요?
관계자: 맞아요. 보통 일년에 LA와 브루클린에서 2-3번씩 열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에 열리는 첫번째 쇼이고, 3번째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쇼입니다.
- 리포터: 그럼 동부에서 했던 이벤트는 항상 이곳에서 했나요?
관계자: 네, 항상 인더스트리 시티에서 했어요.
- 리포터: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관계자: 베뉴가 가진 인더스트리얼한 느낌 때문인것 같아요.
- 리포터: 공간이 정말 크고, 햇볕도 좋아서 빈티지 쇼 이벤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관계자: 정확해요. 우리의 바이브와 딱 맞아요.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도 동시에 많이 열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궁금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교통도 좋고요.
- 리포터: 저는 인더스트리 방문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렇게 큰 베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관계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워낙 크다보니 그럴 수 있어요. LA 빈지티 쇼는 The Raw 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여기랑 비슷한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열 배는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냥 한 스트리트 정도이죠. 그래서 광대한 스케일의 이 공간이 the Raw랑 비교되어 재밌어요.

리포터: 첼시마켓 같은 이 곳과 비슷한 다른 베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계자: 첼시마켓에 있는 Artists & Fleas 라는 곳과 비교해 보자면, 이 곳이 좀 더 큐레이팅된 느낌이에요. 벤더들을 모을 때 많은 신경을 쓰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옷과 주얼리에 확실히 더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리포터: 내년에도 쇼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관계자: 네, 원래 봄, 가을에 여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름 쇼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 쇼를 진행할 것을 확신해요.

리포터: 인터뷰 감사합니다

관계자: 별 말씀을요!

이 베뉴에서는 이번 마켓플레이스 뿐만 아니라 빈지티 자동차쇼, 패션쇼, 아트페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주최되며 브루클린 지역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몰려오는 인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로 활약중입니다.



A Current Affair: Pop Up Vintage Marketplace ©김효중



A Current Affair: Pop Up Vintage Marketplace 주최측 Arcade ©김효중

5 접근성

브루클린 Industry City는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1. 접근성

a. 교통편

- i 지하철: Industry City는 뉴욕 지하철 D, N, R 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th Street 역이 가장 가까운 역으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ii 버스: B35, B37, B70 등의 여러 버스 노선이 Industry City를 경유하며,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 iii 자동차: Industry City는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BQE) 및 Gowanus 고속도로와 가까워 차량으로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인더스트리 시티 바로 앞 다리 밑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v 자전거: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도 용이하며,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거치대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 편의성

a. 편의시설

- i 식음료: Industry City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바 등이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ii 쇼핑: 다양한 상점과 부티크가 위치해 있어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 iii 문화 및 예술: 여러 갤러리와 예술 공간이 있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회가 열립니다.
- iv 공공시설: 공원 및 야외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b. 서비스

- i 안내센터: Industry City 내에는 방문객을 위한 안내센터가 위치해 있어 정보 제공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i 보안: Industry City에는 곳곳을 순찰하는 순회 보안팀원들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센터는 33번가와 34번가 사이 빌딩 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iii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업무나 개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Industry City는 다양한 교통편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서울은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은 여전히 개발이 필요하며,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브루클린의 Industry City 프로젝트는 서울의 비슷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1. 디자인 정책 및 사업 계획

a. 복합 용도 개발 기존의 제조업, 창의적 산업,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소매업을 결합한 복합 공간을 개발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친환경 건축 및 운영 에너지 효율성: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와 운영 방식을 도입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장려합니다. 개발 지역 내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c. 공공 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술가, 디자이너, 창업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경제 활성화 전략

a.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인큐베이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b. 소상공인과 신생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c. 입주 기업들 간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a.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개발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4. 친환경 건축

a. 에너지 절약 설계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축 설계를 도입합니다. 태양광, 지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b. 도시 녹지화 뉴욕시는 “PlaNYC”라는 종합적인 지속 가능성 계획을 통해 녹지화, 에너지 효율성,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관리 및 Urban Heat Island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Green Infrastructure Pla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빗물 관리 시스템 개선, 녹지 공간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시 또한 개발 지역 내 공원, 정원,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서울은 혁신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글로벌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Industry City 프로젝트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Industry City 모델의 서울 적용 방안은 단순히 경제적 활성화를 넘어,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 지역을 창의적 허브로 재탄생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서울이 글로벌 창의적 도시로 더욱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을 실현할 때, 서울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Industry City 모델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가 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유튜브 영상

국가	중국
도시	광둥성 동관(广东省 东莞)
분류	도시재생 프로젝트

광둥 샤오전 (广东33小镇·Guangdong 33town)

세계의 공장에서 광둥 문화예술의 등지로

조서영

문화잡지 리포터, 광고 디자이너, 문화상품 디자이너,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행정가를 거쳐 현재는 콘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Made in China'의 나라 중국의 'China Made'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는 중.
hoochoois@naver.com

새장을 비우고 새를 바꾼다(腾笼换鸟)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노후 산업을 대체하고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확충 중인 Made in CHINA의 도시 동관. 세계의 공장에서 광둥 문화예술의 등지가 되기 위해 진화 중인 동관을 만나보세요.

CHINA, DONGGUAN

1 들어가며



중국의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 구글맵+조서영



동관 시내 전경—동관 홍보영상 캡처 © 星球研究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만큼 성장했지만 '신흥 대국'부터 '중국이 중국했다'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각양각색이다. 누군가에게는 아시아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누군가에게는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의문의 국가, 또 누군가에게는 대륙의 실수 사오미의 나라.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국과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필자는 신입 디자이너 시절의 첫 해외 출장지가 중국이었고, 이후로도 종종 출장과 여행을 다녔던 인연으로 중국에 대한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OEM 생산', '짝퉁' 등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 중국을 디자인 측면에서 궁금해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사례 조사는 응당 유럽이나 미국, 일본부터였으니까.

거대한 영토와 역사, 인구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진화 중인 나라임을 인정하면 서도 중국에 거주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메이드'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018~2022년 iF나 RED DOT 등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실적이나 산업 디자인 출원 등록 수 등의 세계 1위가 중국이라는 점은 솔직히 의외였다.

필자는 전년도 서울디자인리포터 활동을 통해 중국의 1선 도시 중 하나인 선전(심천·深圳·Shenzhen)에 대한 리포트를 진행한 바 있다. 홍콩과 맞닿은 지리적 특성으로 1970년대 이후 중국 개혁개방의 중심 도시였던 선전은 2008년에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에 가입한 초창기 멤버이자, 중국 최초의 디자인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UCCN 가입이 2010년인 서울과 상하이보다 빠른 행보, 영국 V&A와 적극 협력하는 '해상 세계문화예술센터-디자인 소사이어티' 등을 리포팅하며 디자인에 대한 선전의 태도를 짐작해볼 수 있었다.

올해는 선전과 초인접한 新 1선 도시 '동관(东莞·Dongguan)'을 주제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도시매력 순위로 광둥성의 성도(省都)인 광저우(광주·广州·Guangzhou)를 앞질러 중국 내 3위 도시가 된 선전에 비하면 동관은 2선 도시에서 新 1선 도시로 갓 부상한, 중국 내 15위 정도의 도시이다. 객관적인 지표 차이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디자인 관련해서도 체급 차이가 있어¹, 이번 리포트는 동관의 도시 발전 과정 속에서 디자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 아울러 동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인 '광둥 33사오전(广东33小镇 Guangdong 33town)'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1 선전은 중국 정부가 대륙의 디자인 허브로 키우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도시로 중국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간 생산액, 인재 및 기업 규모, 디자인 업체수 등에서 중국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문화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디자인'을 선택하여 2008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중국의 첫 번째 디자인 도시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추진배경

2 광둥성의 인구는 1억 명 이상으로 17년 연속 인구 1위, 6년 연속 출생률 1위인 성(省)이다. 중국 최초로 GDP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모두 제친 중국 최초의 성이기도. 중국의 양대 경제권 중 하나인 주강(珠江) 삼각주가 광둥성에 있고, 면적(179,800km²) 또한 대한민국(100,410km²)보다 약 1.7배 정도 넓다

3 동관 후먼(虎门) 포구에서 아편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 아편 배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4 중국은 행정구역을 성(省)급, 부성(副省)급, 지(地)급, 부지(副地)급, 현(县)급, 향(乡)급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중 현급 이상의 도시를 시(市)로 구분한다.

5 참고 : 동관시 홍보 영상 <东莞, 早已不是你以为的东莞> <http://baike.baidu.com/l/eLJLXz37>

6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는 광둥(粵)·홍콩(港)·마카오(澳) 광역도시권을 의미하며, 정확히는 주강(珠江) 삼각주에 위치한 광둥성의 9개 주요 도시(광저우, 선전, 동관, 후이저우, 포산, 장먼, 중산, 주하이, 자오칭)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구성된 도시 클러스터이다. 장강(長江) 삼각주와 함께 중국의 양대 경제권 중 하나인 주강 삼각주의 규모가 확대된 개념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경제권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세계 3대 베이(bay)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저우와 선전 사이에 위치한 동관 © 구글맵+조서영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속 동관 © 구글맵+조서영

중국 대륙의 남쪽, 중국 제일의 부자 성(省)이라는 광둥성²에 위치한 두 개의 1선 도시 광저우와 선전. 동관(东莞)은 북서쪽으로는 광저우, 남쪽으로는 선전과 접해있는 新 1선 도시이다. 지명 역시 광저우의 동쪽(东)에 있는 왕골풀(莞)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의미. 행정적으로 광저우의 일부이던 시절도 있었고, 왕골로 만든 특산물 정도로 유명한 작은 농촌마을이었는데 서쪽으로 주강(珠江), 남쪽으로 바다와 접하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서양과의 중요한 무역로 역할³을 하며 무역업이 성행했다. 물론 지금도 광둥의 중요 교통 중심지이자 대외 무역항이다.

남사벽 도시인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와 붙어 있어서 존재감은 다소 약한 편이지만, 현재의 동관은 '세계의 공장(世界工厂)'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1978년 홍콩 회사의 핸드백 생산을 계기로 1985년에 현급시(县级市), 1988년에는 지급시(地级市)⁴로 승격될 정도로 신흥 공업도시로 급성장했다.

현재 전세계 스마트폰의 약 1/4, 컴퓨터 메인보드의 3/4, 울 스웨터의 1/5, 운동화의 1/10, 디자인토이의 1/4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 화웨이(华为·Huawei)의 R&D센터가 동관 송산후(송산호·松山湖·Songshanhu)에, oppo와 vivo의 본사가 동관 장안에, 코카콜라, 필립스, 삼성, 캐논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기타 수많은 외국 기업의 제조공장이 동관에 자리잡고 있다⁵. 크고 작은 제조공장들이 4만 여개나 있는 덕분에 인구 천만 대열에 오르고 억단위 GDP를 달성하는데 불과 40년 남짓 걸렸다고 한다.

발전가능성과 도시매력도를 인정받아 2017년부터 2선 도시에서 新 1선 도시 그룹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속적으로 성장중에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광둥성의 9개 도시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9+2 형태로 추진중인 국가급 개발사업 '웨강아오다완취(GBA, 粤港澳大湾区·the Greater Bay Area)⁶에 포함되어, 새로운 경제성장 발전축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관의 면적은 약 2,460km²로 중국의 지급시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하고 新 1선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작는데, 그래도 서울 면적(605.21km²)의 약 4배나 된다. 12,000개의 찻집, 2,000개의 카페, 1,000개의 도시공원, 40,000개의 편의점이 있는 평균 연령 약 33세의 가장 젊은 도시이자 외지 인력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5성급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이 많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버거킹, 피자헛 등 '미국' 브랜드가 의외로 흔하디 흔하고, 루이싱커피(瑞幸咖啡·Luckin Coffee), 시차(회사·喜茶·HeyTea), Mstand 등 자국 체인도 넘쳐난다.



동관의 브랜드—동관 홍보영상 캡처 © 星球研究所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동관은 4개의 취(區)와 28개의 전(鎮) 등 총 32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관청(莞城)/동청(東城)/난청(南城)/완장(萬江)이라는 4개의 취(區)를 통상 '시내'라고 부르는데 시청 등의 관공서가 모여있는 중심지이자,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동관의 시내, 동청의 변화한 상권 상허청(星河城)의 맞은 편에는 기계 부품이 뒤섞여 붙어있는 녹슨 듯한 사인물과 다양한 스타일의 이색 건물들이 즐지어 서 있다. 동관 시 동청구 동성로 33호, 옛 우시강(烏石崗) 공업단지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동관 문화창의 산업단지(東莞文化創意產業園)인 광동 33샤오전(廣東33小鎮 Guangdong 33 town)이다.

33번지 작은 마을, 33샤오전의 초입에는 동관의 32개 지역명이 모두 표시된 사인월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각자 본인의 동네 이름 혹은 아는 동네 이름을 찾고 반갑게 인증샷을 찍느라 바쁜, 일종의 포토존이다.

광동 33샤오전의 33은 주소지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관의 32개 행정구역 '+1'의 상징성을 함께 갖는다. +1은 전통적인 행정구역 외로 급부상한 송산후 테크노파크 지역을 의미하기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를 뜻하기도 한다. 동관+미래, 동관+나, 나+성장 처럼 확장성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베이징의 798 예술구, 상하이의 신천지(新天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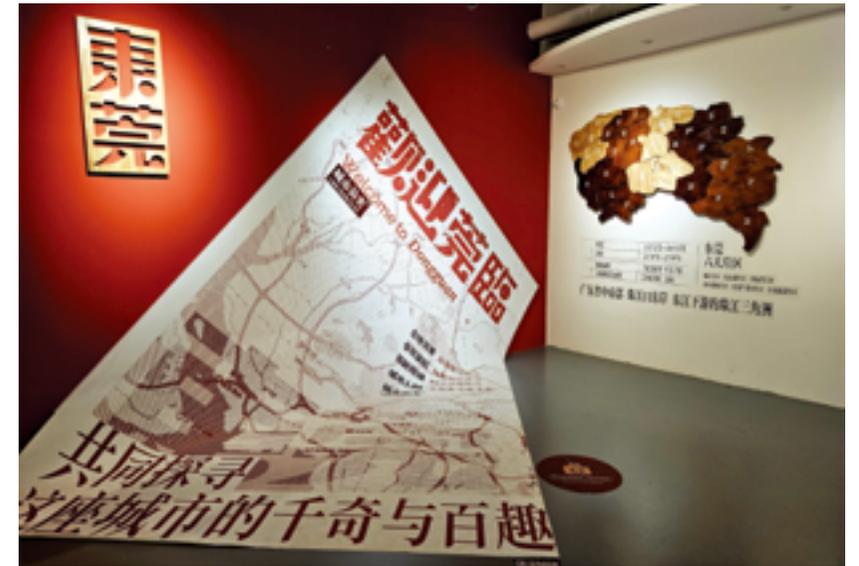
33小鎮 시그니처 사인물 © 조서영



동관 지명 사인월 © 조서영



33샤오전 로고 © 바이두



화난미술관 1층-동관의 역사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 © 조서영

럼 특색있는 스토리를 담은 랜드마크이자 웨강아오다완취(粵港澳大灣區) 지역에서 가장 친근한 문화창의 산업단지를 목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동관'이나 '동청'이 아닌 '광동'의 작은마을, 광동 33샤오전이다. 물론 동관 33샤오전, 동청 33샤오전 등으로도 불린다.

동관이 '세계의 공장'이지만, 동관에 있는 다양한 제조공장 중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곳들은 문을 닫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다. 제조업은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다 위험성이 높고 인력 관리가 복잡해서 오너 일가의 2세대 중 가업 물려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우시강(烏石崗)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일부가 문을 닫고, 일부는 생산라인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대규모 문화창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자연스레 이곳은 우시강 공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관의 역사까지 담는 공간으로 촘촘히 기획되었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100여 년 전부터 공장지역이었다가 1990년대에는 노키아/소니 등 글로벌 브랜드의 중요 부품 공장이 위치해 있었던 동관 동청의 '우시강 공업단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로 몰락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창조 산업단지로 탈바꿈되었다. 우시강 '공업'단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예술' 마을로 변모하는 것은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 비구위엔(碧桂园 碧桂园)이 전체 부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우시강 공업단지 시절의 위성사진과 조성 초기의 33小镇 © 바이두



공장 시절의 벽들을 그대로 유지한 리모델링 © 조서영



33小镇 로고와 미상으로 연출된 건물 외벽 © 조서영

일만 평방 미터가 넘는 공장 건물과 기숙사 건물들은 아파트, 사무실, 상업 공간으로 개조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새장을 비우고 새를 바꾼다(腾笼换鸟)'를 실천에 옮긴 것. 공장의 구리 대문, 공판, 낙서, 재봉틀 등 의미있는 흔적들은 새로운 공간에도 적용되었다.

33샤오전은 크게 문화창의 구역, 레저체험 구역, 메이커 비즈니스 구역 등 3개 존으로 구분된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하여 미술관, 부띠끄 호텔, 서점, 신진작가와 문화창의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단지 등이 어우러져 있다. 최근에는 키즈카페나 놀이 체험존까지 추가되어 젊은층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방문객까지 아우를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더 나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낫다'는 모토 아래 <창의+예술>을 위해 여전히 진화중이다. 거리 음악회나 프리마켓, 각종 이벤트 행사까지, 주말이면 붐비고 시끌벅적한 것이 33번지 작은 마을의 흔한 모습이다.

포토존으로 가장 인기있는 곳 중 하나인 HEA거리. 우시강 공업단지 시절 공장과 공장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던 길을 재탄생했다. 정류장 컨셉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이동해야 하는 동선과 목적지를 스토리텔링한 것이 특징.



33小镇의 HEA거리 외부 © 조서영



33小镇의 HEA거리 내부 사인물 © 조서영

화난미술관(华南美术馆) 1층에는 동관의 역사를 소개하는 상설전시실이 있다. 이외에 프랑스, 핀란드 등의 해외작가나 신진작가의 특별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미술관 앞뜰에서는 아트페어나 이벤트가, 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한 스타인웨이 피아노 매장에서는 음악회가 주기적으로 펼쳐진다. 사람들은 약속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화난미술관 1층 상설전시실에서 동관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사진을 찍거나 일행을 기다리곤 한다.



화난미술관 전경과 내부 상설 전시 © 조서영

북카페를 방불할 듯 방대한 책 인테리어로 유명한 부띠끄 호텔 추찌엔쑹위지우디엔(初见行旅酒店)은 주기적으로 외벽을 단장하는데, 이번 리뉴얼은 고양이 컨셉이다. 호텔 뿐만 아니라 33사우전 내 곳곳에 고양이 컨셉의 cats street이 통일성있게 운영되고 있었다.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에도 선명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다.

리모델링해서 최근 개장한 C구역에서는 중소규모의 아트 갤러리와 고급 식당가, 카페들이 포진해있다. 젊은 아티스트들의 행사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유오피스도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좋은 선택. 오피스와 연결되는 2층과 3층에는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식당과 카페가 많아 편리하게 이용된다. 공유오피스에 입주중인 첸니(倩仪)씨는 “다른 혜택도 감사한 일이지만, 공유오피스가 핫플레이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외벽을 단장하는 호텔 © 조서영



리뉴얼 후 재개장한 C zone 메인 홀 © 조서영



33小镇 공유오피스 입구 © 조서영



노동절 연휴와 단오절 연휴의 33-LAB 야외파티 © 33사오전 小红书 공식계정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2022년 말 기준, 33사오전의 누적 이용객은 200만 명이 넘었다. 예기치않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시기도 있었지만, 웨강아오다완취(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광역권)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순차적인 변모를 꾀해왔던 것.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2022년 9월에 런칭한 Z세대 브랜드 33-LAB이다. 16~35세 청년인구층이 두터운 동관⁷은 Z세대와 함께 street culture&open space 컨셉을 기획하여 Z세대를 위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애완동물, e스포츠, 비보이, 스케이트보드 대회, 랩, 길거리 농구, K팝 댄스 등 각종 이벤트가 수시로 개최된다. 공업단지가 떠난 자리에, 코로나를 무사히 견뎌낸 뒤에, 젊음의 활력이 채워졌다.

이것은 동관 내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가 되어, 유사한 후속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지는 모두 동관의 4개 취(區), 즉 동관 시내라는 공통점이 있고, 기존 오래된 건물들(공장, 사무실, 기숙사 등)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활용하면서 공간이 가진 스토리에 다양한 콘텐츠와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내의 공장들은 폐업하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

제2의 33사오전이라고 불리는 짜옌위저우원창위엔(鯁魚洲文創園)은 수산물 관련 공장들이 있었던 지역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전시관, 식당·카페, 예술인 스튜디오, 창업지원센터 등 삭막한 벽돌 건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 강을 끼고 있는 특징을 살려 수변공원까지 함께 단장되어 있다. 공장 시절의 건물 구조가 드러나도록 보존해둔 오래된 폐건물과 벽돌 굴뚝도 특징. 이미 중국의 인스타격인 샤오홍슈(小红书) 앱에서는 33사오전에 이어 뉴 핫플로 인정받는 분위기지만, 33사오전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가고싶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하드웨어는 매우 중요하지만, 또다시 가고싶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된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옛 맥주 양조장을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베를린의 '쿨투어 브라우어리(Kultur Brauerei)'처럼 낡은 공간의 재창조와 동관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를 기대해본다.

7 인구 1000만 명의 도시 동관은 전체 인구인 42.13%가 16~35세일 정도로 청년층이 두텁다.

프로젝트명	위치	조성 규모	개발/운영사	비고	
东莞记忆	관청(莞城)	약 70억 위안	260,000m ²	万科	2024년 말
鯁魚洲文創園	완장(万江)	-	95,234m ²	(国企)东实集团	2020년 말
广东33小镇	동청(东城)	약 3억 위안	170,000m ²	碧桂园	2018년
769文創園	난청(南城)	-	54,000m ²	万科	신발 공장
工农8号创意园	관청(莞城)	-	22,000m ²	广东中天集团	농자재 창고



33小镇의 영향을 받은 鯁魚洲文創園 © 조서영

5 접근성

33사오전은 동관의 시내인 동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뛰어난 편. 방문객은 남녀노소, 친구, 연인, 가족 등 모두 다양하다. 맞은편에 있는 싱허청 아파트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문화 행사가 많이 열린다. 이용료는 무료이지만 인근 상권의 물가는 싸지 않은 편. 미술관·박물관, 식당·카페, 공유오피스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기분좋은 추억을 얻어갈 수 있도록 골목 곳곳에 발견하는 즐거움이 숨어 있다. 동관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덤. 인근에 유치원이 있어 서인지 횡단보도에도 깜찍한 배려가 돋보인다.



어린 딸에게 동관시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엄마 © 조서영



33小镇 인근 유치원 앞 횡단보도 © 조서영

6 서울 적용 방안

폐공장이나 폐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딱히 새로운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오래된 목욕탕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시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목욕, 행화탕' 프로젝트를 시도한 바 있었고,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공장지대였던 성수동과 신도림-문래동은 이미 MZ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영등포의 대선제분 공장 부지도 '밀가루 대신 문화를 생산하고 사람이 모이는 문화공장'으로 탈바꿈시키는 18,963㎡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착수했다. 이

7 마무리하며

미 20여 년 전에 정수 처리장을 공원화한 선유도공원부터, 청계천 복원과 세운상가까지, 서울은 우수한 도시 재생 사례와 노하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듯이 조성 완료 이후의 단계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한다. 재방문과 단골에 대한 기획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33사오전의 사례에서, 물론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주된 운영에서 출발했던 거였지만, 초기 기획만큼이나 중요한 후속 기획과 운영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디자인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33사오전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유희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해당 상권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주 도시 동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자부심과 발전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이후 유사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낙후된 인근 지역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이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 의도치 않은 효과가 덩으로 따라오게 된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던 지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장을 비우고 새를 바꾼다(腾笼换鸟)'라는 표현을 알게 되었을 때이다. '설비 기술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파시켜서 원래 있던 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다'라는 의미인데, 지역 해석을 곱씹어 볼수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전년에 중국 선전에 대한 리포팅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이 깨진 바 있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1선 도시란 어떤 것일지 막연히 궁금했었는데, 기존에 생각하던 '중국'의 이미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은 1선 도시 그룹에 속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보다도 오히려 훨씬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新 1선 도시인 동관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아마 중국 대부분의 도시가 가진 숙제가겠지만, 동관은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출근 급성장 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시 내에 편차가 존재한다. 88층짜리 International Trade Center 건물이 무심히 서 있는가 하면, 평당 분양가가 서울 집값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어떤 골목에 들어서면 수십 년이 흐른 필자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허름한 동네가 나와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생각보다 괜찮지만 디테일이 아쉬운 순간도 많고, 서울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것도 많다. 어떤 것은 놀랄 만큼 저렴하고, 어떤 것은 의아하게 비싸다. 어떤 것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신기할 정도로 최첨단이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Made in CHINA의 도시도 세계적인 화두인 도시 재생에 열심이라는 것, 관심을 갖고 보니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세계 순위도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하지만 발전 의지가 몹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끊임없이 새장을 비우고 새를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독수리나 파랑새를 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륙의 실수가 대륙의 실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 우리가 디자인 사례 조사를 통상 유럽,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PUBLIC ART PROJECT

공공예술 프로젝트

: 도시 위 예술을 디자인하다

CHRISTCHURCH

108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 대지진 이후 도심지 재건사업
도시재건을 위한 낙서방지와 예술벽화를 통한 도시갤러리

LUND, MALMO

124

스웨덴, 말뫼-룬드 | 말뫼 와 룬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말뫼 Southern Sweden Design Days와 룬드 예술의 전당(Konsthall)에서
진행되는 연도별 공공예술 프로젝트



7



유튜브 영상

국가	뉴질랜드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분류	공공예술 프로젝트

대지진 이후 도심지 재건사업

도시재건을 위한 낙서방지와 예술벽화를 통한 도시갤러리

박춘석

한국에서의 마지막 근무지는 포항시청 “나”급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테라노바팀에서 공공디자이너로 근무 후 2015년 뉴질랜드로 이민하여 몇 년전까지 건강식품전문 기업에서 패키지 및 광고 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현재 상업사진 및 부동산 전문 사진작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parkchoonseog@gmail.com

어둡고,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공간에는 세계 어디를 가든 무분별하게 낙서된 그래피티를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낙서가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빈 공터나 허물어진 벽면, 빈집 등 점점 우범화되어 가는 공간에 시에서는 이러한 낙서를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우범화되지 않고 관리된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그래피티 작가들이 합법적이고 예술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하지 않게 예술적인 거리 아트 갤러리로 변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NEW ZEALAND, CHRISTCHURCH

1 들어가며

크라이스트처치는 일본 동인도 지진과 함께 2010년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도시이다. 작년도 해외 리포터 활동으로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 이후 복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적 있다. 올해는 이와 같은 복원 사업의 연장으로, 지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한 낙서들로 인한 우범화 및 미관을 해치는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크라이스트처치의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는 젊은 이들의 일탈과 더불어 낙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낙서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와 도시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소개된 영국의 낙서 터널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자유로운 예술을 표현하고 젊은이들의 낙서를 허락한 공간으로, 영국의 유명한 거리 예술가인 뱅크시를 비롯한 작가들의 표현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공간 안에서만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어 도시의 무분별한 낙서를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소개되었다. 어떠한 정책이든 규제만으로는 이러한 낙서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와 함께 표현이 허락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를 좀더 밝은 거리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크라이스트처치의 관공서와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거리 아트 갤러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영국 런던 Leake Street

출처: <https://specifierreview.com/2017/11/17/leake-street-waterloos-ionic-graffiti-tunnel-gets-lit/>



무분별한 그래피티(낙서) 예시

2 추진 배경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이후 현재까지 재건이 진행 중이며, 2032년까지 재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 재건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이다.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나,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목표를 향해 발전하는 모습이 주민으로서 감명 깊게 느껴진다. 앞서 2023년 리포트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크라이스트처치는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여 마련된 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재건을 위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너진 빈 공터에는 새로운 건물과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빈 공터나 그 옆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낙서된 공간에 대해 시의회는 낙서를 제거하고, 이를 거리 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한국과 달리 시청이 아닌 의회로 지방 자치를 운영하며, 시장은 있지만 의회와 함께 지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청사를 시의회라고 부름)는 무분별한 낙서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와 연계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제보와 자발적인 봉사 활동으로 그래피티 낙서를 제거하는데 힘쓰고 있다. 도시의 낙서는 마치 잡초처럼 지워지면 다시 생기는 골칫거리와 같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관의 대처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여겨, 크라이스트처치는 최대한 단기간에 낙서를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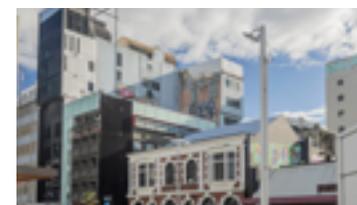
또한,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허락한 공간에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해 거리 아트 갤러리로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품화된 공간에 더 이상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그래피티 철길주변



무분별한 그래피티 지진후 복구예정 건축물 주변



무분별한 그래피티 도심지 건축물 주변

3 크라이스트처치의 그래피티 관리 정책 및 개요

크라이스트처치의 낙서에 대한 방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낙서 제거가 첫 번째 원칙이다. 낙서 제거는 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우범화된 지역이 아닌, 누군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역을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개선하여 도시 미관을 예술적 가치로 증진하고, 도심에 볼거리를 제공하며, 예술 작품화된 공간에서는 더 이상 다른 낙서가 만들어지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청에서 엄격한 규제와 완화된 규제로 이루어져 도시 미관을 위한 낙서를 방지하거나 거리를 개선할 수 있다. 엄격한 규제는 도심지 내에서 무분별한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낙서 제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완화된 규제는 낙서된 공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물 소유주가 원하는 이미지나 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허용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미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 그래피티 낙서를 발견하면 이를 시청으로 제보하여 낙서 제거 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청은 봉사자거나 전문 예술가들을 통해 낙서를 제거하거나, 예술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술가를 연계해 주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느 방향으로든 도시 미관을 살려, 낙서로 우범화되지 않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낙서 방지를 위한 제거

낙서 방지 정책은 낙서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이 앱이나 다양한 경로로 제보를 하면, 시 담당자는 시와 협력 회사(Citycare)를 통해 최대 48시간 내에 낙서된 지역을 조사하고, 제거 조치를 취한다. 이 협력 회사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기존 벽면 색상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벽체를 새로 도색해 낙서를 제거한다. 이는 공공시설, 공공 건물 등 공공장소와 개인 사유지의 낙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개선하고 있다.



낙서제거
출처 :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홈페이지 / <https://ccc.govt.nz/services/graffiti>

크라이스트처치시는 낙서 방지 대책으로 4가지 프로세스를 조언하고 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내 집이나 사유지에 낙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팁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둡고 넓은 벽면이나 펜스는 낙서의 타겟이 되기 쉬우므로, 밝은 색 벽이나 조명을 설치하거나 나무나 꽃을 심어 벽면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벽화를 그려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키는 방법도 제시되며, 이를 통해 작품 위에 낙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낙서가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더 이상 낙서가 생기지 않게 하고, 관리 중인 건물로 인식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낙서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 관계자들은 최대한 빠른 조치를 통해 낙서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공공부지, 도로와 경계된 사유지 벽이나 펜스, 소규모 사업장 전면, 관공서, 공공시설 등의 낙서를 신속하게 제거하며, 계약된 전문기관은 48시간 이내에 낙서를 제거한다. 기타 사유지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시의회에 요청하여 제공된 페인트로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단독주택이 많고 도시 면적이 넓어 시의회가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낙서를 제거하고, 회사나 커뮤니티 단위로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들은 벽화를 제안하거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낙서 제거
출처 :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홈페이지 / <https://ccc.govt.nz/services/graffiti>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들 수 있다. 시 관계자 및 외주 업체가 24시간 순찰로 낙서된 공간을 찾을 수는 없다.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많은 공간의 낙서를 찾아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제보가 큰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제보를 쉽게 하기 위해 스냅센드솔브(Snap Send Solve)라는 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권장한다. 이 앱은 낙서뿐만 아니라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모든 문제나 의견을 제보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보상으로 매달 추첨을 통해 슈퍼마켓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 전화, 이메일 등 여러 방법으로 제보를 수렴하고 있다.



제보관련
출처 :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홈페이지 / <https://ccc.govt.nz/services/graffi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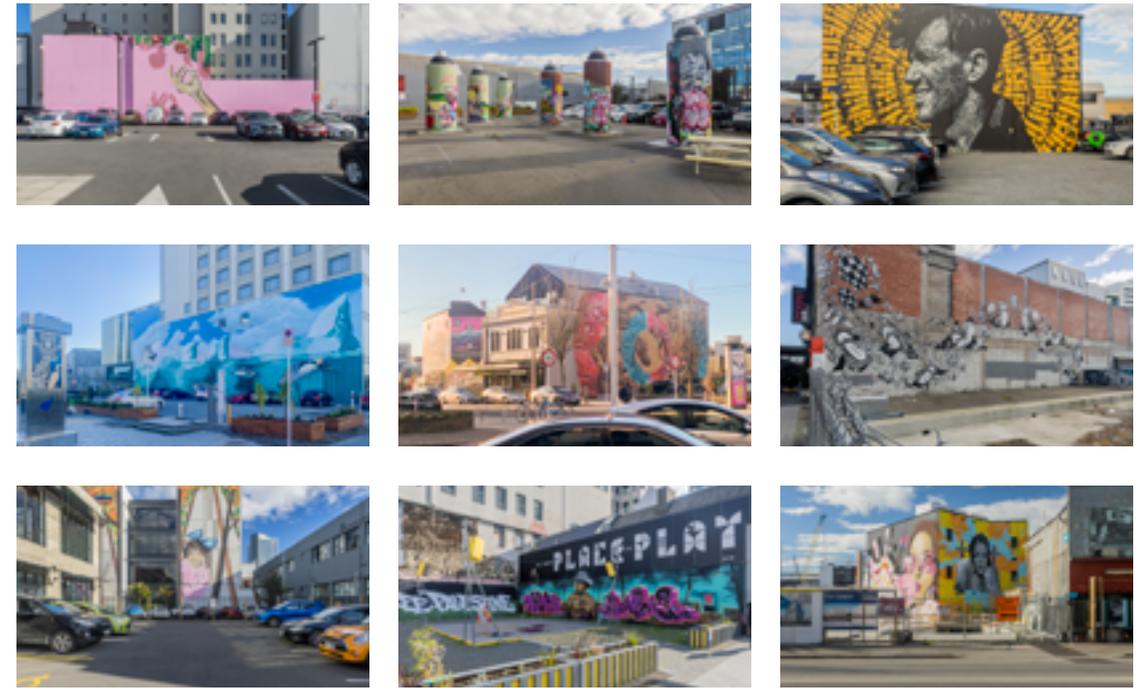
크라이스트처치의 거리 아트 지원과 예술가의 참여

크라이스트처치는 2011년 대지진에 이어 2019년 무슬림 모스크에서 발생한 테러로 많은 아랍인들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크라이스트처치는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예술은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치유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문화적 열망과 전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다.

Ōtautahi Christchurch, 크라이스트처치는 “오타우타히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 예술 활성화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예술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 제1의 예술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미래 창의적인 기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조직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제작자를 지원하며, 도시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국내외 예술가를 유치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이후 몇 년에 걸쳐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다. 시의회가 선정한 공공장소를 국내의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지원을 통해 그들의 작품을 제작하여 도시 전역을 갤러리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Enliven Places Programme)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활기차고 환영받는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임시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여러 기업과의 협업과 기부를 통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 사회가 크라이스트처치를 보다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크한 작품 활동을 도시에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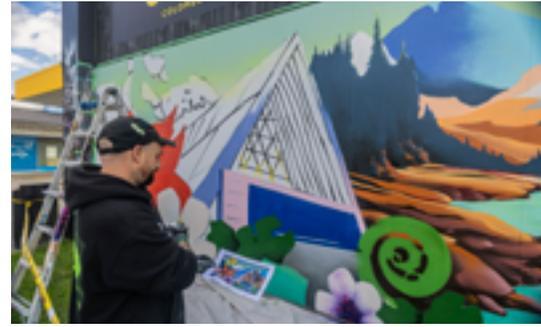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로 인해 수많은 거리 미술 작품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거리 벽화 모음

그 외에 다수의 거리 미술로 사유지 낙서를 벽화로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늘고 있다. 중심 시가지의 업체의 비어있는 벽면은 낙서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낙서를 제거하면 다른 낙서가 그려지고, 반복된 낙서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벽화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벽화는 업체의 광고와 지역 정체성, 예술성을 담아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여, 업체 광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하나의 미술작품을 제공해 준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하여 예술가에게 의뢰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견기업이 주를 이루지만,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의 경우 시의회와 상담 후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한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지원받을 기회를 얻기도 한다.

취재 중 만난 스트리트 아트 아티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스트리트 아트는 도시의 미관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다. 어느 도시든 도시 경관에 관한 조례 혹은 규제를 받게 된다. 도시의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트 작품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심의를 거쳐 제작된다. 크라이스트처치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작품 활동에 대한 규제는 많지 않다. 건물주와 작가의 의견 조율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 작품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로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한다.



스미스 점포 외벽 벽화 / 제이콥키스 작가 작품



락앤롤 아이스크림 가게 벽면 그래피티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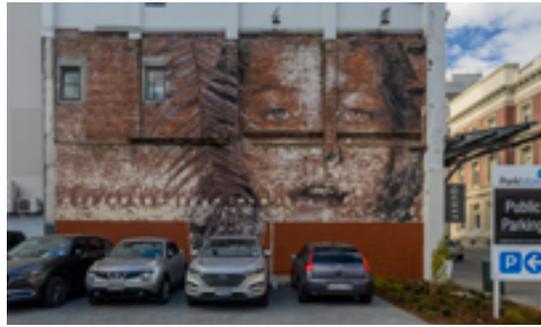
낙서 제거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제보와 낙서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낙서는 많이 제거되고 개선되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위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자료와 같이 몇몇 도심 내 폐건물 혹은 방치된 지역의 낙서 등은 현재 철거 및 재건을 위한 건축물들로서 일반 시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고, 향후 재건 이후 다른 모습으로 개선될 것이다. 낙서 제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및 협력 회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낙서 제거로 인해 도심 주변의 무분별한 낙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아직 인적이 드문 공간이나 지진 피해 지역의 건물들에서는 낙서가 많이 남아 있고 여전히 낙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주 지역 혹은 도심지 내에서는 많은 낙서들이 지워지고 예술 작품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희망적이고 도심 미관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제보자들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깨끗해지는 도심이 크라이스트처치를 찾는 관광객 또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의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다.

벽화를 통한 거리 예술 사업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시는 양방향의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예술 벽화를 원하는 건물주로 하여금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지원과 여러 방면으로 예술 벽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거리 아트 페스티벌과 같은 아트페어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 혹은 뉴질랜드 내 작가들로 하여금 예술 벽화를 도시 곳곳에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낙서 방지와 도시 갤러리의 변모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 “OI YOU! RISE 2014”라는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5년 “스펙트럼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페스티벌이 주춤했다가 2022년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을 시작으로 2023년 “SHIFT: Urban Art Takeover” FLARE의 미니 버전으로 치러졌으며, 2023년 연말부터 “리틀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이 있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2014년 OI YOU! RISE는 Oi You라는 그래피티 거리 예술 단체로 주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와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가 협업하여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시민들의 마음적인 안정을 위해 축제를 개최하였고, 그로 인해 호주 출신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인 소플레스(Sofles)와 데크 윌리엄을 비롯한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로 첫 거리 축제가 개최되었다.



2014 RISE 페스티벌 론 (Rone)벽화 작품



2014 RISE 페스티벌 에스큐원(Askew One)작품



2015 스펙트럼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틸트(Tilt) 벽화 작품



2015 스펙트럼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더우(Deow) 벽화 작품

2015년 스펙트럼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은 두번째 OI YOU!의 개최한 페스티벌로 앞서 개최한 축제와 같이 여러 장소와 전시장에서 개최하였고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8곳에서 새로운 작품을 설치 하였다 몇몇 작품은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으며 아래 사진 자료와 같이 몇몇 작품만 남아있다. 이 축제는 지진으로 인한 희망을 메시지로 도시 예술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22년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은 공식적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첫번째 거리예술 축제로 80명이 넘는 거리 예술가와 그래피티 예술가가 참여했으며, 그중 해외 작가 1명, 국내작가 3명과 나머지 지역작가로 구성된 7명의 헤드 아티스트가 시내 전역에 걸쳐 7개의 주요 벽화를 그렸고, 전시, 골목길 등지에서 아티스트가 모두 이 축제에 기여했다.



2022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 대표작가들
출처: 플레이 <https://flare.nz/gallery>



2022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 Swift Mantis 작품



2022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 Koryu 작품



2022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 Wongi wilson 작품



2022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 작품모음



2023 FLARE Ōtautahi Street Art Festival Kophie Hulsbosch 작품
두번째 사진 출처 : <https://www.yoitskophie.com/murals>

시의회의 낙서제거 정책으로 신속히 제거되어 깨끗한 거리 미관을 위한 개선 정책과 달리, 예술성 작품으로 개선되는 그래피티 벽화 미술은 작품 구상 및 제작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 또한 시민들의 볼거리로 예술가의 퍼포먼스를 감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크라이스트 처치 곳곳에 설치 되어 있고 이중 거리예술 페스티벌과 같은 공공예술 단체와 시의회의 협업으로 공식 행사와 한 벽화와 여러 기업 혹은 상가의

의뢰로 제작된 공공미술품에 광고가 함께 적용된 벽화도 설치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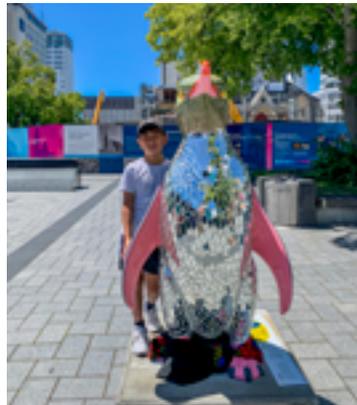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 도시 미관의 개선과 함께 공동화로 인한 우범화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서로 인해 방치된 지역으로 인식된 구역이 관리되어 깨끗한 도시 미관과 함께 예술 작품 감상 및 도심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이는 지역 경제에 한층 도움이 되고 있다. 앞서 예시와 같이 상업 시설의 업장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지역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업소는 별도의 광고 비용 없이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되어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설치된 벽화에는 더 이상 낙서가 덧붙여지지 않으므로 낙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예술성으로 시민들의 불거리를 제공하며 관광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정원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공원과 거리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도시 곳곳의 예술적 가치와 미관에 도움이 되는 벽화로 지진으로 인한 빈 공터의 벽면을 시민들에게 거리 미술관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업성이 가미된 벽화는 거리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상가의 광고 효과와 낙서 방지 효과를 가져오므로 상가로서는 일석이조의 파급 효과를 얻고 있다. 도시 갤러리의 거리 벽화는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코스로 손색이 없으며, 이는 도시의 관광 자원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

거리 예술 벽화와 더불어 기획된 '팝업 펭귄'이라는 거리 예술 프로젝트는 동물의 조형물을 각 단체, 학교, 기관, 상가 등에 지원과 봉사를 통해 설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팝업 펭귄 조형물은 와일드 인 아트라는 기업과 협업하여 제작된 50여 개의 대형 펭귄 조형물을 여러 기관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꾸며 거리 곳곳에 전시하였다. 축제 때마다 다른 동물 조형물을 꾸며 시민 참여와 함께하는 예술 축제를 이끌어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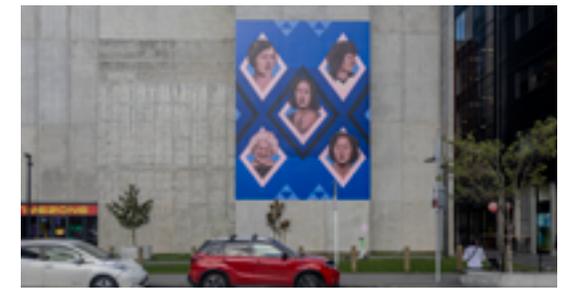
팝업 펭귄 모습

5 접근성

현대의 도시 미술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도심의 공공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제작되고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심의와 특정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작품들은 평범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리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다. 크라이스트처치의 벽화 작품들은 우선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빈 공간에 무분별한 그래피티를 방지하고,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거리 예술 축제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설치된 벽화는 지진 이후 비어 있던 빈 공터의 벽면, 주차장의 벽면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벽면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2030년쯤 도시 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많은 공간에 예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도심을 찾는 시민들은 도심 내에서 하나의 예술 갤러리처럼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대성당 스퀘어 광장내 벽화



신설 주차빌딩 외벽 벽화



리버사이드 마켓 외벽 벽화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청 벽화



크라이스트처치 디스커버리 스킨 앞 상가 외벽 벽화



크라이스트처치 중앙도서관 옆 공원 벽화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그래피티 장소에 대하여 서울시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크라이스트 처치 시와 같이 제거를 위한 전담 부서가 운영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면 좋으나, 인구 규모나 도시의 규모에서 월등히 높은 서울시의 부서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아마도 환경관리 부서에서 제보 혹은 시찰 시 발견된 낙서를 제거하거나 보수하고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는 봉사자들의 도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낙서 제거의 일선에 봉사자들과 협력업체가 나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 서울 시도 다양하고 매력적인 지원으로 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지원하면,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행인 것은 서양권 나라와 달리 무분별한 낙서가 곳곳에 그려져 있지 않아, 거리 미관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 벽화에 대한 서울시의 적용 사례로는 규제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할 듯하다. 일률적인 간판 정비 사업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유해 광고에 대한 규제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을 위해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나 또한 간판 정비 사업과 지자체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에 동참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창의성보다는 일률적인 간판 설치 사업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현재 거리의 간판 혹은 광고물들이 많이 개선되고 창의적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기본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조금의 유연성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일환으로 앞서 보여준 광고성을 가미한 벽화가 있다. 한국에서도 동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벽화를 설치한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률적이고 볼거리가 제한적이어서 오랫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사례와 같이, 서울시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된 거리 아트 축제가 아니라 예술 단체들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동참하고 지원하는 예술 축제로 좀 더 유연성과 창의성을 거리에 부여한다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예술 거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만약 크라이스트처치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참고하고자 한다면, 예로 Wild in Art, Oi You와 같은 국내외 다양한 작가 커뮤니티를 가진 그룹 혹은 단체와 협업하여, 창의적인 작가들의 작품 공간을 도심 곳곳에 분포된 버려진 벽면 등에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 요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낙서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신속히 제거를 하여 더 이상 같은 장소에 낙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벽화를 통하여 낙서가 덧붙여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낙서는 비어있는 공간에 누군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긴 곳에서 성행하게 된다. 그런 공간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벽화를 그리는 큰 이유이다. 개인 사유지의 벽화는 시의회의 예산으로 모두 제작할 수 없다. 특정 개인에게 공공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아트페스티벌과 같은 예술제를 연계하여 벽화 설치를 선정된 공간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신 개인 상가의 개별적인 벽화 제작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낙서를 방지하도록 자발적인 벽화 제작에 전문가 의견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의 많은 예술 벽화들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진 비어있는 공간과 벽면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도심 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tautahi Christchurch라는 비전을 위하여 크라이스트처치는 예술이 도시를 활성화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뉴질랜드 내 최고의 창의적인 도시 정체성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진이라는 대재앙을 맞은 크라이스트처치는 도심 내 대부분의 역사적 가치 있는 건축물과 공간을 잃었다. 그로 인해 도심은 황폐화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 건축물들로 차가운 도심지가 형성되었으나, 예술 벽화는 도심 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처럼 곳곳에 설치되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어제 오후, 아이들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관광 트램을 타고 도심 여행을 했다. 곳곳에 그려진 벽화가 한눈에 들어와 마치 벽화 갤러리 투어와 같았다. 거리 풍경을 즐기고 벽화를 감상하며 달리는 트램 안에서, 크라이스트처치가 예술과 정원이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8



유튜브 영상

국가	스웨덴
도시	말뫼, 룬드
분류	공공예술 프로젝트

말뫼와 룬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말뫼(Southern Sweden Design Days)와 룬드 예술의 전당(Konsthall)에서 진행되는 연도별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주원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 관계 및 비즈니스 관리를 담당하며 경기장 건축 및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정치외교와 경영 전공에 따른 지식을 바탕으로 스웨덴에서의 디자인, 예술 관련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계획, 관리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iguanawon95@gmail.com

스웨덴 남부 스코네 주에 위치한 말뫼는 스웨덴 남부의 가장 큰 도시로, 유럽 대륙과 이어지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뫼의 특징을 바탕으로 디자인 협회인 Form/Design Center가 어떻게 Sweden Design Days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말뫼에 스웨덴 남부 스코네 주뿐만 아니라 스웨덴 전국적으로 저명한 학술 도시 룬드는 평등, 지속 가능성, 미니멀리즘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일상에 스며드는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룬드는 시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 예술 전시를 매년 진행하며, 이 중 몇 가지 전시물을 선정하여 도심에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공공 예술 프로젝트가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과는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WEDEN, LUND, MÄL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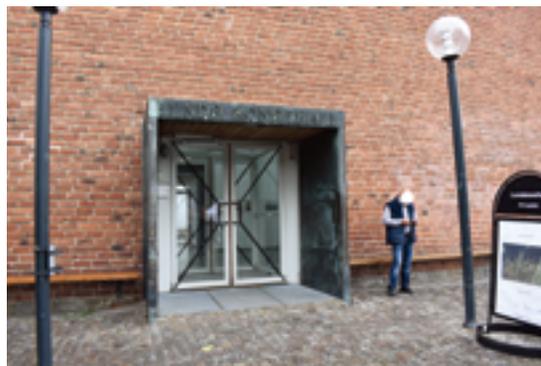
1 들어가며

평등, 지속가능성,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스웨덴의 정신은 디자인과 예술의 표현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부 스웨덴 스코네 주의 가장 큰 국제 도시인 말뫼와 학술 도시로 유명한 스웨덴의 룬드는 각 Form/Design Center 디자인 협회와 시에서 운영하는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공예술 전시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m/Design Center 디자인 협회는 말뫼에서 2021년부터 Southern Sweden Design Days라는 큰 디자인 전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1957년 설립된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스웨덴 사회에 현대 미술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에도 현대 미술의 공공화, 연구, 공공예술의 다양성 보존등을 위해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¹

¹ Lunds Konsthall, Konsthallens Historia, 2024.07.02



Form/Design Center 외경 © Form/Design Center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 외경 © 이주원

² Form Design Center, About us / ABOUT FORM/DESIGN CENTER, 2024.07.04

³ Statens Konstråd, Om Offentlig Konst och Curators Roll, 2024.07.02

2 추진배경

⁴ Form Design Center, THE MEETING PLACE FOR ARCHITECTURE, DESIGN AND CRAFTS, 2024.07.05

⁵ Lunds Konsthall, Om Konsthallen-Inriktning, 2024.07.03

1964년 설립된 말뫼의 Form/Design Center는 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에게 예술의 의미와 상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Form/Design Center는 말뫼시로부터 National node로 선정되어 생동감 있는 예술을 전달하는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현재 정부의 문화체육부, 말뫼시, 스코네주 그리고 스웨덴 예술 의회에 도움을 받으며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Southern Sweden Design Days가 본 보고서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²

스웨덴 정부의 문화 예술 기관인 Statens Konstråd에 의하면 공공의 예산으로 완성되는 공공예술의 경우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³ 또한 스웨덴의 공공예술은 단순 도시 광장에 놓여져있는 한정적이고 컨트롤되어 있는 물질적인 랜드마크를 넘어서 “공공”의 개념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예술을 포함합니다.

해당 방향성에 맞추어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지방 차치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예술품 이외에도 교회, 정부, 대학교, 사기업,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예술의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공공예술을 널리 알리는데에 심혈을 기울여온 룬드 예술의 전당의(Lunds Konsthall) 다양한 프로젝트와 대표적인 랜드마크, 그리고 프로젝트의 계획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소개드리며 스웨덴의 예술에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뫼의 Form/Design Center는 건축, 디자인, 그리고 크래프팅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현대와 미래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모두에게 열린 지식을 창출하고 현시대에 존재하는 사회적 이슈들이 건축, 디자인, 크래프팅 등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전달되고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에 큰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Southern Sweden Design Days 프로젝트이며 작품의 전시 이외에도 세미나, 강의, 그리고 워크샵 등 디자인을 공공에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매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⁴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현대의 공공예술을 공문화하고 시각화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꾸준히 전시, 예술품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만의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주요 프로젝트는 공공예술의 전시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으로 하지만 공공예술의 표현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이를 작품에 투영하여 사회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⁵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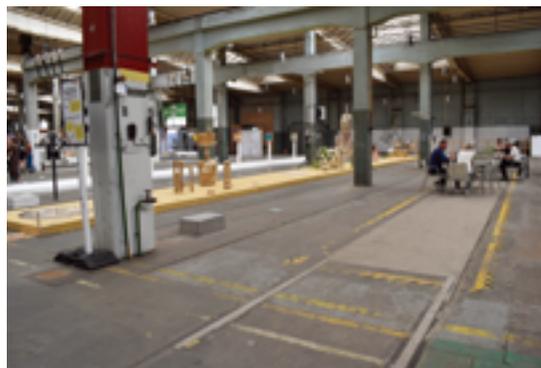
6 Southern Sweden Design Days, About Southern Sweden Design Days, 2024.07.04

Form/Design Center의 Southern Sweden Design Days는 시민 모두에게 창의적인 예술의 경험을 제공하고 디자인의 혁신성, 협동성,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사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숍, 전시, 그리고 네트워크 이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참가하는 예술가의 경우에는 건축, 디자인, 그리고 크래프팅 작업에 활발히 활동중인 개인, 단체, 스튜디오, 생산자 등들이 해당됩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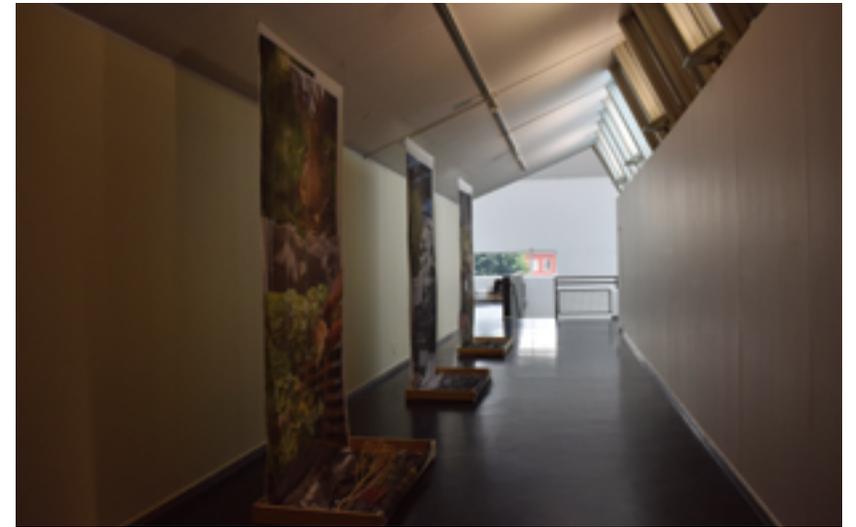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술의 전당의 건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예술품 전시, 두 번째로 공공예술 관리와 설치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예술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된 프로젝트인 전시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매년 세 번의 공공예술 전시를 진행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전시와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전시가 있으며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예술가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으로 전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술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새로운 예술가들의 작품 또한 전시하여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스웨덴 예술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예술가들의 작품 또한 전시하며 전시의 경우에는 예정된 일자로부터 약 1년 전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외부 기관과 해당 예술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 및 작품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⁷

7 Lunds Konsthall, Om Konsthallen-Utställningar, 2024.07.03



Southern Sweden Design Days 2024 중 일부 © 이주원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 전시장 © 이주원

두 번째로 소개된 공공예술의 관리와 설치 프로젝트는 1930년도 부터 지속되었던 스웨덴 공공 예술계의 전통에 따라 진행됩니다. 룬드시는 지방 자치별로 각 도시에 투자되는 건설 혹은 재건축 비용의 일정 부분이 공공예술의 관리와 설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룬드시에서 구입되고 관리되는 공공예술품의 경우에는 룬드 예술(Lunds Konst)이라는 명칭 하에 소속되며 이는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룬드시에 공공예술이 설치되는 장소의 경우에는 도로 관리 기관(Gatukontoret), 건축물 관리 기관(Byggnadsförvaltningen), 그리고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 간의 협의에 의해 전략적으로 결정되며 이후에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 공공예술 큐레이터, 스키써나 박물관—예술 과정과 공공예술(Skisserna Museum—Museum of Artistic Process and Public Art), 그리고 지역 예술 분야 기관(Lokala Konstlivet)에서 선출된 전문가들이 작품을 출전할 예술가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예술가들은 출전 확정 이전에 각 작품의 스케치를 제출



스키써나 박물관—예술 과정과 공공예술(Skisserna Museum—Museum of Artistic Process and Public Art) 외경 © Johan Persson

하게 되며 이후 승인된 예술가들의 작품이 룬드시 내의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게 됩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공공예술의 관리 및 설치 이외에도 룬드시의 공공예술 작품 수집 또한 담당합니다.⁸

마지막으로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담당하고 있는 전시 및 공공예술의 관리와 설치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자료를 대중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술의 대중화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이 룬드시 혹은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을 방문하는 방문자에게 열려있어 공공예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예술이 익숙하지 않은 대중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예술 작품들을 설명하는 표지판 등을 통한 소통, 예술가들을 인터뷰한 영상 자료 혹은 각종 공식 기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⁹

8 Lunds Konsthall, Om Konsthallen- Offentlig Konst, 2024.07.03

9 Lunds Konsthall, Om Konsthallen- Förmedling, 2024.07.03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 전시장 예술작품 표지판 등 © 이주원

4 추진 현황과 결과

10 Southern Sweden Design Days, About Southern Sweden Design Days, 2024.07.04

11 Lunds Konsthall, Utställningar / Tidigare utställningar / 2004, 2024.07.03

12 Lunds Konsthall, Utställningar / 2024, 2024.07.03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매년 진행되는 Southern Sweden Design Days는 2021년 이후 현재 약 4년간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¹⁰ 매년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술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말뫼 도시에 약 70개 이상의 장소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4년의 경우 15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와 270팀 이상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색다른 예술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현황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전시는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시의 연간 전시 횟수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상이하였으며 최근에는 연 간 약 세 번의 전시로 횟수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당 시기에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전시하거나 선정된 예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기준으로 전시됩니다. 초기 년도인 2004년의 경우에는 역기능((dys)function), 법과 창의력((rider): law and creativity), 예술과 지식의 생산(Art and the Production of Knowledge), 의미론적 차이(Semantic Gap) 등의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각 다른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와 관련해서는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홈페이지에 전시의 의미, 참여한 예술가, 전시품 사진 등을 기재해 놓아 모든 대중이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¹¹ 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예술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전시하는 경우와 예술가 팀이 제시한 주제에 따라서 한 팀이 전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예술품의 전시 뿐만 아니라 공공예술, 혹은 현대 미술에 관한 세미나, 논의, 강의 등도 진행됩니다. 또한 고체 전시품으로 한정되는 예술의 전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공예술 (비디오, 시각 혹은 청각적 효과) 또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전시에 참여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도 반영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4년에는 총 네 가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시되고 있는 Agnes Denes-Övningar i ekologik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Åsa Sonjasdotter-Odla överflöd는 작물의 과재배와 재배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¹²

다음으로는 공공예술 관리와 설치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입찰의 형태로 추진되며 예술품 입찰에 관련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모든 입찰 과정은 스웨덴 정부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예술품의 입찰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에는 전문 기관의 컨설팅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로는 공공예술 작품이 설치된 장소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이 과정은 도시 건설 기관(Stadsbyggnadskontoret)과 도시녹지 관리 기관(Parkförvaltningen) 등 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작품의 설치 장소가 정해졌다면 이 다음에는 앞서 소개드린대로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 공공예술 큐레이터, 스키써나 박물관—예술 과정과 공공예술(Skisserna Museum—Museum of Artistic Process and Public Art), 그리고 지역 예술 분야 기관(Lokala Konstlivet)에서 선출된 전문가들이 작품을 출품할 예술가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선발된 예술가들은 출품 확정 이전에 각 작품의 스케치를 제출하게 되며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품의 제작과 과



Agnes Denes-Övningar i ekologik 전시 중 일부 © 이주원



Åsa Sonjasdotter - Odlas överflöd 전시 중 일부 © 이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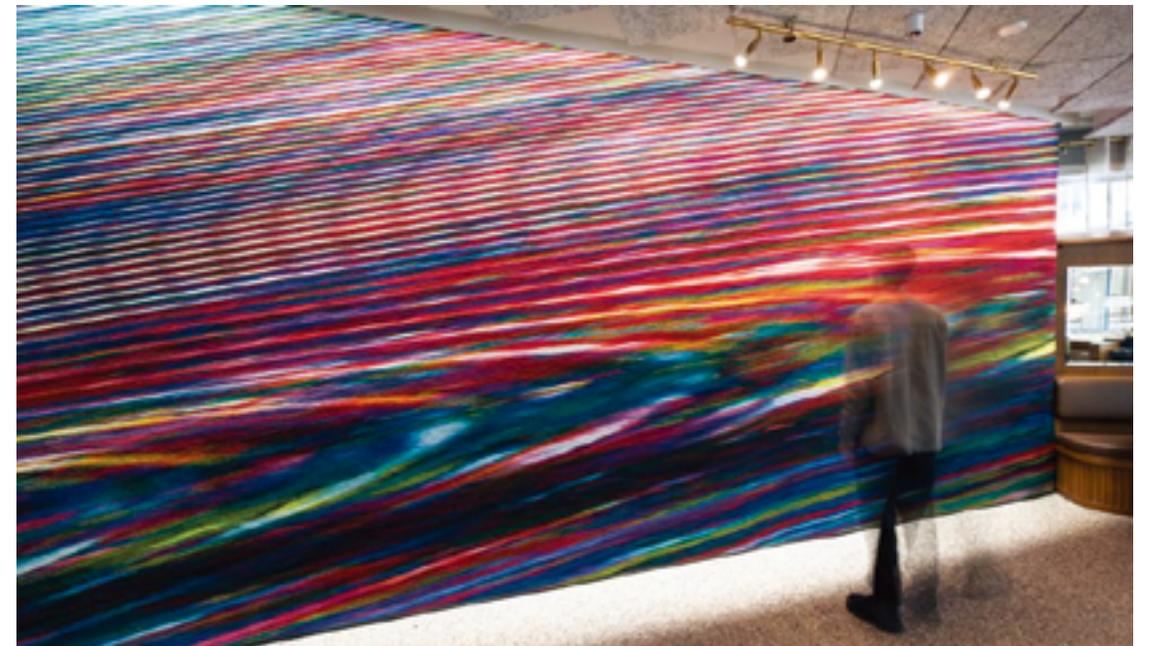
정은 앞서 소개된 바 처럼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관여하지만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주도 하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¹³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의 공공예술 작품들은 도심 내의 접근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며 이러한 작품들은 측정 가능한 가치를 뛰어 넘어 심미적이고 숭고한 예술의 정신을 도심 지역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룬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주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전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산하 스키씨나 박물관-예술 과정과 공공예술(Skisserna Museum-Museum of Artistic Process and Public Art)가 타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스웨덴의 명문 대학 룬드 대학교(Lunds Universitet) 문화과학대학(Kulturvetenskap)

13
Lunds Konsthall, Om Offentlig
Konst i Lund - Från upphandling till
installation, 2024.07.03

14
Statens Konstråd, Konst i
Kunskapsstaden-Stadsvandring
Statens Konstråds Projekt i Lund,
2024.07.03

는 해당 공공예술에 관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룬드에 위치한 카톨릭 성당(Domkyrckan)이 전 세계의 예술가와의 작업 및 작품 주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21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룬드의 어반 아트(Urbankonst)의 현실화를 주관하는 룬드아트(LundART)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치된 룬드의 공공예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도시에 배치되지만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영구적으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룬드 공공예술 작품의 설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작품이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는 주제나 이슈에 관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 및 시대 포괄적인 관점을 내포하여 정해진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공공예술 작품이 행위예술, 입찰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¹⁴ 일시적, 영구적 공공예술의 설치와 관리는 전시와 동일하게 2004년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한 해 2024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공공예술의 경우 총 여섯 작품이 있습니다. 이 중 두 작품은 2024년동안만 배치되는 일시적인 공공예술, 나머지의 네 작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영구적으로 설치된 영구적 공공예술에 해당합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공공예술의 발전과 혁신에 도움이 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어진 공공예술의 수리와 재건축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 룬드의 대광장에 설치되었던 Eduardo Chillida의 평화의 우주(Rymdfält av frid)라는 조각상을 철거하고 2025년에 재설치를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은 손상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공공예술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Miriam Bäckström—Perfect Storm, gobeläng för Stadshallen, 2024 전시 중 일부 © Daniel Zachrisson



Åsa Sonjasdotter—Hole, whole, hoop (2024-) 전시 중 일부 © 이주원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Southern Sweden Design Days의 경우 2021년 북유럽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예술가들의 참여에 더 나아가 2024년 올해에는 호주와 같은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참여한 예술가들의 수도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에도 해당 축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공공예술의 형태로 도심 전역에 다수의 전시장 및 전시품을 배치함에 따라 도시조경과 예술의 접근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에서 주관하는 전시와 공공예술 작품의 설치, 관리 및 수리의 경우에도 취지에 맞는 다양한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과정을 거쳐 제작된 공공예술품의 경우 단순 도시에 설치되어 전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이들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다시 한 번 예술이 주는 영감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재창출 하는 효과가 돋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Inga Linn Härdelin 사진가의 작품인 Hole, whole, hoop는 룬드 시의 기차역에 설치되어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설치되어 해당 메시지가 모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프로젝트들에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예술 작품들이 도심의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시민 의식의 향상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접근성

말뫼의 Southern Sweden Design Days의 경우 도심 전체에 70개 가량의 전시장이 존재하는 만큼 주 전시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품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뫼의 도심지역의 크기는 약 76,8km²에 해당하는데 전시장과 대중 교통 혹은 전시장 근처의 주차장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말뫼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는 약 36만명으로 큰 면적에 비해 인구의 수가 적은 관계로 교통이 붐비지 않아 전시장, 혹은 예술품이 있는 장소로의 접근과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룬드의 경우 말뫼의 도심보다 작은 25,8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룬드 예술의 전당(Lunds Konsthall)의 경우 룬드 기차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공공예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장 방문은 무료이며 룬드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공공 장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없이 관람 혹은 방문이 가능합니다. 간혹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로 주거지 혹은 대중교통 및 개인 차량 이용 시 관람 및 방문이 쉽게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이 또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뉴스, 홈페이지 및 플랫폼, 소셜 미디어, 타 매거진 자료 등을 통해 사진과 예술 작품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 스웨덴 전국 혹은 전 세계의 시민 모두가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서울 적용 방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 서울 디자인 재단의 서울 디자인 프로젝트는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프로젝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는 건축, 브랜드 개발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스웨덴의 말뫼, 룬드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 진흥 프로젝트 노력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인식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 더해 서울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스웨덴 말뫼, 룬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배워갈 수 있는 점은 바로 공공성을 지닌 예술의 확장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관람 해야하는 지불 형식의 전시나 디자인 프로젝트도 그 가치가 있으나 시민 전체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과 디자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에 스며드는 디자인 프로젝트도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디자인마켓과 같은 상업적 용도의 디자인 프로젝트 이외에도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공공예술의 본질적인 의미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는 예술을 제공하는 것 또한 서울 공공예술의 증진과 도심 디자인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부 스웨덴 스코네 주의 주요 도시인 말뫼, 룬드는 각자의 개성과 역량을 살려 평등,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중심으로 공공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파급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예술의 제작 및 전시 과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신이 사회와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에 자유롭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도시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도심 환경을 만들어내는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적 대화, 논의 그리고 영향의 교환 등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도모합니다.¹⁵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들은 초기 시작 연도 이래로 꾸준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 스웨덴, 북유럽에 위치한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의 참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뫼와 룬드에서 추진하는 공공예술의 프로젝트들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일상의 삶에 있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시에서 부터 행위 예술, 세미나, 워크샵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매 년 해당 프로젝트 들의 방문자 및 참가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매개체를 활용하여 디자인 프로젝트의 인식도를 높이고 정부 및 지방 자치 기관의 꾸준한 지원과 도움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디자인 프로젝트가 스웨덴의 말뫼와 룬드에는 자리잡아 있습니다.

공공예술의 목적과 방향성에 충실한 기반을 두고 그에 맞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해온 스웨덴의 도시 말뫼와 룬드는 공공성을 지닌 예술 확장이라는 관점에 있어 서울시의 미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고할 만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CITY BRANDING AND MERCHANDISE

도시 브랜딩 / 굿즈

: 도시의 이야기를 담다

CHICAGO

140

미국, 시카고 | 시카고 굿즈

I ♥ 시카고 -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굿즈로 표현하는 미국인들

WARSAWA

154

폴란드, 바르샤바 |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

'쇼핑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

BANGKOK

174

태국, 방콕 /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2024년 새롭게 발표한 태국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9



유튜브 영상

국가	미국
도시	시카고
분류	도시 브랜딩 / 굿즈

시카고 굿즈

I ♥ 시카고 -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굿즈로 표현하는 미국인들

강기향 미국 패션 대학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FIT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2015년 졸업 후 미국 내 캐주얼 패션 브랜드인 아베크롬비 & 피치, 마이어 등을 거쳐 현재 북미에서 가장 큰 의류 기기 공급 회사에서 의사 가운, 스크랩, 수술복 등의 디자인 및 제작을 총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3년째 프리랜서 기자 및 리포터로 활동 중이며, 현재 디자인 진흥원에서 매달 미국 디자인 동향을 글로 전달하고 있다.
gihyangkang@gmail.com

시카고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물, 유명한 스포츠팀,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통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다. 도심 어디에서나 화려한 벽화는 물론 일리노이 주의 주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시카고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굿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시민들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사용하며 애용한다. 이러한 시카고의 다양한 공간과 일상에서 만나는 '굿즈'들을 조명하고, 서울시는 물론 시민들이 굿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현지의 모습을 전하려 한다.

USA, CHICAGO

1 들어가며



시카고의 다양한 굿즈는 지역 아티스트들이 제작하는 엽서, 포스터, 열쇠고리뿐만 아니라,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주의 주 깃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제품들도 존재한다. 사기업들 또한 시카고 굿즈를 적극적으로 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각 주마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스타벅스와 미국 전역의 체인 슈퍼마켓들은 각 슈퍼마켓의 로고와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에코백, 열쇠고리, 가방 등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슈퍼마켓 '트레이더 조'에서는 시카고 한정판 에코백을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해 수집가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해당 가방을 모으는 재미도 선사한다. 또한 시카고에서 승인하여 매년 진행하는 페스티벌 중, 역사를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한 시즌별 페스티벌에서는 한정판 머그잔이나 굿즈를 개발해, 이를 수집하는 '덕후'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각 기관은 타겟 소비자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한정 특별 상품과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한정판 제품을 통해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제작되는 데는 미국인들의 지역 사랑과 더불어, 일리노이주 및 시카고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굿즈가 크게 사랑받는 미국의 문화와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었던 정치 제도 및 예술인 지원 제도를 조명해보려 한다.

2 추진배경

지역 및 도시 굿즈는 관광객들에게는 멋진 기념품이 되고,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지역 사랑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개성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패션 아이템이 된다. 또한, 새로 유입되는 시민들에게는 소속감과 지역 사랑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러한 굿즈를 만드는 예술가들에게는 중요한 수입 창출원이 된다. 나아가 기업과 정부는 지역 사회의 자긍심과 문화 예술의 부흥을 위해 적은 사업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굿즈는 단순한 제품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소장, 정신적 고양,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도시 어디에서든 지역 굿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눈에는 아무 것도 없는 시골 마을이라도, 그곳에서는 지역명이나 동네 이름이 적힌 티셔츠나 엽서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도시인 시카고는 시카고의 매력을 담은 굿즈들을 시 당국뿐만 아니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라 사기업과 지역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의 깃발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도 많다. 이러한 굿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배경을 분석하고, 시카고 시의 다양한 정책 및 시민들의 관점을 조명해보려 한다.

시카고 시의 다양한 굿즈는 주로 사기업들이 제작하는 상품과 지역 예술가들이 제작한 작품들로 이루어진다. 사기업들이 제작하는 상품은 로컬라이징(Localizing)을 거쳐 현지화된 형태로 판매된다.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는 전 세계 도시마다 로컬라이징된 굿즈를 판매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각 주마다 다른 컵, 텀블러, 열쇠고리 등의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며, 현지인들도 근교 여행이나 다른 주로 여행할 때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슈퍼마켓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 역시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자사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대표 건축물과 디자인을 담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에코백에 트레이더 조 특유의 디자인을 담아 시카고의 대표 명소를 프린팅한 가방은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 에코백은 지역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판매되며, 저렴하고 만족도가 높은 굿즈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얹어 판매되기도 한다. 장을 본 시민들이 이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시카고의 독특한 풍경이 되며, 시민들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아이템으로서 SNS에서 종종 화제가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업들이 현지화된 지역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들에게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자사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거두는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카고 전역, 특히 공항이나 관광지에서는 현지화된 상품이 더욱 강조되어 판매된다. 이러한 현지화 상품을 매 시즌 구상하기 위해 사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현지 예술가, 인플루언서, 작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시카고 시 깃발은 4개의 붉은 별과 두 줄의 파란색이 특징적이다. 시카고 전역에서는 일리노이 주 깃발을 활용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 예술가, 인플루언서, 작가들은 사기업과의 협업 외에도 자신만의 지역 사랑을 표현한 작품들을 상품화해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서점, 주말 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역 굿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출신의 토박이 예술가부터 시카고로 이주한 예술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의 모습을 담은 제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컵 받침대부터 포스터, 아기 옷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예술가들이 이러한 지역 굿즈를 적극적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시카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매년 모집하는 ‘개별 아티스트 프로그램(IAP, Individual Artist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의 현역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시카고의 문화 예술을 부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AP 프로그램은 영화 및 미디어 예술, 문학, 음악, 공연 예술(연극/무용), 시각 예술/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지원할 수 있어, 규제 없이 풍성한 예술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시카고시는 매년 4회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이민자 출신 예술가들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치해 지원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00~250명의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는 전체 지원자의 약 25%에 해당한다. 약 1,500명의 지원자가 자신의 예술 목적, 방향성, 작품 의도, 해당 작품과 시카고 시의 연관성, 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해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IAP 프로그램은 신인 예술가, 큐레이터, 문화 콘텐츠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물론, 이미 잘 알려진 예술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시카고 거주자, 만 18세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아닌 성인으로 제한되며, 자격 요건은 비교적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후 격년으로 재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문화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 예술가들이 우선 선정된다. 최대 6,000달러(한화 약 7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해당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시카고 예술가 연합(Chicago Artists Coalition)은 제한 없는 예술가 보조금 프로그램 4가지를 매년 운영하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카고 시의 예술 문화 부흥과 신진 작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먼저, 메이커(MAKER) 보조금은 매년 3,000달러(한화 약 420만 원)를 지원하며, 사회 및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각 예술가를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예술 작품이나 굿즈를 만드는 작가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코니 패밀리 펀드는 매년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를 지원하며, 예술적 우수성과 창의성을 잘 드러내는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를 돕는다. 스파크 보조금(SPARK)은 매년 2,500달러(한화 약 300만 원)를 아프리카계, 라틴계, 아시아계, 아랍계, 미국 원주민들과 재정적 어려움, 장애, 독학으로 예술가가 된 이들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편견과 기회의 불균등을 겪는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마지막으로 인비전(ENVISION) 보조금은 매년 2,500달러(한화 약 300만 원)를 지원하며, 가상 현실, 디지털, 컴퓨터, 비디오 게임 예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과 예술 작품 계획서를 포함한 간단한 지원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어가 어려운 이민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은 시카고가 많은 예술가들을 보유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도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그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아티스트 프로그램(IAP - Individual Artist Program)은 2013년부터 11년째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된 예술가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등록해 투명한 과정과 선정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예술가들의 이름을 바탕으로 그들의 작품 활동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안내 세미나와 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서류 간소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카고 예술가 연합(Chicago Artists Coalition)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도 매년 지원 공고와 선정된 예술가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 공유해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신진 예술가들의 지원과 홍보를 통해 예술에 관심 많은 시카고 지역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전시 및 이벤트를 적극 알리고 있다. 해당 작품들은 브로마이드, 포스터, 엽서 등의 굿즈로도 제작되며,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한 만큼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미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모습이 드러난 작품들이 재생산되어 예술 작품과 굿즈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시카고를 대표하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크고 작은 개인 단체, 비영리 단체, 사기업에서 다양한 예술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회 역시 예술 작품 전시, 장소 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 예술가들의 시카고 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카고 내 예술가들이 도움을 받고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됨으로써 각 단체는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단체를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부금과 단체 가입 등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작은 단체들도 예술과 문화를 알리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며,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해 비영리 단체 타이틀을 수여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활동을 독려한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이러한 환경 조성은 도시 전체의 문화 예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근교 소도시나 다른 지역의 예술가들이 시카고로 유입되면서 특유의 분위기와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사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경제 부흥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의 유의미한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 일리노이주 및 시카고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 프로그램 외에도, 개인 단체들의 세금 혜택 부여 효과는 정부 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

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시카고시는 공무원 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풀뿌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세금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들 역시 자발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며 예술가들과 상부상조하는 구조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파급력은 젊은 예술가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작품과 시카고 굿즈의 꾸준한 생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일상이 담긴 시카고와 일리노이에서의 삶은 자연스럽게 굿즈와 작품들에 녹아들며, 독특한 매력을 가진 제품들을 창조해 내고 있다. 각 지자체가 외부 디자이너나 작가에게 의뢰해 비용을 들여 제작하는 굿즈와는 달리, 실제로 시카고에 사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느낀 애정을 담아 만든 굿즈나 작품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누군가의 일상과 애정이 담긴 시카고의 모습이 담긴 제품들을 구매하며 지갑을 연다. 매년 열리는 시카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머그컵을 제작하여 탄탄한 마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카고 시민들의 크리스마스 머그컵에 대한 애정은, 꾸준히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면서도 전통을 유지해 온 덕분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진 성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시카고 시의 예술가를 위한 이러한 정책과 환경은 시카고가 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매년 꾸준한 예술가 지원과 그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 덕분에 시카고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 결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은 또 다른 예술가들은 그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며, 이를 에코백이나 다양한 굿즈로 만들어내는 등 끊임없는 예술 활동을 통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년 새로운 볼거리와 상품을 제공한다. 그 결과, 시카고는 매년 콘데나스트 및 다양한 여행 잡지, 뉴스, 신문에서 세계 대표 관광 도시 상위권에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카고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높은 명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살아 숨 쉬는 문화 예술 부흥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며, 지루하지 않고 다시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도시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기업들이 판매하는 굿즈와 제품들은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골목마다 자리 잡은 스타벅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슈퍼마켓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각 사기업이 제작한 현지화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기업의 굿즈를 모방한 영세 상인들의 시카고 관련 제품들도 쉽게 볼 수 있다.

개인 예술가들이 제작한 시카고 굿즈들은 시카고 전역의 다양한 가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다운타운 지역은 물론, 외곽 지역인 로건 스퀘어(Logan Square)에 위치한 지역 서점이나 소규모 부티크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서점에서는 시카고시 퍼즐, 일리노이 주 깃발을 모티브로 한 컵 받침, 시카고 관련 책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부티크에서는 일리노이 주 깃발을 모티브로 한 강아지 하네스, 아기 옷, 시카고 디자인이 그려진 티셔츠, 포스터, 엽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시카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 및 판매되는 굿즈들이다. 이러한 굿즈들은 영세업자가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소규모 수수료를 받고 가게에서 제작하여 예술가와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판매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시카고 핸드메이드 가게를 운영하는 울프베이트(Wolfbait)의 사장은 2006년부터 300명 이상의 시카고 예술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4월과 12월에 개최되는 시카고 '원 오브 어 카인드 쇼(One of a Kind Show)'에 참여해 시카고 예술인들의 작품을 알리고 있다. 23년 동안 매년 열리는 이 쇼에는 500명 이상의 예술가, 디자이너, 공방 운영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불러모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쇼는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매는 물론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지역의 작은 서점에서도 다양한 시카고 관련 굿즈와 책을 판매한다. 로건 스퀘어에 위치한 시티 리트(City Lit) 서점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장소이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푸드 트럭에도 일리노이 주 깃발이 새겨져 있다. 각 레스토랑들도 자신들만의 굿즈를 제작하는데, 시카고라는 도시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5 접근성

6 서울 적용 방안

한국은 굿즈 디자인에 있어서 미국보다 더욱 섬세하고 아름다운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한국의 전통과 현대 예술이 접목된 굿즈들은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품질 대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굿즈는 종종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주목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특별한 작품과 굿즈들은 대중에게 인지되지 않거나 관광객들에게 판매될 기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예술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예술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쉽게 찾기 힘들다. 사기업들 역시 서울이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에코백이나 한국적 가치를 알리는 굿즈를 출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서울은 케이팝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제품과 굿즈가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구매에 그치는 관광 기념품, 과자, 화장품 같은 일반 기업 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의 예술가로서 사랑하는 서울의 모습을 꾸준히 담아내며,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창조해낼 수 있는 예술가들을 서포트할 제도적 뒷받침과 단체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카고의 어느 서점에서나 시카고 관련 도서와 지역 예술가들이 협업한 굿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카고처럼 풀뿌리 수준의 단체부터 시, 지자체가 꾸준히 굿즈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버랑 끝에 서지 않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판매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이러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 시카고시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현지 거주 지역의 작은 영세 사업장에만 들러도 지역 특유의 굿즈나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특징이 드러난, 현지 예술가들이 제작한 굿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소품 가게나 옷가게에서 지역 전통을 드러낸 포스터나 예술 작품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서울에서도 명동, 박물관, 미술관, 기념품 가게, 경복궁 등 특정 장소를 제외하면 서울의 매력을 담은 굿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각 영세 사업장이 쉽게 납품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며,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카고라는 도시 이름을 활용한 조형물과 굿즈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이자 ‘슈가레인’의 창업자 김단비(35세)는 “한국에서 한국적인 굿즈를 출시하는 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 예술가 생활지원금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는 순수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수입을 판단하여 쉽게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예술인 지원금 공고를 보면 수입, 나이, 대출 유무 등 개인적인 상황을 따지는 것이 많아 신청이 쉽지 않다. 단순히 예술 작업과 작품 계획서만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순수익이 적어도 매출 하나만으로 평가되는 제도가 많아 답답하다. 게다가 판매 플랫폼에서도 작가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영세 상인들도 지역 예술가들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 젊은 작가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많은 서울 시민은 서울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한국적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영어와 외국어가 혼용된 간판과 메뉴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커뮤니티의 결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카고처럼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언어적, 제도적 배려를 받아 그들의 아픔과 도시에 대한 사랑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며, 원주민들에게 도시의 잊혀진 가치를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시카고 시민들이 잊고

지내던 아름다움을 이민자 출신 예술가들이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도시에 대한 애정과 결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에도 수많은 외국인 예술가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관련 작품과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들의 콘텐츠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카고처럼 현지 시민들이 사랑하는 서울의 모습을 담아내는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먼저 그 문화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즐기는 문화가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시민들이 한국적인 것을 사랑하고 공감하며, 이를 예술과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킬 때,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곳곳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테리어, 패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으로 꾸준한 수요와 활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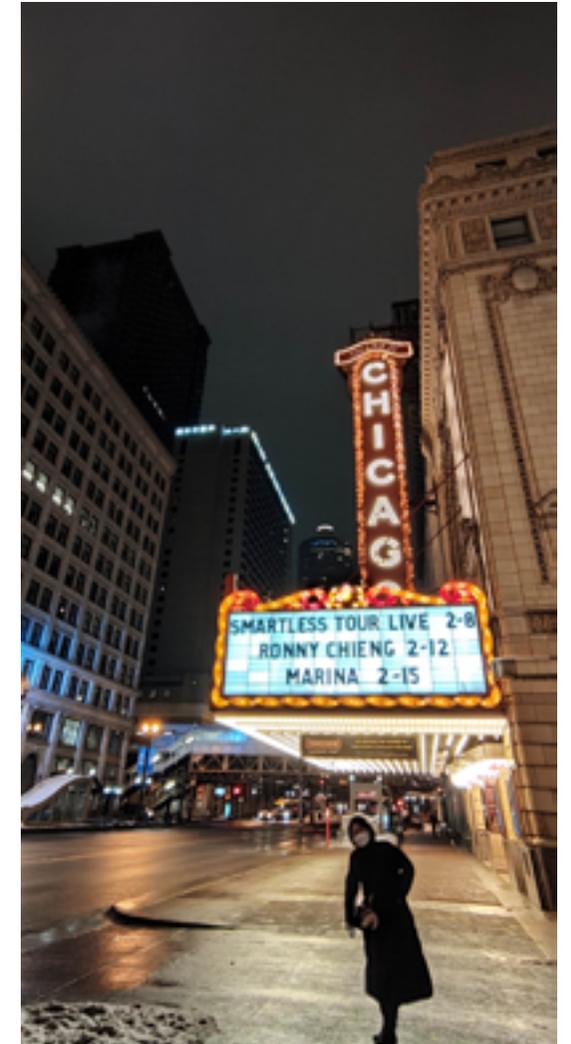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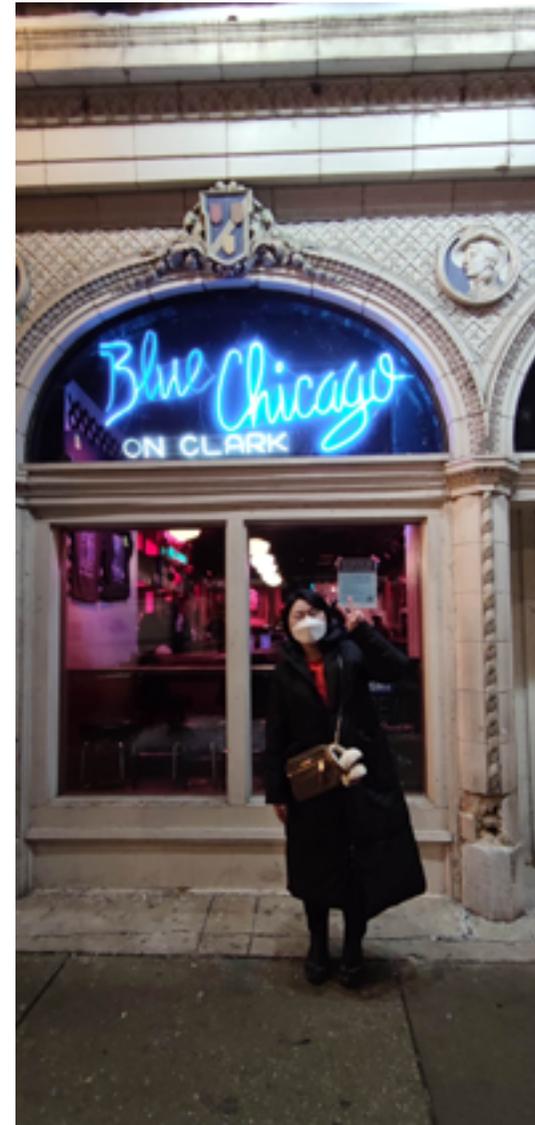
7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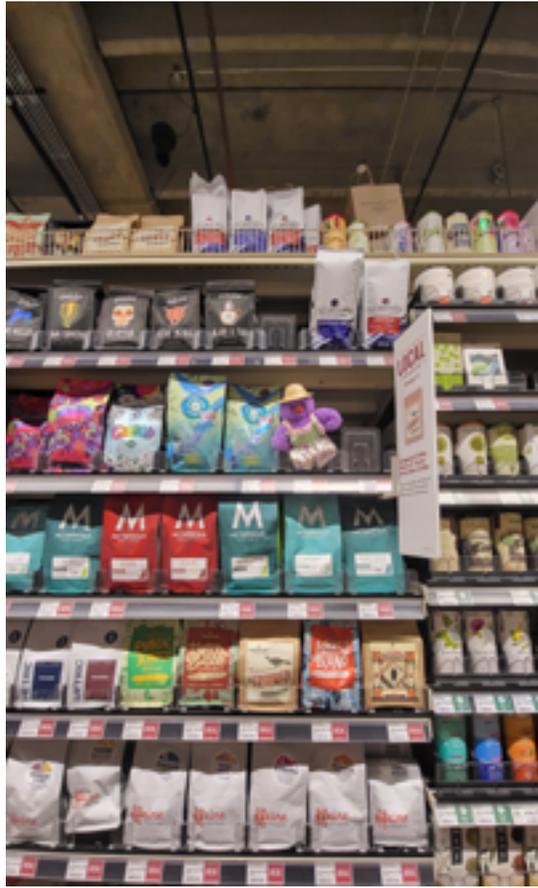
시카고에서는 여러 행사에서 쉽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카고와 일리노이 곳곳은 차이점보다는 커뮤니티에 집중한다.

시카고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곳곳에서 쉽게 굿즈를 찾아볼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 깃발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이거나, 시카고의 명소들을 그려놓은 그림, 혹은 시카고의 맛집이나 문화를 담은 작은 액세서리나 책자일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시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찾은 다양한 장소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굿즈 관련 조사를 하며 만난 여러 시카고 굿즈를 보면서, 시카고 시민들과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시카고는 서울에 비해 인구수나 규모가 작은 도시다. 하지만 굿즈는 주말에 동네의 작



시카고를 방문한 국내 마케팅 전문가 손슬기(32세)가 시카고 네온 사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시카고 슈퍼마켓에서도 '지역 상품'이 따로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시카고라는 도시 이름이나 일리노이 주 디자인을 가미해 지역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어필한다.



시카고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굿즈뿐만 아니라, 외관에도 미국 국기, 일리노이 주기, 시카고 시 깃발을 순서대로 배치해 눈길을 끈다.

은 가게만 방문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올해 초 방문한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지역 상점, 백화점, 서점에서는 서울과 관련된 상품은 물론, 한국의 특색을 드러내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렵사리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 서울 관련 포스터를 겨우 구매했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나로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해외에서 짧게 머무는 일정 동안 인터넷으로 한국 굿즈를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따로 박물관이나 특정 가게를 방문해야만 한국 굿즈를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반면, 올해 초 시카고를 방문한 국내 D사 소속 마케팅 전문가 손슬기 씨는 “시카고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다양한 도시 관련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서울을 넘어 지방 도시에서는 대표 캐릭터 제품조차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데, 시카고에서는 특별한 캐릭터나 지자체의 예산 투입 없이도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굿즈를 만들어내고, 각 영세업자들이 ‘시카고’라는 이름을 적극 활용해 굿즈를 제작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의 매력적인 도시들이 지역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굿즈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굿즈는 한국의 세련된 디자인이나 감각적인 스타일에 비해 다소 투박한 편이지만, 접근성이나 일상생활에서 굿즈를 찾는 것은 훨씬 쉽다. 굳이 대형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 같은 곳을 가지 않아도,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판매하는 제품들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의 많은 예술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며, 강의,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불안한 생활고에 직면한 예술가들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카고 시의 정책과 시민들이 커뮤니티 결속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 관련 굿즈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현상을 참고하여, 서울시가 어떻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서울시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행복을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웃, 가족,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굿즈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10



유튜브 영상

국가	폴란드
도시	바르샤바
분류	도시 브랜딩 / 굿즈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

이미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디자인과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후(喚)일담: 냄새 지도 커뮤니티를 통한 공감각 기억 아카이빙 서비스」 논문의 저자이며, 현재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서 인턴십 과정 중에 있다. 일상의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그려내는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

mihyeon.art@gmail.com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축된 도시입니다. 구시가지인 올드타운과 현대적인 건축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인 음악가 쇼팽이 바로 폴란드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바르샤바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르샤바 곳곳에서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와이엔키 공원에서 열리는 쇼팽 연주회, 쇼팽의 생애 및 그가 사용하던 피아노와 친필 악보 등을 전시한 쇼팽 박물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음악 벤치, 쇼팽의 심장이 문헌 성십자가 교회, 올드타운 기념품샵을 가득 채운 쇼팽 굿즈들이 바로 그것이죠.

도시 전체가 음악과 활기로 가득찬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그리고 음악’을 통한 시민 속에 녹아있는 도시 브랜딩을 글과 영상에 담았습니다.

POLAND, WARSAW

1 들어가며



올드타운 점코비 광장 © 이미현



올드타운 르벡광장 © 이미현

동유럽에 위치한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폴란드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축되어 아름다운 올드타운과 현대적인 건축이 공존하는 폴란드의 수도이다. 세계적인 음악가 프레데리크 쇼팽이 바로 폴란드 출신이며, 그의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이곳 폴란드 또한 곳곳에서 쇼팽의 자취와 활기 넘치는 ‘음악 도시’를 체감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와지엔키 공원에서 열리는 쇼팽 연주회, 쇼팽의 생애 및 그가 사용하던 피아노와 친필 악보 등을 전시한 쇼팽 박물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음악 벤치, 쇼팽의 심장이 묻힌 성십자가 교회, 올드타운 기념품샵을 가득 채운 쇼팽 굶즈들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바르샤바 공항의 이름마저 ‘바르샤바 프레데리크 쇼팽 공항(Warsaw Frederic Chopin Airport)’인 것을 보면, 폴란드인들의 쇼팽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바르샤바는 ‘쇼팽 그리고 음악’을 통해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다.

2 추진배경

¹ ‘바르샤바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불리는 와지엔키 공전이자 공원은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왕의 여름 별장이다. 고전주의 기념물과 유서 깊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을 포함해 로얄 가든(Royal Garden), 로맨틱 가든(Romantic Garden), 모더니스트 가든(Modernist Garden)을 관람할 수 있다.

² 참고자료: 와지엔키 공전 및 공원 공식 홈페이지 쇼팽 연주회 역사 소개 <https://www.lazienki-krolewskie.pl/wydarzenia/koncert-chopinowski> 남태우 기자, 쇼팽 벤치에 앉아 잔잔한 아상곡에 젖으면, 부산일보, 2022.07.31 <http://www.lpk.kr/news/article.html?no=44139>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³ 참고자료: 남태우 기자, 쇼팽 벤치에 앉아 잔잔한 아상곡에 젖으면, 부산일보, 2022.07.31 <http://www.lpk.kr/news/article.html?no=44139>

가. 와지엔키 공원 쇼팽 연주회

매년 5월부터 9월, 바르샤바의 와지엔키(Łazienki) 공원¹에서는 매주 일요일 12시, 4시마다 쇼팽 연주회가 열린다. 쇼팽 기념비에서 열리는 여름 리사이틀 연주회는 폴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전세계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및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연으로 가득찬다.

스투우에초나 에스트라다(Stołeczna Estrada)와 프리데릭 쇼팽 소사이어티(Fryderyk Chopin Society)가 로얄 와지엔키(Royal Łazienki)와 협력하여 주최하는 쇼팽 연주회는 바르샤바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행사 중 하나이며 문화 쇼케이스이다. 쇼팽 기념비에서의 리사이틀은 1959년에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는 뛰어난 쇼팽 기념비를 재건한 직후였다.

나. 쇼팽 음악 벤치 사업

“바르샤바 시내에 쇼팽 벤치를 만들도록 합시다. 시민들은 물론 외국 여행객들이 쇼팽의 인생을 따라가며 그의 음악 세계를 반추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합시다.”

바르샤바 쇼팽 벤치 사업은 2009년 3월 13일 폴란드 정부가 ‘쇼팽의 해 2010 축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작을 알렸다. 1810년 태어난 폴란드의 세계적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조직이었으며, 쇼팽이 태어난 집에서부터 유해가 묻혀 있는 성당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따라가는 길을 연결한 뒤 곳곳에 벤치를 만들고자 했다.

폴란드 조각가 제르지 포레브스키가 설계한 쇼팽 벤치는 바르샤바에 곳곳에 모두 15개 설치됐다.²

음악 벤치가 설치된 15곳은 쇼팽의 삶, 음악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들이다. 벤치는 검은색 금속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쇼팽 벤치에 가면 다른 벤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다. 벤치가 세워진 이유를 영어, 폴란드어로 짧게 설명한 팻말도 붙여 놓았다. 벤치에는 QR 코드도 설치돼 있다. 휴대폰을 갖다 대면 쇼팽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의 음악을 더 들을 수 있다.

쇼팽 벤치가 설치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크라진스키치 광장, 미오도바 거리, 코지아 거리, 바르샤바 음악원, 베셀 궁전, 대통령궁, 사스키 궁전, 사스키 정원, 로마가톨릭성당, 카지미에르조브스키 궁전, 차프스키 궁전, 성십자가교회, 자모이스키 궁전, 프레데리크 쇼팽 박물관, 와지엔키 공원의 프레데리크 쇼팽 동상 앞이다.

쇼팽의 발자취를 따라 바르샤바를 천천히 향유하며 음악 벤치를 하나씩 발견하다보면 이 매력적인 음악 도시에 푹 빠지게 된다.³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1. 쇼팽의 생애를 담은 쇼팽 박물관과 음악 벤치

리포터는 프레데리크 쇼팽 박물관, 성심자가교회, 대통령궁, 와지엔키 공원의 쇼팽 벤치를 직접 찾아나섰다. 대리석 재질처럼 비취지는 비슷한 의자는 다른 벤치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폴란드어와 영어로 된 설명과 음악벤치 지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음악 버튼과 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있다. 음악 버튼을 재생하면 각 벤치마다 서로 다른 쇼팽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실제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곡은 30초로 구성되어 있다. 바르샤바의 전경을 바라보며 쇼팽의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은 누구나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것 같다.



쇼팽 박물관 앞 음악 벤치 © 이미현

첫 번째 벤치를 찾은 프레데리크 쇼팽 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바르샤바 곳곳의 박물관들은 요일별로 무료입장일이 정해져있기에, 시민들이 보다 친밀하게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쇼팽 박물관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쇼팽 리사이틀 연주회를 개최한다.



쇼팽 박물관 외관 © 이미현



쇼팽 박물관 로비 © 이미현



Pleyel piano, 쇼팽의 마지막 피아노 © 이미현

지하 1층, 0층, 1층, 2층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된 쇼팽 박물관은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아노와 친필 악보, 가구, 초상화, 편지 등 귀중한 자료를 전시한다. 특히 인상깊었던 점은 관람객이 상세한 설명을 시청할 수 있는 부스와 쇼팽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실 등 멀티미디어 존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감상실에서는 쇼팽의 소나타, 에튀드, 발라드, 임프로프트, 스케르초, 프렐류드 등 다양한 음악을 헤드폰을 통해 직접 감상할 수 있다. 개별화 된 시청각 부스는 개개인의 더 깊이 있는 관람을 돕는다.

전시물마다 터치스크린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개인이 파악하기 힘든 깊이 있는 지식을 도슨트 없이도 전달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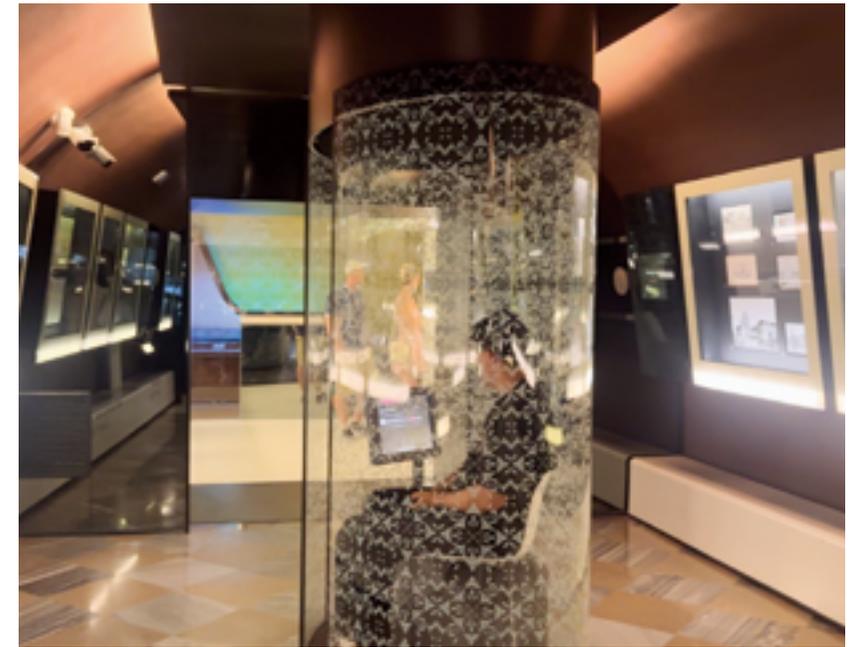
로비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불규칙한 음악소리를 따라가면, 아이들이 키즈존에 구비된 장치들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쇼팽 박물관이라는 이름처럼 어린이들이 쉬는 휴게공간까지도 음악으로 피어나도록 설계한 것이 인상적이다.



쇼팽 박물관 음악 감상실 © 이미현



쇼팽 박물관 어린이 휴게실 © 이미현



쇼팽 박물관 멀티미디어 부스 © 이미현



쇼팽 박물관 전시물 안내 스크린 © 이미현

2. 쇼팽의 심장이 묻힌 성십자가 교회와 음악 벤치

두 번째 음악벤치를 찾아 쇼팽의 심장이 묻혀있다는 바르샤바 성십자가 교회로 향했다. 쇼팽과 그의 가족의 많은 중요한 순간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하며, 쇼팽의 누이 이자벨라와 에밀리아의 세례식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항상 조국인 폴란드를 그리워하던 쇼팽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의 큰누나인 루드비카는 그의 심장을 바르샤바로 가져왔고, 마침내 그의



성십자가 교회 © 이미현



성십자가 교회 내부 © 이미현



쇼팽의 심장이 묻힌 기둥 © 이미현

심장은 성십자가 교회의 기둥안에 안치될 수 있었다고 한다. 리포터가 방문한 시점은 마침 교회 내부에서 미사가 진행중이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좌측으로 쇼팽의 추모비가 보인다. 그가 있기에 지금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성십자가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인도 좌측에서 두 번째 음악 벤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역시 폴란드어와 영어로 이뤄진 설명과 지도, 우측 하단 큐알코드가 있다. PLAY 버튼을 누르자 버튼이 푸른색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성당을 배경으로 쇼팽 음악이 흘러나온다.



성십자가 교회 앞 음악 벤치 © 이미현



성십자가 교회 앞 음악 벤치 재생 © 이미현

3. 대통령궁 앞 음악 벤치

세 번째로 벤치를 찾은 곳은 대통령궁 맞은편이었다. 이렇게 음악 벤치를 하나씩 찾아다니다 보면 바르샤바 곳곳을 더 깊이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즐겁게 거닐 수 있다.



대통령궁 © 이미현

4. 와지엔키 공원 쇼팽 연주회와 음악 벤치

네 번째 음악벤치를 찾아 떠난 곳은 매주 일요일마다 쇼팽 연주회가 열리는 와지엔키 공원 (Łazienki Królewskie w Warszawie)이다. 규모가 매우 큰 공원이기에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쉽다. 리포터 또한 와지엔키 공전을 찾으러 호기롭게 걸음을 뗐다가 30분 가량을 헤맸다. 그럴 땐 공원 곳곳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면 핵심 장소를 이미지로 표시해 둔 덕에 보다 쉽게 원하는 스팟을 찾아갈 수 있다. 연주회가 열리는 쇼팽 기념비 맞은편으로는 또 하나의 쇼팽 벤치를 찾을 수 있다.

와지엔키 공원은 쇼팽이 어린시절 뛰어놀았던 공원이라고 한다. 'Frédéric Chopin Monument'. 공원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동상, 쇼팽 기념비는 그의 어린시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세워졌다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의 지도상에도 위치가 표시된다. 동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앉아있는 쇼팽의 오른쪽에 버드나무가 있고, 이 버드나무는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을 연상시킨다. 쇼팽의 머리 방향으로 뻗어있는 나뭇가지는 폴란드의 상징인 독수리의 머리 형태를 띤다. 그는 영감을 찾는 음악가의 모습으로 고개를 젖힌 채 눈을 반쯤 감고 자연의 소리에 몰두하고 있다. 그의 오른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의 건반 위에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치켜 올려져 있는데, 아티스트가 적절한 음색을 찾고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 전체 구성은 기념비적인 하프를 연상시킨다.⁴

6월 말, 일요일 4시에 방문한 와지엔키 공원은 굉장히 무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주 시간이 다가올 수록 수많은 인파가 몰아쳤다. 쇼팽 연주회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⁴ 참고자료: 와지엔키 공원 쇼팽 기념비 소개
<https://www.lazienki-krrolewskie.pl/en/pomniki/pomnik-fryderyka-chopina>



쇼팽 연주회 전경 © 이미현



연주회를 위한 스피커 © 이미현

었다. 연주자는 대한민국의 이혁 피아니스트였다. 광활한 잔디밭 사이사이로 커다란 스피커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 연못을 중심으로 퍼지는 쇼팽의 녹턴은 이곳이 쇼팽의 나라임을 되새기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돛자리와 각종 간식거리를 챙겨와 쇼팽 연주를 들으며 가족, 친구들과 저마다의 평온한 주말을 만끽했다.

5. 도심 속 기념품 스토어의 쇼팽 굿즈

쇼팽 박물관 및 올드타운 곳곳에 자리한 수많은 기념품샵에는 다양한 쇼팽 굿즈를 판매한다. 쇼팽 에코백부터 쇼팽 기념비 엽서, 피아노가 그려진 도시 일러스트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폴란드인들이 쇼팽과 음악을 도시의 상징이자 문화로 받아들이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아노가 그려진 도시 일러스트 엽서 © 이미현



올드타운 기념품샵 쇼팽 기념비 마그넷 © 이미현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음악 도시에 대한 생생한 시민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와지엔키 공원에 쇼팽 연주회를 보기 위해 방문한 막달레나 교수,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나탈리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졸업 후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서 인턴십 과정 중에 있는 허준석 님을 각각 인터뷰했다.

가. 시민 인터뷰 1: 막달레나 교수(Macdalena)(폴란드 소재 공과대학 교수)

리포터: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서울디자인리포터 이미현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해외 도시의 우수 디자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곳 폴란드에서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막달레나: 제 이름은 막달레나입니다. 폴란드 타지역에서 왔고, 그 곳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에 살진 않지만, 바르샤바를 굉장히 자주 여행하고 있어요. 바르샤바에서 20년 동안 일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터: 폴란드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오늘 보러오신 이 쇼팽 연주회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오게 되셨나요?

막달레나: 바르샤바에 일을 위해 많이 방문하곤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와지엔키 공원과 쇼팽의 아름다운 기념비 앞에서 열리는 연주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이 연주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포터: 그렇군요, 쇼팽 연주회를 자주 관람하러 오시나요?

막달레나: 네, 매우 자주 보러 옵니다ㅎㅎ

리포터: 와지엔키 공원의 쇼팽 연주회 외에, 바르샤바에서 쇼팽과 관련된 연주회나 장소를 가신적 있으신지요. 어떤 곳들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막달레나: 마침 저희는 어제 구시가지 도심의 바르샤바 왕궁에서 열린 쇼팽 연주회에 다녀왔어요. 구시가지 내의 모든 장소가 아름다웠고, 연주회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리포터: 폴란드에 살면서 이곳이 음악 도시인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막달레나: 네, 이곳 바르샤바는 정말 음악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바르샤바 전역이 특별한 콘서트로 가득하답니다. 예를 들어 예제는 시내 중심가에서 두 개의 다른 콘서트도 개최됐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답니다. 바르샤바는 최고의 음악 도시입니다.

리포터: 마지막으로, 바르샤바를 한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교수님께 어떤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막달레나: 제가 매우 사랑하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조부모님도 바르샤바

에 사셨고, 아들과 저도 여기서 일하고 있고, 바르샤바가 수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활동, 유명 전시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콘서트, 역사 박물관, 미술관도 있고요. 참석할 수 있는 활동과 전시가 매우 다양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달레나 교수 인터뷰 © 이미현

나. 시민 인터뷰 2: 나탈리아(Natalia)(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리포터: 안녕하세요, 성함과 전공, 바르샤바 거주기간 등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탈리아: 안녕하세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와 경영을 전공한 나탈리아입니다. 바르샤바에서 태어나서 24년 동안 바르샤바 및 수도권에서 쭉 살았습니다.

리포터: 폴란드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인들에게 쇼팽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탈리아: 폴란드에서 쇼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많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폴란드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리포터: 나탈리아씨도 바르샤바에서 쇼팽 연주회 등 쇼팽의 음악과 관련된 경험을 하거나 관련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어떤 곳을 방문하셨나요?

나탈리아: 어렸을 때부터 학교 수학여행으로도 쇼팽관 관련된 곳들을 많이 다녀왔고, 올해도 와이엔키 공원에서 하는 쇼팽 연주회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리포터: 그러한 쇼팽 연주회의 정보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주로 알게 되시는

지요?

나탈리아: 부모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바르샤바에서 살면서 기차, 지하철 트램 등의 광고에서 보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소식을 접하는데요, 특히 폴란드 친구들보다도 외국인 친구들이 쇼팽에 관심이 커서 제게 많이 알려주곤 합니다.

리포터: 그렇군요ㅎㅎ 최근 방문하셨던 와이엔키 쇼팽 연주회는 어떠셨나요?

나탈리아: 너무 좋았죠.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물론이고, 연주회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의 한가운데서 하는 공연은 실내 공연장보다 훨씬 운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잔디에 앉거나 누워서 편안하게 관람하는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리포터: 그 외에도 폴란드에 살면서 이곳이 '쇼팽의 도시, 음악 도시'라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나탈리아: 예를 들어 올드타운에는 쇼팽 벤치들이 있는데 가끔씩 저도 눌러보곤 하고요^^ 성십자가 성당에 쇼팽의 심장이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쇼팽 관련 광고를 보거나 누군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쇼팽의 도시라는데 떠오르곤 하는 것 같습니다.

리포터: 마지막으로 바르샤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도시인가요?

나탈리아: 편안하고, 숨겨진 매력이 많은 역사 깊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디에서 연주를 관람하는 시민들 © 이미현

다. 시민 인터뷰 3: 허준석 님(작곡과 졸업,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인턴)

리포터: 안녕하세요, 성함과 전공, 바르샤바 거주기간 등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허준석: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주폴란드문화원에서 인턴십 과정 중에 있는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바르샤바에 온 지는 한 달 반정도 되었습니다.

리포터: 폴란드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작곡을 전공하셨다면 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셔서 쇼팽의 음악과 관련된 경험을 하거나 관련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허준석: 네, 제가 폴란드에 오게 된 계기도 쇼팽의 영향이 컸을 만큼 큰 팬이기도 한데요, 바르샤바에 와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쇼팽 박물관이었습니다. 쇼팽의 생애, 음악들, 그가 어떤 과정과 만남 가운데서 음악을 써 내려갔는지 구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주말에만 열리는 쇼팽 연주회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에 계신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바르샤바 공항의 이름이 '쇼팽 공항'인데요, 이름에 쇼팽이 들어간 것부터 공항 내에서 쇼팽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까지 폴란드 국민들의 쇼팽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포터: 쇼팽 박물관 연주회의 구성은 어떠셨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전체적인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허준석: 쇼팽 음악과 더불어 폴란드 출신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그날의 연주자 분께서는 쇼팽음악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쇼팽 박물관 연주회에 방문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음악 애호가라기보다는 여행하는 김에 연주회를 관람하신 분들이 많아보였는데요, 관람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관람 태도가 좋지 못했더라도 클래식을 경험하고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이 이렇게 좋은 음악이었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쇼팽과 클래식 감상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팽에 대한 브랜딩이 잘 되어있는 부분이 바르샤바에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요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리포터: 그렇군요, 쇼팽 연주회는 앞으로도 자주 보러가실 예정인가요?

허준석: 그렇습니다. 와지엔키 공원에서 열리는 쇼팽 연주회도 보러 가려 했으나 날씨의 영향으로 취소가 되어 관람하지 못했는데요, 와지엔키 쇼팽 연주회가 바르샤바 명물인 만큼 꼭 보러가고 싶습니다.

리포터: 그 외에도 폴란드에 살면서 이곳이 쇼팽의 도시, 음악 도시라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허준석: 아까 언급했듯이 공항 등 도심 속에서 쇼팽에 관련된 요소들이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또, 폴란드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바르샤바 근교에 있는 쇼팽의 생가는 폴란드인들이 학교의 체험 학습으로 꼭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국민들이 쇼팽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ㅎㅎ 길거리에서 클래식 버스킹을 많이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리포터: 마지막으로 바르샤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도시인가요?

허준석: 의도하지 않아도 예술이 자연스럽게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음악 도시를 함축하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폴란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쇼팽박물관 쇼팽연주회 © 허준석 님 제공

5 접근성

와지엔키 공원 쇼팽 연주회, 쇼팽 박물관, 음악 벤치, 성십자가 교회 등 쇼팽의 자취와 음악을 함께할 수 있는 곳들은 모두 바르샤바의 트램, 메트로(지하철), 버스를 타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있다. 특히나 와지엔키 공원과 음악 벤치, 성십자가 교회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마음을 먹고 가야하는 장소가 아닌 평소 걷는 거리에서, 가족과 함께 가는 공원에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곳들이다. 박물관 별로 매주 무료입장일이 정해져있는 체계도 시민들의 보다 친밀한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한다.

또한, 바르샤바의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게 갖춰진 것도 접근성에 한몫한다고 느낀다. 바르샤바 내의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트램, 메트로(지하철), 버스 복합 무제한 정기 교통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도시 곳곳에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추가로 바르샤바가 음악 도시로 거듭나는 데에 폴란드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 인터뷰를 진행했다.

라. 시민 인터뷰 4: 프란시스코 진(Francisco Jin)(포르투갈 출신, 바르샤바 2년 거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서울디자인리포터 이미현입니다.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생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바르샤바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란시스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공부를 마치고, 폴란드로 이주하여 벌써 2년째 폴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리포터: 폴란드는 3개월 정기권 등 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느꼈는데요, 현재 버스, 트램, 메트로를 탈 때 어떤 교통권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프란시스코: 저는 주로 은행 앱을 이용하는데요, 보통 단기 승차일 때 20분, 장기 승차일 때 75분짜리 단일 승차권을 구입합니다.

리포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폴란드 교통권의 편리한 점이 있을까요?

프란시스코: 폴란드는 은행 앱에서 표를 사거나, 대중교통(버스,트램)에 탑승한 후에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대중교통으로 바르샤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샤바 전역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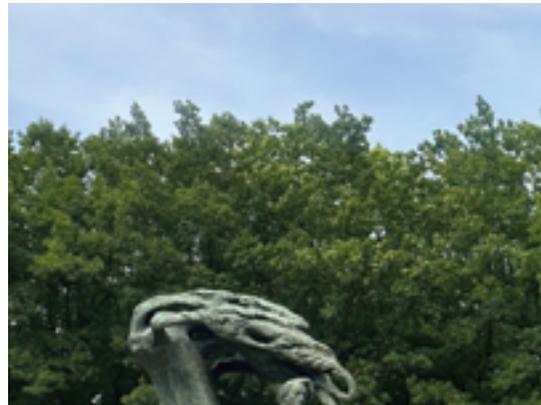
리포터: 자전거나 키포드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프란시스코: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베투릴로(veturillo) 또는 넥스트 바이크(next bike) 앱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소를 갈 수 있는 공공 자전거를 빌립니다.

리포터: 제가 이곳 바르샤바에서 느꼈던 한가지 놀라운 점은, 자전거 도로가 길가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도로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매일 타는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편리하다고 느끼시나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 횡단보도 © 이미현



인도에 조성된 넓은 자전거 도로 © 이미현

프란시스코: 네, 자전거 도로는 매우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보다 자전거 도로가 더 많은데, 꽤 멋진일이죠.

리포터: 폴란드는 자전거나 키포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요?

프란시스코: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리포터: 마지막으로 폴란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프란시스코 씨에게 어떤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프란시스코: 바르샤바는 외국인이 많고, 매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국제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서울 적용 방안

폴란드를 대표하는 음악가 '쇼팽'을 통한 음악 도시 브랜딩은 박물관, 연주회, 거리의 벤치, 기념품샵까지 폴란드 시민들의 일상 한켠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단번에 이곳이 음악 도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바르샤바의 사례는 꼭 유형적인 것만이 도시 브랜딩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음악과 같이 무형적인 매체가 도시 문화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니 말이다.

특히나 바르샤바의 '음악 벤치 사업'이 서울에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적용하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도심 곳곳 15곳의 장소에 위치한 15개의 음악 벤치를 찾아다니는 재미, 벤치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색하게 되는 도시의 풍경과 명소들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바르샤바의 매력에 속 빠지게 만든다. 이처럼 서울 또한 하나의 큰 테마를 설정하여 브랜딩하고, 서울의 다양한 명소와 랜드마크 앞에 설치한다면 이를 찾기 위해 도시 곳곳을 거닐며 서울을 천천히 향유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발걸음이 증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마무리하며

마무리하며, 쇼팽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음악 도시, 폴란드 바르샤바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그로 인한 도시 재건 사업 등 많은 역경을 딛고 아름다운 음악 도시로 거듭난 바르샤바 곳곳을 탐색하고 있으면, 지금의 바르샤바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폴란드인들의 자국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과 노력이 있었을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또한 우리 고유의 것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체성을 현대의 도시 브랜딩 및 도시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고유의 미를 오늘날 하나의 문화로서 대중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가	태국
도시	방콕
분류	도시 브랜딩 / 굿즈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2024년 새롭게 발표한 태국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이현경

태국 방콕의 콘텐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디자인, 예술에 대해 연구하는 커뮤니티 Layer SEA의 파운더이다. 태국의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동남아시아와 디자인'에 관한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작가, 통역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range0322@gmail.com

새로운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 및 연구를 하였습니다. 디자인을 주관했던 태국 방콕의 '팜그룹(Farm Group)' 디자인 디렉터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디자인 제작의 목표와 의도, 디자인 분석으로 이어지며 색상, 로고, 폰트 등 주요 디자인 요소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디자인의 각 요소가 방콕의 도시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또한, 방콕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AILAND, BANGKOK

1 들어가며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Signboard © Farmgroup

태국 방콕 메트로폴리탄 관리청(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이하 BMA)에서 2024년 태국의 새로운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Bangkok City Identity Design)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태국에서 시행된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태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혹시 태국 방콕에도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¹ 2024년 방콕 메트로 폴리탄(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에서 새롭게 선포한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태국 정부가 발표한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첫 번째 사례이다.

2 추진배경

방콕 메트로폴리탄 관리청은 방콕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태국 내 디자인 팀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콕의 디자인 에이전시 중 한 곳인 팜그룹(Farmgroup)이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뉴욕의 'I♥NY' 로고처럼 방콕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오래된 방콕의 상징물을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하고 방콕 도시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디자인적 도전과 과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가 추진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 엠블럼의 디지털 파일이 없어 각 부서가 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콕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콕 메트로폴리탄 관리청은 1973년 왕실 관보에 게시된 버전을 참조하여 새로운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방콕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방콕 메트로폴리탄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일상적이고 활기찬 방콕 도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도시로서 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콕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도 이번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방콕의 슬로건 “City of Life”는 방콕 시청(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에서 도시의 활기와 다채로운 삶의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05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방콕의 문화적, 경제적 활력을 강조하고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슬로건의 변경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방콕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방콕 시청은 지속적으로 도시의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슬로건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발전, 관광 산업의 변화, 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슬로건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콕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방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추어 슬로건과 캠페인을 조정하여 도시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Bangkok City Identity Design가 적용된 방콕 세암(Siam) 주변 © 태국 리포터 이현경



이전의 'City of Life' 방콕 슬로건이 있었던 방콕 세암(Siam) 주변 © LINE TODAY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이번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팜그룹(Farmgroup)의 총괄 디렉터인 탭 크루아완니차킷(Tap Kruavanichkit)을 직접 만나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는 방콕시의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총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되었기 때문에 빠르고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팜그룹의 디자인 팀은 방콕의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총괄 디렉터 Tap은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의 세부사항에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1. 엠블럼(Emblem)² 디자인 측면

특히 엠블럼의 디테일을 해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에라완(Erawan) 코끼리를 타는 인드라(Indra)³의 기원은 나리스 누왓티왕(Narisara Nuwattiwong)⁴ 왕자가 만든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사용해 달라는 방콕 메트로폴리탄 관리청의 요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73년 왕실 관보에 사용된 공식 버전의 엠블럼은 손으로 작업하여 그래픽화했지만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엠블럼 주변에 있던 방콕의 24개 구역을 상징하는 선 또한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50개의 구역으로 세분화 및 확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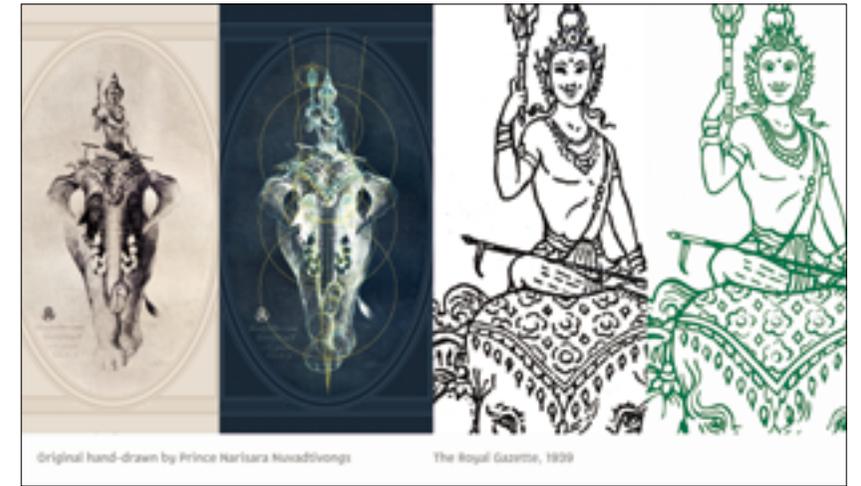
그리고 나리스 왕자가 엠블럼에 적용했던 태국의 도시명인 끄룽텡마하나켄(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태국어 폰트도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예리하게 다듬는 작업과 심볼과의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콕의 기존 엠블럼은 현대적인 용도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엠블럼은 해상도가 낮아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현대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버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방콕의 24개 구역을 상징했던 기존의 선을 재배치하여 각도에 따라 다 다른 의미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들은 방콕 도시 곳곳의 광고 채널, 인쇄 매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픽 모티브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각각의 내용에 따라 이에 맞는 각도를 따르도록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² 상징, 표상, 문장 등을 뜻하는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엠블럼이 맞지만 '엠블렘'도 많이 쓰인다.
출처: <https://namu.wiki/w/엠블럼>

³ 인드라(산스크리트어: इन्द्र)는 힌두 신화에서 날씨와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자 동시에 트리무르티를 제외한 천신들의 왕이다. 불교에서는 제석천(帝釋天)이라고도 불리며 불교의 수호신인 천부 중 하나이다. 인드라는 "아이리바타"라는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바즈라를 비롯해 바사비 사크티, 인드라스트라 등 강력한 아스트라들을 지니고 있다. 인드라의 아내는 인드라니이며 자식으로는 자안타, 발리, 자안타, 아르주나 등이 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인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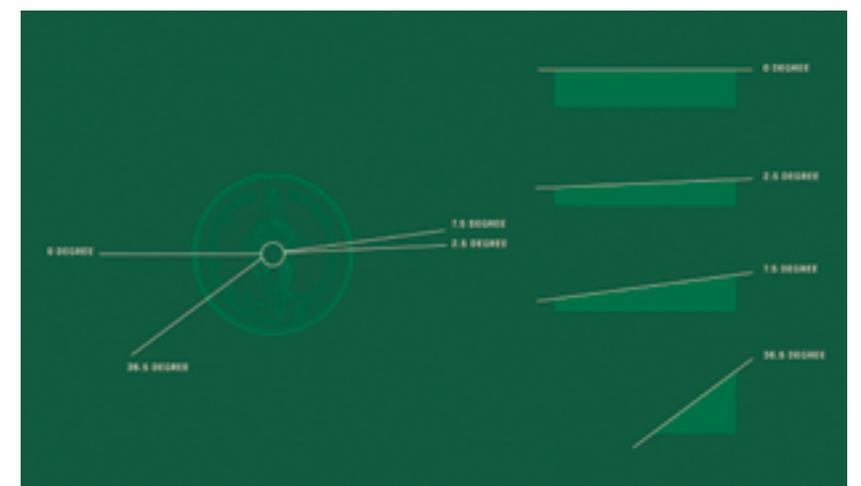
⁴ 시암(현재 태국)의 왕족, 장관, 장군, 학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그는 "시암의 위대한 장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의 탄생 기념일인 4월 28일은 태국에서 "나리스 왕자의 날"로 기념됩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Narisara_Nuwattiwong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Emblem detail_1 © Farmgroup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Emblem detail_2 © Farmgroup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Emblem usage © Farmgroup

2. 폰트(Font) 디자인 측면

5
 싸오칭차(เสาชิงช้า)는 태국 방콕 프라나콘구 상칭차 지구에 있는 종교 구조물입니다. 왓 수타트 앞에 위치한 이 건물은 이전에 오래된 브라만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방콕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Giant_Swing

싸오칭차(Sao Ching Cha)⁵ 폰트는 태국의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고유한 문자 형태와 문화적 상징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폰트는 우아하면서도 읽기 쉬운 디자인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태국 문자 형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뛰어나며,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서체입니다. 폰트를 개발할 때 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Font_Detail © Farmgroup

3. 색상(Color) 측면

색상 체계는 방콕의 일상적인 물체와 중요한 랜드마크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성과 생동감을 표현합니다. 이는 방콕의 독특한 문화를 강조하고, 도시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색상 에메랄드그린(Emerald Green)은 인드라의 신체 색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된 색상을 화면, 인쇄물, 벽의 거리 예술 등 다양한 매체에 걸쳐 적합성이 높도록 다시 한번 색상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색상과 함께 쓰이는 8가지의 서브 색상은 방콕 시민의 행복을 상징하며 주요 색상과 한데 어우러져 태국 방콕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Main color © Farmgroup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Sub color © Farmgroup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Emblem color © Farmgroup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새로운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은 방콕에 살고 있는 시민들 외 방콕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활력을 주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방콕의 새로운 상징 아이덴티티는 방콕을 찾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I♥NY'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그래픽 모티브 디자인(Graphic Motif Design)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그래픽 모티브는 다양한 색상이 함께 어우러진 조합형입니다. 에메랄드그린 색상을 주요 컬러로 활용하지만 이 조합형의 색상도 방콕 도시를 표현하는 색상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상은 공식 문서, 표지판, 홍보 자료 등 도시 브랜드의 다양한 요소에 통합됩니다. 색상의 조합은 방콕 시민과 방콕을 찾는 외국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Graphic Motif © Farmgroup

2) 엠블럼 디자인(Emblem Design) 태국어 조합형

엠블럼은 방콕의 공식 문서, 공공장소, 관광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방콕의 아이덴티티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도시의 상징성과 자부심을 전달합니다.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끼리 심볼은 방콕의 도시 계획과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코끼리 심볼이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방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엠블럼 디자인은 방콕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반영 하는지 설명합니

다. 디자인 요소는 방콕의 상징적인 건물, 지역 특성, 또는 전통적인 상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콕 대도시 행정의 공식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엠블럼은 공공 공간, 공식 문서, 웹사이트 등에서 사용되어 방콕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 색상, 형태, 텍스트,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상징성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Emblem © Farmgroup

3) 폰트 디자인(Font Design)

싸오칭차(Sao Ching Cha) 폰트는 태국어와 영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굵기를 제공하여 디자인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폰트 디자인은 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 디자인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표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Font © Farmgroup

4) 방콕 도시 내 옥외광고

방콕 도시 내 설치된 옥외광고의 예시입니다. 기존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정립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템플릿의 경우는 방콕 메트로폴리탄 관리청의 공무원, 관련 담당자, 일반인들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고 활용도가 좋은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6.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OHH © Farmgroup

5) 어플리케이션 디자인(Application Design)

각종 홍보물에 방콕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접목한 예시입니다. 현재 방콕시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콕 기념품 등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방콕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도시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며 자부심을 갖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방콕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방콕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 요소가 될 것입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Application item © Farmgroup

6) 방콕 도시 관련 광고, 홍보물, 인쇄 매체 디자인

그동안 방콕 도시와 관련된 광고 디자인은 디자인 체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홍보물들이 제작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돈된 레이아웃의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물들이 아카이빙이 되어 방콕의 곳곳에 활용이 된다면 더욱더 정돈된 방콕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Bangkok City Identity Design_Advertising © Farmgroup

5 접근성

시각적 일관성 측면에서 새로운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시각적 일관성을 제공하여 도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공간에서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이는 방콕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방콕을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신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디지털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관광 정보, 지도, 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방문객들이 방콕을 탐색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은 도시의 주요 명소, 교통 수단, 문화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콕의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대중교통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MRT(방콕 지하철), BTS(방콕 지상철),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에서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표현되며, 이는 사용자가 방향을 찾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디자인은 방콕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방콕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전달하며, 동시에 현대적인 편리함과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방콕 시청은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주민 및 관광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디자인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은 방콕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콕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방콕의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서 도시의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 서울 적용 방안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어떤 부분을 서울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콕의 엠블럼 디자인의 경우, 나리스 왕자가 디자인했던 초안을 현재까지도 잘 계승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태국이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국가와 국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한국의 문화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도 옛것을 잘 계승시키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도 경복궁과 같은 아름다운 궁궐들이 많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광화문 등의 소중한 헤리티지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서울 시민과 한국인들에게 대대손손 잘 계승되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중 그래픽 모티브에서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 환경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이는 방콕 도시의 유니크함을 표현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도시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서울 도시 아이덴티티에 적용한다면 서울의 이미지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방콕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욱 긍정적으로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바라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디자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도시 아이덴티티 개발을 하는 데 더욱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7 마무리하며

이번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취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던 총괄 디렉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태국 및 방콕 디자인 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디자인 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발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태국 디자이너들이 한국 디자이너들과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세션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귀중한 자리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방콕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콕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방콕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방콕의 알록달록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다시 방콕을 찾게 되는 도시로서 각인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방콕 도시의 아이덴티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기사 참고 출처

<https://art4d.com/en/2023/12/bangkok-metropolitan-administrations-identity-system>

<https://www.bangkokbiznews.com/lifestyle/art-living/1129239>

<https://farmgroup.co.th>

<https://today.line.me/th/v2/article/j7GEXYg>

https://en.wikipedia.org/wiki/Bangkok_Metropolitan_Administration

<https://thestandard.co/bangkok-city-of-life-landmark/>

LIBRARIES AND ARCHITECTURE

도서관 및 건축물
: 도시 랜드마크 디자인!

VANCOUVER

190

캐나다, 밴쿠버 | 밴쿠버 중앙도서관 (VPL Central)
시공간을 초월한 모두의 커뮤니티, 밴쿠버 중앙 도서관(VPL Central)

HELSINKI

208

핀란드, 헬싱키 | 핀란드 Oodi 도서관
핀란드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이자 모두를 위한 도서관 Oodi

DUBAI

226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두바이 프레임(Dubai Frame)
과거에서 미래로, 두바이의 이야기를 담은 거대한 액자



12



유튜브 영상

국가	캐나다
도시	밴쿠버
분류	도서관 및 건축물

밴쿠버 중앙도서관 (VPL Central)

시공간을 초월한 모두의 커뮤니티, 밴쿠버 중앙 도서관(VPL Central)

안자은
디자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세계 유명 건축물과 디자인을 찾아 떠나니기를 즐기는 여행작가. 일상에 스민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루 갖춘 디자인을 선호하며 환경을 닮은 공간 디자인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바꿔 주리라 굳게 믿는다.
thubi@hanmail.net

밴쿠버에도 콜로세움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공건축물의 재해석이자 오마주,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 기존 과밀화되고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을 개선하고자 밴쿠버시는 유명 건축가 Moshe Safdie의 건축디자인을 채용하여 밴쿠버의 랜드마크, 밴쿠버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콜로세움의 외형을 닮은 파격적인 디자인의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에서 사람들은 공부하고, 먹고, 놀고, 명상하고 친구를 만난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기존의 도서관 개념을 뛰어넘어 공공 도시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시민들의 오아시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CANADA, VANCOUVER

1 들어가며



밴쿠버 중앙도서관 채광 © 안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은 어디일까? 해마다 다양한 기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선정하곤 한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2015년 영국 BBC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0'으로 선정된 이래로, Travel & Leisure 여행 잡지가 선정한 2023 '독서광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Conde Nast Travler '202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들²'에 선정된 자타공인 아름다운 도서관이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유명 건축가 Moshe Safdie, Richard Archambault, Barry Downs가 설계한 파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디자인 건축물로 1995년 개관 이래, 도시의 랜드마크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 37,000 제곱미터 한 블록 전체를 점유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삶의 쉼터이자 여가공간, 만남의 장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또 2018년에는 녹색지붕과 옥상정원이 리뉴얼 과정을 거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면서 더욱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의 개요와 디자인적 요소 및 가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추진 성과를 통해 서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현재의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1995년 개관하였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의 전신은 1957년부터 1994년까지 밴쿠버시 Burrad street에 위치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구, 밴쿠버 중앙도서관 건물은 과밀화, 노후화 되었고, 이에 따라 밴쿠버 시민들은 차츰 새로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990년 '새로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시민투표가 이루어졌고, 69%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로 밴쿠버시는 현재 도서관의 입지인 Georgia st 350번지 부지를 매입하였다.

밴쿠버시는 새로 건립될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의 건축설계 디자인 공모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유명건축가 Moshe Safdie⁴, Richard Archambault, Barry Downs⁵의 제안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해당 디자인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은 매우 파격적인 설계안으로, 당시 밴쿠버가 추진한 최고 예산의 프로젝트였다. 무려 1억 700만 달러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로, 밴쿠버 중앙도서관은 1993년 2월 착공하여 26개월만인 1995년 5월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다.

1 참고자료 <https://www.travelandleisure.com/culture-design/architecture-design/worlds-most-beautiful-libraries-design>

2 참고자료 <https://www.cntraveler.com/galleries/2014-09-02/10-of-the-worlds-most-beautiful-libraries>

2 추진배경³

3 참고자료 <https://www.vpl.ca/story-of-central-library>

4 이스라엘계 캐나다인 건축가로, 몬트리올 엑스포 67 헤비타트 피빌리온, 오타와 국립 미술관, 몬트리올 미술관을 비롯한 캐나다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들을 설계해왔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호텔 수영장도 그의 작품이다.

5 Richard Archambault, Barry Downs는 캐나다 플레이스, 랭글리의 관틀렌 칼리지, 밴쿠버의 인터내셔널 빌리지, 밴쿠버의 YWCA 호텔, 랑가라 칼리지 증축 프로젝트, 브리티시 컬럼비아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등을 설계했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⁶

6 참고자료 <https://www.vpl.ca/story-of-central-library>

7 The Architecture's Newspaper 모세 사프디와의 인터뷰 <https://www.archpaper.com/2013/12/moshe-safdie/>

1. 디자인 정책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 건립은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되었다.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 프로젝트는 밴쿠버 중앙도서관 (VPL Central)뿐만 아니라 연방사무실 타워, 상업 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 프로젝트는 Hamilton, Homer, Robson, West Georgia street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한 블록 전체에서 진행되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의 디자인 철학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 건물들에 둘러싸인 연속적인 광장의 존재이다. 이는 건축가 Moshe Safdie의 'Urban Room(도시공간)'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Urban Room(도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제가 밴쿠버 도서관에서 일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그저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꽃을 사고, 신문을 읽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꺼내 볼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Urban Room(도시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⁷

밴쿠버 중앙 도서관 외관 디자인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파격적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공공 건축물의 재해석이자 오마주로, 한번 보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외관으로 완공되자마자 밴쿠버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건물 외부는 Horsefly, BC에서 채석한 화강암 색상에서 영감을 얻어 사암색 프리캐스트로 마감되었다.

최초 설계안에는 옥상정원(Rooftop Garden)이 포함되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이 계획은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밖에 없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초기 옥상정원 계획은 아쉽게도 첫 개관시, 조경건축가 Cornelia Hahn Oberlander의 지속가능한 녹색지붕으로 대체되었다.

비로소 예산이 확보된 2017년, 20여년 만에 8,9층 리뉴얼 공사가 시작되었다. 최상위 두개층 확장 공사 설계는 기존 건축가인 Moshe Safdie & Associates와 지역 파트너 DA Architects가 다시 맡았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상 정원은 기존 녹색지붕을 설계했던 Cornelia Hahn Oberlander에 의해 마침내 실현되었다. 20여년만에 옥상정원이 일반인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2. 사업 개요⁸

- 9개층
- 37,000 제곱미터(398,000 제곱피트)
- 건물 외부는 사암색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마감
- 건물 전체에 광섬유 백본을 포함, 51km의 케이블 내장
- 각 층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둥 35개
- 좌석 수: 1200석 이상
- 700대 이상의 주차 공간과 11개 자전거 거치대 유닛
-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은 호머, 해밀턴, 롭슨, 조지아 거리로 둘러싸인 도시 한 블록 전체를 점유
-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연방사무실 타워, 소매점과 서비스 시설을 포함
- 도서관 건물 사이 내부 공간을 연속적인 공공 광장으로 조성
- 건물 외벽은 사암색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로 마감
- 건물 색상은 BC주 Horsefly 산(産) 화강암 색상을 채택
- 타원 안의 직사각형 건축물이 중첩된 구조
- 나선형 설계
- 녹색지붕
- 2018년 8.9층 확장 공사로 42,635제곱피트의 공간 추가됨. 옥상 정원, 테라스, 극장, 전시 공간, 회의실, 열람실 확충
- 녹색지붕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1. 추진 경과⁹

1990년	‘새로운 중앙 도서관 설립 여부’에 관한 밴쿠버 시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69%의 찬성으로 밴쿠버 중앙도서관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1991년	밴쿠버시는 350 West Georgia를 중앙도서관 부지로 선정하였다.
1992년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 설계공모전에서 Moshe Safdie & Associates와 지역 파트너 Downs/Archambault의 제안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1993년 1월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총 26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었다.
1995년 5월 26일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이 공식개관하였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2017년 6월 8, 9층 확장 및 리뉴얼 공사가 시작되었다. 기존 설계를 담당하였던 건축가 Safdie Architects와 조경 건축가 Cornelia Hahn Oberlander가 투입되어 각각 확장공사와 옥상정원 공사를 맡았다.

2018년 9월 확장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도서관 최상층 2개층이 대중에게 온전히 공개되었다. 회의실과 유리로 둘러싸인 독서실, 80석 규모의 극장, 전시 공간, 공공 옥상 정원 및 야외 테라스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대중 접근 불가였던 녹색지붕도 옥상정원의 개방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2. 추진 현황

도서관 광장(Library Squa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된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1995년, 공식 개관한 이후 줄곧 밴쿠버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도심 속 시민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공공건축물의 재해석이라고 불려도 될만큼 파격적인 콜로세움을 담은 디자인으로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단숨에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최초 설계안에 포함되었던 옥상정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23년이 흐른 뒤, 비로소 밴쿠버 시민들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기존 녹색지붕과 더불어 옥상정원은 자연친화적인 도심속 시민공간으로 기능하며, 더욱 특색있고 가치있는 공공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의 디자인적 요소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콜로세움을 담은 외관

형태 큰 직사각형의 메인 도서관 건물을 타원형 건물이 나선형으로 감싸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직사각형의 메인 볼륨에는 서고와 인포메이션 부스가 배치되었으며, 타원형 외측 건물쪽 1층에는 은행, 꽃가게, 식당 등 상업시설이, 상층부에는 열람실이 배치되었다. 메인 도서관 빌딩과 외벽 빌딩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따로 또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두 구조물을 연결하는 천장은 유리로 마감하여 자연채광을 최대한 끌어들이었으며,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된 구조물간의 벽면도 유리로 마감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있지만 개방감과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색 사암색으로, BC주 Horsefly지역 화강암 색에서 영감을 얻어 차용하였다.

마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법으로, 사전에 섬세하게 조형된 마감재들을 운송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전경 © 안자은

2) 연속된 광장 설계로 대중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 극대화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직사각형 형태의 메인 건물을 타원형 외벽 건물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타원형 외벽 건물에는 최대한 많은 창문을 내어 실내지만 야외같은 채광을 확보하였다. 메인 건물과 외벽 건물 사이에는 넓은 회랑이자 광장이 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는데, 이 공간은 엄숙한 도서관의 분위기 대신, 시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중요 요인은 1층에 위치한 다양한 상업시설이다. 꽃집, 음식점, 편의점, 은행까지 타원형 외벽 건물에 입점해 있어 도서관 접근에 대한 저항을 크게 낮춘 것이다. 반드시 도서 열람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출입하는 제한된 도서관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약속장소, 은행업무를 위해 머물게 되는 곳, 꽃을 사고 잠시 쉬어가는 곳, 한 끼 식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멈출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속된 광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소소한 공연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인근 학생들의 크고 작은 공연도 넓은 통로광장에서 종종 열리는데, 조용한 지식 탐구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친숙한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상업시설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중앙통로 광장 © 안자은

10
참고자료 <https://www.vpl.ca/guide/vancouver-library-square-architectural-guide/green-roof>

3) 녹색지붕¹⁰

녹색지붕은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자랑이다. 첫 개관 이래 줄곧 녹색지붕은 도서관 역사와 함께 해왔다. 다만, 최초로 조성되었던 녹색지붕은 일반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리뉴얼 공사를 통하여, 녹색지붕이 축소되고 옥상공원이 조성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직접 녹색지붕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유명 조경건축가 Cornelia Oberlander가 설계를 맡았으며, 가뭄에 강하고 유지 관리가 쉬운 BC주 남부가 원산지인 파랑, 녹색의 관상용 잔디와 키니키닉으로 조성되었다.

Irwin, John에 따르면, 녹색지붕은 도시와 환경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녹색 지붕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도시의 바이오매스와 조류 서식지를 늘리고, 공기 중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미기후를 개선하고, 폭우로 인한 유출을 저장, 지연시킵니다. 또한 도시 농업과 원예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건물의 냉난방에 도움을 주며, 도시 열섬 효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¹¹

11
Irwin, John “Green Roofs: A Sustainable Option for Greening Our Cities” *Sitelines* (April 2002): 6-7.



밴쿠버 중앙도서관 녹색지붕1 © 안자은

4) 옥상정원(Rooftop Garden)

2018년 리뉴얼 공사로 밴쿠버시민들은 도심 옥상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야외 녹지공간을 갖게 되었다. 기존 녹색지붕을 설계한 Cornelia Oberlander가 설계를 맡았다.

옥상정원은 역사가 길지 않은만큼, 수목은 크지 않았지만 곳곳에 벤치와 테이블을 비치해, 시민들이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도시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옥상정원은 도서관에서 음식반입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간단한 식사를 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또 홀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는 사람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옥상정원1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옥상정원2 © 안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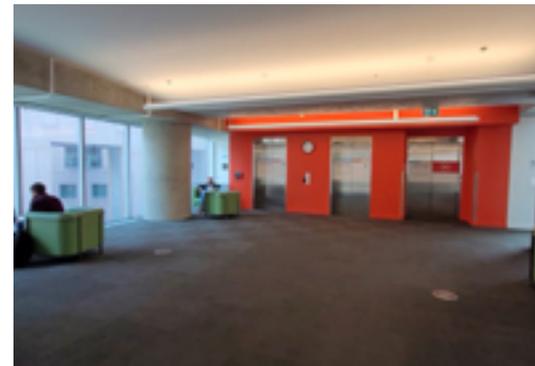
5) 도서관 인테리어의 디자인적 요소

색 도서관 가구 및 집기의 색상 변화가 매우 특징적이었다. 전통적 도서관다운 원목 색상을 기본으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원색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공간에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흰색과 회색 등 무채색의 벽면, 천장과 대비를 이루도록 원색을 사용한 디자인적 감각은 도서관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특히 무채색 배경에, 벽면 중 일부는 빨강색, 그 주위의 초록색 의자 배치는 매우 실험적이었고 신선한 시도였다. 자칫 통일감을 떨어뜨려 산만해보일 수 있는 색상의 조합이지만, 적절한 긴장감과 조화로우며 동시에 충족하며 현대적 도서관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1 © 안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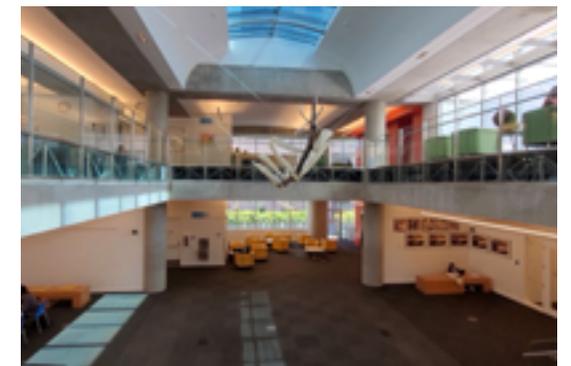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2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3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4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5 © 안자은

형태 도서관 전체의 통일된 기본 가구는 원형 구조의 파란색 시트의 원목 의자였다. 팔걸이와 등받이, 받침대까지 모두 원형으로 제작된 디자인 체어로 시트 부분만 사각형 형태를 띄었는데, 이는 마치 콜로세움을 모티브로 한, 밴쿠버 중앙도서관 (VPL Central)의 외형을 그대로 닮아있었다.

기본 가구인 원형 의자가 전층에 배치된 가운데, 층별로 편의성과 심미성을 갖춘 다양한 디자인 의자들이 함께 배치되었다.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 의자들로 자유로운 울동감이 느껴졌다. 도서관 가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해 도서관 특유의 엄숙함에 경쾌함이 추가되었다.

도서관 8층, 갤러리 옆에서 발견한 독특한 형태의 벤치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창의적인 형태의 의자였다. 원목색 벤치 형태를 띤 이 의자 좌석 중, 일부에는 구멍이 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벽면에 등을 기대고 앉아 구멍 밖으로 다리를 뻗어 벤치를 테이블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형태와 기능의 벤치 개념을 뛰어넘은 기능성과 활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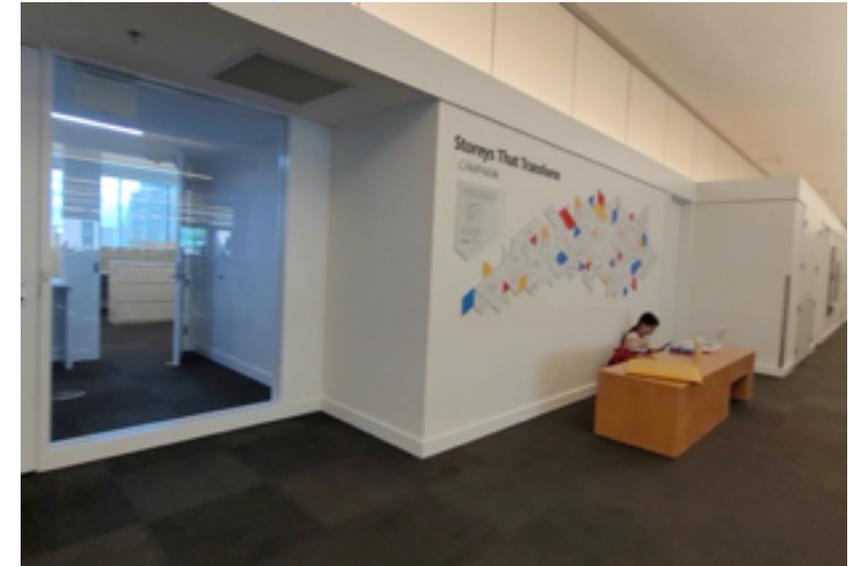
밴쿠버 중앙도서관 가구5 © 안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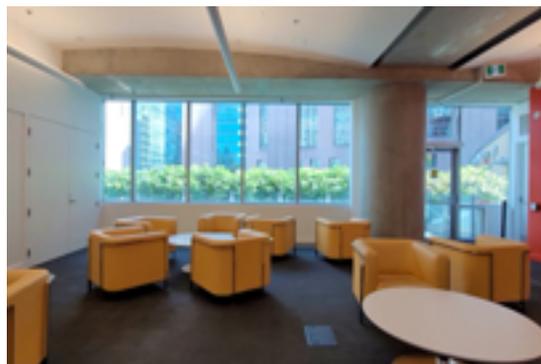
밴쿠버 중앙도서관 가구1 © 안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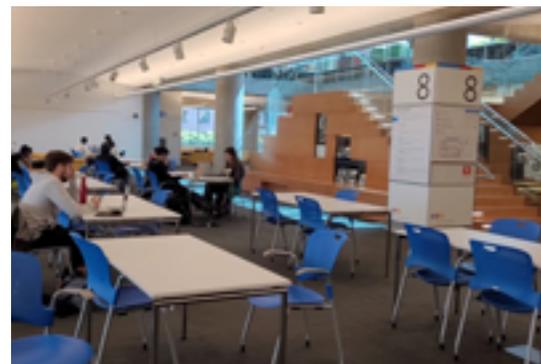
밴쿠버 중앙도서관 가구2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가구6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가구3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가구4 © 안자은

6) 고전과 모던의 믹스매치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의 다소 고전적 외형과 달리, 때때로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실내 천장과 벽면, 원형 기둥을 만날때면 그 의외성에 다소 놀라게된다. 하지만 클래식한 외관도, 무심하게 모던한 마감재도 모두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도서관이 되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마감1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실내마감2 © 안자은

7) 자연채광과 개방성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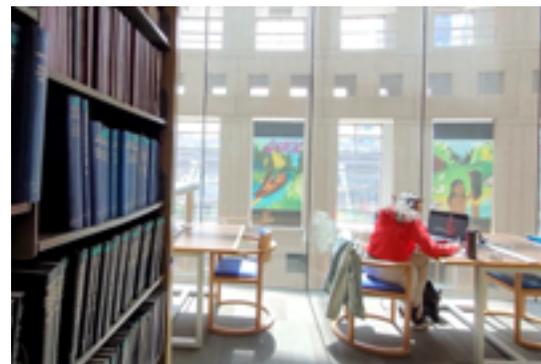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자연의 빛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었다. 메인 건물과 메인 건물을 둘러싼 타원형 건물 사이 천장을 유리로 마감하여 하늘이 그대로 노출된다.

사람들이 통로이자 광장으로 이용하는 도시광장으로 햇살이 그대로 쏟아져내려 실내 외 공간 구분이 모호해진다. 실내지만 실외같은, 실외같지만 실내인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모두의 공공광장이 완성되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타원형 건물에 최대한 많은 창을 내어 자연광이 쏟아져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메인건물의 벽면을 모두 유리창으로 마감하여 두 건물의 경계를 허물고 개방성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실내 열람실이지만 자연채광이 최대한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덕분에 에너지 효율성은 높아지고,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되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채광1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채광2 © 안자은

8) 따로 또 같이, 스카이 브릿지

서고는 직사각형 중앙에, 열람실은 스카이 브릿지 너머 타원형 홀에 집중배치하여 공간활용에 선택과 집중을 적용하였다. 떨어져 있는. 두 건물을 층층이 연결한 것은 투명한 유리 로 마감된 스카이 브릿지이다. 상대적으로 좁고 길다란 면적의 타원형 외부 건물 공간에 책상을 일렬 배치하여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꾀하였다.

스카이 브릿지만 건너면 바로 메인 건물의 서가를 이용할 수 있고, 떨어진 건물이지만 양쪽 모두 유리마감 오픈된 구조로 설계하여 시야의 개방성과 채광은 최대로 확보하고 기능성도 높은 점이 매우 주목할만 하다.

9) 스카이라인 뷰

옥상정원 뷰는 노스밴쿠버를 바라보도록 설계되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 옥상정원에서는 캐나다 밴쿠버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CANADA PLACE와 밴쿠버 마천루들이 한 눈에 보인다. 바쁜 도시 한 가운데의 오아시스임을 실감하게 되는 도심뷰가 이질적이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밴쿠버 중앙도서관 스카이 브릿지1 © 안자은



밴쿠버 중앙도서관 전망1 © 안자은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1. 커뮤니티의 중심

전통적인 도서관을 뛰어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중심 공간이 되었다. 각종 행사와 교육프로그램, 문화활동을 주최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다 하고 있다.

3. 혁신적 건축

시공간을 초월하는 독특한 건물 외관과 개방적인 내부 건축 디자인은 도서관 건축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5. 친환경 건축

자연채광, 녹색지붕 및 옥상정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2. 문화적 랜드마크

밴쿠버 도심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원형 콜로세움을 닮은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경관을 형성한다.

4. 도시 재개발

밴쿠버 다운타운 도시 재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건립된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덕에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도시 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6. 지역 경제 부흥

도서관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인근 상점, 식당 등 상업시설 이용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였다.

1)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

밴쿠버 도심 변화가인 Homer, Hamilton, Robson and Georgia Streets로 둘러싸인 블록 전체에 위치한다.

- 35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B 6B1 Canada

2) 넓은 주차공간

- 700대 이상의 주차구획이 도서관 지하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으며 유료로 운영된다.
- 도서관 주변 유료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
- 장애인 주차 구획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배정되어 있다.

3) 대중교통 접근 용이

- 인근 10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중이다.
- 스카이 트레인 역이 도보 7분 거리로, 2개의 노선이 지난다.
City Centre (Canada Line)역과 Stadium Stations (Expo Line / Millennium Line)역

4) 자전거 이용 용이

- Homer Street에 자전거 공유 도로가 있으며, 자전거 거치대가 남쪽, 북쪽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5) 건물 접근성 및 편의성

- 각종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 높이 조절 가능한 책상
-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모바일 기기 사용이 가능한 책상
-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지하 주차장
- 산책로로 통하는 입구 자동문
- 옥상공원, 미팅룸, 세미나실, 공연장, 상업공간 (식당, 은행 등)
- 8, 9층의 야외 공간은 자동판매기를 갖춘 식음료 허용 공간

6 서울 적용 방안

밴쿠버 도심에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이 있다면, 서울시 도심에는 옛 서울시청사 건물을 개조하여 2012년 개관한 서울도서관이 있다.

2012년, 서울시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 건물에 개관한 서울도서관은 1926년 준공된 등록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허브,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책 읽는 서울 등 3개의 키워드를 표방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과 비교해보았을 때,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에는 건축가 Moshe Safdie의 ‘도시공간’ 철학이 오히려 스며있는데,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에는 있지만, 서울 도서관에 없는 ‘도시공간’을 서울도서관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지식정보의 창고를 뛰어넘어 언제든지 부담없이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꽃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곳, 도서관 그 이상의 도시 공간으로서의 고려가 서울도서관에 필요하다.

비록 서울도서관은 현재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과는 다르게 책을 찾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 이외의 시민들은 굳이 시간을 내어 찾지 않는다.

반드시 서고와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심리적 장벽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서울 도서관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의 다소 엄숙한 도서관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실내에 유치하고, 서고와 서고 사이에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편안한 광장 라운지를 도입하면 좋겠다. 더불어 경쾌하고 감각적인 분위기의 가구와 인테리어로 누구나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외부 서울광장과는 별개로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친구를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편안한 실내외의 중간쯤되는 완충적 광장으로서의 라운지가 존재한다면 서울도서관의 공공성은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서울 도서관은 이미 많은 유동인구와 편리한 교통, 넓은 광장을 갖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많은 시민들이 서울도서관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존재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접근성¹²

¹² 참고자료 <https://www.vpl.ca/location/central-library>

가. 시민 인터뷰 1

(도서관 옥상정원에서 컴퓨터 작업 중인 한 남성 시민과의 인터뷰이다.)

리포터: 안녕하세요.

시민: 안녕하세요.

리포터: 얼마나 자주 이곳에 오시나요?

시민: 한 달에 한 두번 꼭 도서관 옥상정원을 방문합니다.

리포터: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시민: 저는 직장인입니다.

리포터: 회사원이 시간을 내어 오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시민: 저는 회사 휴가를 내고 주로 평일에 주로 옵니다.

리포터: 이 곳 옥상정원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옥상정원을 이용하고 느낀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우선, 이 곳 옥상정원은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도시의 소음과 바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으니까요.

리포터: 도서관을 이용하고 느낀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도서관도 도시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크죠. 저를 비롯한 이용객들은 이 도서관 덕분에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도서관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도 있고요. 전시회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지요. 또 도서관은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와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됩니다.

리포터: 도서관의 열혈 팬이시군요!

시민: 네, 물론입니다. 전 밴쿠버 도서관이 대중에게 옥상정원을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민: 혹시 'Third Space(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리포터: 네? 제게는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설명해주시겠어요?

시민: 흔히 제 1장소는 집, 제 2장소는 직장이나 학교를 지칭합니다. 제 3의 장소는 제1, 2의 장소를 제외한 사회적 주변환경을 말해요. 가령 예를 들면, 교회, 도서관, 체육관, 공원, 카페 같은 곳들이죠.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즐기 위해 이 제3의 장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3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자들이 제3의 장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3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과 여흥을 즐기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자들의 사회적 고립도 심화되고요.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밴쿠버 중앙도서관은 모두가 허들 없이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무료 제3의 장소로 활짝 열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옥상 정원을 즐기고, 공연을 보고, 친구를 사귀고, 책도 빌려읽을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공의 공간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무료 공간들이 계속 존속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시민 인터뷰 2

(옥상정원 벤치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는 한 여성 분과의 인터뷰이다.)

리포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디자인재단 글로벌 리포터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시민: 안녕하세요. 네, 짧게 가능합니다.

리포터: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시민: 저는 눈을 감고 명상 중이었어요.

리포터: 그러셨군요. 얼마나 자주 이 곳을 방문하시나요?

시민: 저는 일주일에 한 두번 이 곳을 방문합니다.

리포터: 주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 책을 읽으러 와요. 또 책을 읽는 중간중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때 옥상 정원에 앉아 명상을 합니다.

리포터: 그러시군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마무리하며

밴쿠버 중앙도서관(VPL Central)은 콜로세움을 닮은 독특한 외관으로 완공부터 지금까지 밴쿠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적인 내부 공간 활용과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한 공간 설계가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만큼이나 특징적이다. 밴쿠버 중앙도서관은 또한 공공건축물의 환경적 책무성에 대한 새 지평을 열었다.자연채광을 극대화하고 옥상정원과 녹색지붕을 갖춤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엄숙한 기존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모두의 커뮤니티로서의 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어떤 장애물 없이 부자에게도 빈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으로, 따로 또 같이 즐기고 소통하는 교류와 휴식의 장이 되었다.

실험적인 인테리어 컨셉과 재료 및 색상의 믹스매치와 베리에이션도 디자인적 측면에서 눈 여겨볼만하다. 천편일률적인 도서관의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공공도서관의 엄숙함에 경쾌함을 덧입히는 시도들로 시민들이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되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내외부 디자인 속에서 건강한 모두의 커뮤니티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밴쿠버 중앙도서관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도시에 영감을 불어넣는 주요 공공 건축물로 오늘도 그 자리에 우뚝 서있다.



국가	핀란드
도시	헬싱키
분류	도서관 및 건축물

핀란드 Oodi 도서관

핀란드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이자 모두를 위한 도서관 Oodi

이주현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핀란드의 디자인을 경험하였다. 공공디자인과 지속가능한디자인 그리고 미술정책에 관심이 있다.
leeju@snu.ac.kr

핀란드 헬싱키 중심부에는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도서관 Oodi가 있습니다. 유모차와 함께 온 가족부터 안내견을 동반한 이용객, 작업실이 필요한 학생 등 모두가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문화생활과 창작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Oodi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기타를 치며 음악을 만들고 체스를 두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타파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모든 이용객을 위한 디자인을 실천한 Oodi 도서관을 생생하게 담아보았습니다.

FINLAND, HELSINKI

1 들어가며



Oodi 전경 © 이주현

¹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12월 5일 정부 주도로 건립되었다. 중앙 도서관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8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Claes Andersson에 의해 제시되었고 10년 후 계획이 시작되었다. 최종 설계는 ALA Architects에서 담당했다.

모두를 위한 도서관 Oodi(Helsinki Central Library Oodi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odi는 핀란드 헬싱키 중심부에 위치한 새로운 만남의 장소이자 복합 문화 공간 도서관입니다.

2018년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Oodi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합니다. 작업하는 공간과 휴식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해내며 모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310만명의 방문객을 모으고 2024년 3월 천 번째 방문객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생동감 있고 기능적인 만남의 장소로 역할합니다.

2 추진배경

² Oodi는 독립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므로 2015년 1월 28일 헬싱키 시의회에서 Oodi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주정부에서도 3,0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Oodi 도서관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8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Claes Andersson이 제시한 아이디어이다. 2015년 1월 28일 시의회는 도서관 건설을 승인했고 설계는 ALA Architects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비용은 9,800만 유로²였다. 도서관의 크기는 약 17,250 평방미터이며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 100주년인 2018년 12월 5일 개관을 목표로 하였고 2016년부터 시민들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³하며 이름 공모를 받는 등 개관 준비 단계 부터 시민 참여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³ 2016년 9월 26일에 공개 된 Oodi 도서관 건설 진행 브리핑 - Oodi 웹사이트 참고 <https://oodihelsinki.fi/en/how-is-the-central-library-coming-about/>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헬싱키 중앙도서관 Oodi는 핀란드 시립 도서관의 37개 지점 중 하나이다. Oodi는 헬싱키 중심부 Töölönlahti 지역의 Kansalaistori 광장에 위치를 잡았고 의회 건물 바로 앞에 건설되기로 했다. 이것은 의회 바로 앞에 자리잡은 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동등한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며 평생 학습, 적극적인 시민, 자유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서관은 시민이 소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공의 장소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잡았다.

사업이 추진되던 2012년 Unel-moi! 캠페인을 통해 Oodi 도서관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았다. 미래 방문객이자 이용객이 될 주민들로부터 2,3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출 받았고, 주민들이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4개의 시범 아이디어를 결정할 수 있었다. Oodi라는 이름도 주민이 제안한 것을 기반으로하여 선택되었으며, 도서관 이름 공모전에서 1,600개 이상의 제안을 접수 받았다. Oodi는 핀란드어로 '찬가'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또한 Friends of the Central Library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도서관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28명의 미래 사용자가 개발자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 서비스와 기능 및 이벤트 아이디어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도서관을 사용할 핀란드 헬싱키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자유와 주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Oodi 도서관의 주된 디자인 정책 중 하나는 접근성 디자인인데, 모든 방문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성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접근성, 청각적인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을 모두 고려했다. 이는 본 보고서의 5. 접근성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4 추진 현황과 결과

헬싱키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장애물 없는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Oodi 도서관에 모든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설계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현재 Oodi에는 10만개의 서적이 도서관에 위치하여 있으며, 2024년 기준 64명의 직원이 Oodi에서 일하고 있다. 9그루의 나무가 도서관 안에서 자라고 있으며 2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주 7일 운영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넓은 운영시간을 통해 방문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제약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1층과 3층 모두 도서관 카드 없이 출입이 가능하며, 누구에게도 열려있어 시설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2층과 3층의 공부 공간을 포함한 공용 공간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특정 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Helmet 도서관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며, 이것은 37개의 Helmet 도서관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을 예약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간은 점자 표지판과 청각 보조 시스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를 갖추고 있다. 누구나 해당 공간이 어떤 공간임을 알 수 있고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1층 시설

1층에는 영화관 및 다목적 홀 같은 공공 시설과 대형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장소가 위치해 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위치하여 방문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도우며 퀵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위치시켜 보다 빠르게 대여한 도서를 반납하고 새롭게 도서를 대출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유모차를 주차해둘 수 있는 공간과 체스를 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시민들의 만남의 장으로도 역할 한다.



1층 도서 © 이주현



체스 © 이주현



도서 반납 © 이주현



공부공간 © 이주현



대형회의실 © 이주현



2층 전경 © 이주현

2층 시설

2층은 워크숍과 학습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워크숍을 열 수 있는 공간과 4~6인의 회의 공간 부터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열 수 있을 만큼의 넓은 회의실 및 그룹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Oodi의 2층은 단순히 공부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콘솔 게이밍룸, 녹음 스튜디오(노래부스, 녹음 스튜디오, 드럼, 신시사이저, DJ, 어쿠스틱 악기 등) 부터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도 구비되어 있고 워크숍을 열수 있는 그룹 주방과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UV프린터, 대형 이미지 프린터, 열프레스, 재봉틀 공간, 뱃지나 에코백 제작 공간 등을 운영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층 공간

3층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도서를 만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크기의 의자, 소파가 도서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을 따로 뺀 것이 아니라 3층 한켠에 크게 자리잡아 두어 자녀와 부모 모두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카페도 위치하고 있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3층은 자연광과 인공광이 적절히 섞여 Oodi 도서관의 천장 디자인을 더욱 극대화 시키며 실제 살아있는 나무를 배치 시켜 이 공간을 더욱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책을 발코니에 나가서 전망을 보며 읽는 것도 허용되며, 모든 도서관 서가의 배치는 휠체어로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넓게 설계 되었다.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자와 아이들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을 빌리는 기계가 두 가지 높이로 제작되어 있다. 의자를 놓지 않아 성인은 서서 기계를 이용하고 휠체어 이용자는 책상 밑으로 휠체어를 굴러 넣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낮은 기계 앞에서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책을 직접 빌릴 수 있다. 어린이 이야기방(Children's story room)을 3층 북쪽에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고 부모와 함께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3층 전경 © 이주현



3층 전경 © 이주현



어린이 서가 © 이주현



3층 전경 © 이주현

모두를 위한 도서관

Oodi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차별과 인종차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도서관을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고 한가로이 머무는 것을 허용한다. Oodi의 시설은 조용한 활동부터 아주 시끄러운 활동까지 지원할 시설 준비를 갖췄으며 기본적인 독서 활동 부터 컨퍼런스와 요리 수업이나 재봉틀 수업과 같은 워크샵 활동도 존중한다. Helmet 도서관 카드를 소지하고 Varaamo 웹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누구나 Oodi의 시설을 살펴보고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이며 특정 프린팅(ex. 3D 프린터 이용 1회당 0.7유로) 사용료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특정 구역을 제외하고 Oodi의 거의 모든 장소에서 도시락을 직접 가져와서 먹는 것이 허용된다. 베이비 키어를 설치하여 이유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구비했다.

공공예술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Oodi 내부에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흥미롭고 아름다운 공공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Otto Karvonen의 헌신(Omistuskirjoitus)이라는 이름의 작품은 Oodi의 중앙 나선형 계단으로 Oodi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은 공공 계단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도서관이 사람들의 출신, 나이, 부 또는 기타 요인에 관계 없이 도서관이 모든 사람의 소유임을 상기시키고자 하였고 이 공공예술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랐다. 나선형 계단에 쓰인 핀란드어 단어는 무작위로 생성되었고 특정 방향으로 읽힐 수 있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단어끼리 다양한 연결점과 유사점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닌 사용자에 따라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생성되었다. 또한 Jani Ruscica의 영상 작품 희망은 깃털이 달린 것(Toivo on höyhenpukuinen)이라는 작품은 Oodi를 방문하는 또다른 방문객인 박새, 지빠귀, 청둥오리 등이 Oodi 건축으로 인해 등지를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튼 것에 영감을 얻었다. 16초에서 34초 분량의 짧은 9개 영상 작품 속 새들은 도서관 내 건축 공간을 돌아다니고있다. 헬싱키에 거주하는 주민 6명(Ai Weiwei, Emma Helle, Jouko Korkeasaari, Janne Martola, Vesa-Pekka Rannikko 및 Joakim Sederholm)으로 부터 나온 총 6개의 작품이 Oodi 도서관 곳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을 도서관에 설치했고 핀란드 출신 디자이너들(Laura Merz, Aamu Song, Johan Olin, Marika Majjala, Piia Keto, Matti Pikkujämsä, Sakke Yrjölä, Jenni Rope)이 대형 아트 리그를 7개 제작하여 도서관에 설치했다.



계단 © 이주현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Oodi 도서관은 핀란드 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공공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를 한 사례이자 모범 사례가 되었다.

1. 모두에게 열려있는 접근성 디자인으로 사회적 통합 촉진

다양한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 디자인으로 사회에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평등의 메시지를 앞세워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소외된 계층의 참여를 증진 시켜 모두가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 시민 커뮤니티, 시민 문화공간, 시민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

여타 도서관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며 주도적으로 도서관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서관을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 문화의 공간이자 배움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인정 받는다.

3. 국제적 인지도 고취

Oodi는 2019년 국제 도서관 연맹(IFLA) 등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의 공공 도서관 상'을 수상했다. 또한 같은 해에 헬싱키 시 건축상과 핀란드 목재 건축상 및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현대 건축물에 수여되는 유럽연합 현대 건축상의 최종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국제적으로 건축 및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4. 매해 높은 방문자 수와 핀란드 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

2018년 12월 개관한 Oodi는 개관 첫 해 4개월만에 1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350만명이 방문하였고 코로나때는 증가세가 감소했으나 2023년에 회복하여 25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을 모았다.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하여 2024년 3월 17일 천만 번째 방문객이 Oodi 도서관을 찾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Oodi는 핀란드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방문객 수가 이 시설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필요했음을 입증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도서관에 반영한 것 또한 Oodi 만의 서비스와 디자인을 완성시켜 독보적인 공공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왔다고 볼 수 있다. Oodi는 헬싱키 모든 도서관 중 가장 긴 개장시간을 갖고 있고 이 또한 많은 방문객이 도서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매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5.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 예술품에 헬싱키 주민들과 핀란드 출신 디자이너의 작품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꾸며 방문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시민들의 도서관 주권을 높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도서관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6. 교육에 기여

도서관의 이벤트와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것은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Oodi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들이 학습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배움의 장을 제공했다. Oodi에 기록 된 2023년 총 대출 건수는 519,904건으로 37개의 Helmet 도서관 중 가장 높은 대출 건수를 확보했다.

7.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및 에너지 효율 설계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축 설계를 하여 에너지 확보를 하였고 울창한 삼림을 가진 핀란드의 대표 목재인 가문비 나무(Spruce)를 활용하여 건축 측면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했다.



나무 © 이주현

입구

Oodi 도서관의 입구에서부터 접근성 디자인을 만나 볼 수 있다. 정문, 남쪽 입구, 북쪽입구 모두에 접근성 디자인이 적용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정문(Kansalaistori)으로 가는 길은 매끄럽고 넓게 정돈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모션 센서가 자동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푸시 버튼이 존재하여 휠체어 이용자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남쪽 입구(Eero Erkonkatu)에는 사운드 비콘(Sound beacon)을 설치하여 시작장애인과 시각자 모두 입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운드 디자이너 Aki Päivärinne와 핀란드 시각 장애인 연맹의 대표가 포함 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사운드 비콘을 완성했다. 남쪽 입구의 사운드 비콘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방향을 찾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핀란드 지역의 특성상 혹독한 겨울에 시각장애인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점자블록이 눈에 덮혀 지팡이로 짚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파악한 결과다. Oodi의 사운드 비콘은 2020년 수정 되었는데, Oodi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도서관의 주도적인 이용자인 시민들의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운드 비콘은 주변 다른 소음과 달리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하지만 방해 되는 소리는 아니어야하고, 경고의 소리가 아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즐거운 소리를 담아야한다는 것 그리고 시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명확한 소리를 전달해야한다는 것을 고려해 신나고 바운스한 Oodi만의 사운드 비콘이 재탄생했다. 남쪽 입구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북쪽 입구(Töölönlahdenkatu) 역시 매끄럽고 넓은 길로 디자인 되었으며 모션 센서와 푸시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



유모차 주차 © 이주현



히어링루프 © 이주현



2층 점자지도 © 이주현



3층 점자지도 © 이주현



1층 표지판 © 이주현

보조 장치/보조 인원

실내에는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어디 있는지 리프트와 화장실은 어디있는지 알 수 있게 유도했고 계단 접근을 경고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또한 촉각 지도를 각 층에 모두 도입하여 모든 시설 정보를 점자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안내를 점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지도 자체도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 각 층의 계단 손잡이에는 점자로 안내가 되어 있어 손잡이를 잡으면 어느 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갖춘 리프트가 구비 되어 있다. 무장애 경로를 만들어 휠체어 이용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각 층에 모두 마련되어 있다.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에는 청각 보조 시스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소음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의 소리를 더 깨끗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소리를 증폭시키고 명료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변 배경 소음이나 반향음을 최소화 하고 도서관의 강연, 워크숍 등에 참여할 때도 중요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참여에 제약이 없고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한다. 또한 도서관 내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수화

통역 서비스와 자막 제공을 하는 등 모두가 도서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접근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방문객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Oodi에는 안내견 출입이 허용된다. 안내견을 동반한 모든 방문객이 안내견이 들어오지 못하여 도서관 이용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한다. 휠체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방문객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디지털 접근성

Oodi의 웹사이트는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다.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v2.1의 레벨 AA에 따른 법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발했다. 화면 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웹사이트 속 모든 텍스트와 콘텐츠를 지원하여 시각 장애인이 음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기술이나 콘텐츠가 변경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수정한다. 웹사이트에 접근이 불가능한 콘텐츠가 있거나 접근성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피드백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미 구현된 접근 가능한 서비스도 접근 가능한 형식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핀란드 행정 기관에 불편 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명시했으며 행정기관에 제기할 자세한 방법과 지침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 편의성

Oodi는 헬싱키 지역 Helmet 도서관 네트워크에 속해있어 Helmet 도서관 카드 단 한 장으로 Oodi의 모든 서비스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Oodi에서 빌린 자료는 모든 Helmet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 시켰다. 10만권의 책, 잡지, 신문, 악보, 영화, 게임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Helmet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Oodi에서도 빌려볼 수 있도록해 10만권의 Oodi 도서자료뿐만 아니라 Helmet 도서관 약 350만 개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 1층에 모바일 기기 충전소를 설치해 휴대폰 충전의 편의성을 높였고 각 층에서도 손쉽게 전원 소켓을 발견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개인 기기를 제약 없이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무료 개방형 Wi-Fi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그룹 및 Oodi 단체 방문객을 위해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셀프 가이드 투어도 제공하여 방문객이 독립적으로 도서관을 탐험할 수 있게도 하였다. 웹사이트 VR로 가상 투어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면서 Oodi 투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져왔다면 Seppo.io에 접속하여 ‘Player’로 로그인한 뒤 ‘38BE4F’를 입력하면 게임을 하면서 도서관을 탐방할 수 있다. ‘Plater’로 아이디를 입력 한 뒤 코드를 ‘1F114F’를 입력하게 되면 Oodi의 공공 예술에 대해 탐험할 수 있다. 조각품, 비디오 아트 작품, 나선형 계단 속 설치물 등을 게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Oodi 도서관의 책 선반은 4층이 넘지 않는다. 최대한 모든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만 책 선반을 쌓아 소외되는 책이 없도록 하였고, 휠체어 이용자나 청소년도 손을 뻗어

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최대 4층의 선반을 쌓았다. 이는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Oodi 도서관의 탁 트인 개방감과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다양한 공간과 경험 제공

Oodi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다. Oodi에서는 디지털 아트를 전시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소규모 및 대규모 미디어 아트 전시회와 이벤트를 조직할 수 있고 디지털 아트 워크숍을 계획하는 것 부터 미디어 아트 상영까지 예술적 용도에 적합한 다양한 기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시 가능 시간과 적합성은 이메일(oodi.tilat@hel.fi)으로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헬싱키 중심부의 훌륭한 위치에 있는 Oodi는 공간 임대 장소로도 단연 최고다. 다양한 크기의 이용 가능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조직할 수 있다. 세미나, 회의, 그룹워크, 저녁식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하며 자체 케이터링 서비스도 도서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Oodi측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와 강의 및 워크숍은 무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인형극 같은 관람 가능한 이벤트 부터 노인 디지털 지원 강의 세션, 사운드 아트 설치물 배우기, 문학 읽기, 마스터클래스 프로듀서 워크샵 등을 국한되지 않은 이벤트를 제공한다. 특히 이 이벤트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는 시간을 피해 오후 늦은 시간에 열리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배우고 Oodi 시설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핀란드에서 열리는 행사이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접근 가능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6 서울 적용 방안

1. 접근성 디자인 추가 적용

사운드비콘을 적용한 사운드 디자인과 휠체어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배치(도서관의 경우 충분한 간격의 서가 배치 등) 그리고 히어링 루프 적용 공간의 확대와 디지털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된 웹사이트 디자인을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안내견 동반 방문객에 대한 허용과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꼭 공공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만 적용되는 접근성 디자인이 아닌, 서울시 전반의 공공 시설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공공 작품 설치 방안 확대

공공 시설에 유명 작가의 작품이나 시설과 관련이 없는 작품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서울 지역 주민의 작품을 공모 받거나 관련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여 다양한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4 Oodi 도서관 VR투어, 영어/핀란드어/스웨덴어 제공 <https://360.northmanvr.com/F1utgPQ3E0/12117835p&6.11h&89.76t>

3. 영어 운영 프로그램 확보 및 증대

놀랍게도 핀란드에서 핀란드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생활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해 단 한번도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경험은 영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지난 시간보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서울수도 공공 영역에서 영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확보해나가 공공 서비스에 소외감을 느끼는 서울에 사는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주민이 줄어들어야 한다.

4. 제약이 없는 도서관 서비스 이용 가능 도서관 지정하기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만 열려있거나 제약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Oodi 처럼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모두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도서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어떨까 생각되었다.

5. 점자 지도 디자인 및 사이니지 등 정보 디자인 요소 벤치마킹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꼭 미적인 요소를 배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도 디자인과 도서관 사이니지 등 정보 디자인 요소를 벤치마킹 하여 적용할 수 있을 듯 하다.

6. 아이와 부모 친화적 도서관 조성

Oodi 도서관은 넓은 실내 유모차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이유식을 먹어야하는 아기들을 위해 전자레인지와 구비한 베이비 케어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이 읽을 책이 놓여있는 서가와 아동 서가를 층으로 구분하거나 크게 나누지 않고 같은 층에 위치하게 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도서관 서비스를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한 점도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느껴졌다.

7. 도시 경관과 어울리며 서울의 특색이 드러나는 외관 디자인

Oodi 도서관의 건축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핀란드에서 가장 많이 있는 산림 목재 중 하나인 나이지 특색이 있는 가문비나무를 활용하여 외관 전체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 되었다. 이렇듯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졌거나 건축적 효율성을 가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디자인을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내포하고있는 공공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7 마무리하며

Oodi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첫날, Oodi 도서관의 디자인적 우수성에 감탄하던 스스로를 떠올리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핀란드 건축의 묘미가 여실히 드러나는 멋진 공간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고 효율성과 세심하게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에 굉장히 놀랐다. 서울디자인리포터의 기회를 통해 더 자세하고 생생히 Oodi 도서관을 담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Oodi의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디자인 사례는 공공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뛰어넘어 시민들의 창의성과 배움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사료된다. Oodi 도서관은 도시 계획과 공공 공간 설계에 있어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성과 접근성 모두를 세심하고 균형 있게 고려했고,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시와 이 시설을 가장 가까이서 사용할 시민들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디자인을 펼치면 어떨까 상상하게 만들었다.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 도서관이 이토록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에 디자인적 우수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정부 주도로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장려하고 공모를 받아 ‘진짜 그 공간을 향유할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공간을 조성했음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공간의 주인들이 평등하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려면 시민 참여형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지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고, Oodi 도서관에서 얻은 영감과 교훈이 서울의 새로운 공공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선에 도움되어 반영되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의 공간이 서울에도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서울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서관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14



유튜브 영상

국가	아랍에미리트
도시	두바이
분류	도서관 및 건축물

두바이 프레임(Dubai Frame)

과거에서 미래로, 두바이의 이야기를 담은 거대한 액자

엄혜선

두바이에서 6년간 거주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유의 시각을 형성해 가고 있다. 두바이의 빠른 발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이 도시의 다채로움에 깊이 매료되었다.

Art History and Museum Studies 석사 재학 중이며,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haley28@kakao.com

두바이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두바이 프레임은 이 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높이 150미터 폭 93미터의 거대한 액자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의 전망대는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전망대의 한쪽에서는 두바이 크릭과 같은 구시가지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는 부르즈 할리파와 같은 현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자부심과 혁신을 대표하고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바이의 변화를 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바이 프레임, 두바이 프레임 구석 구석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UAE, DUBAI

1 들어가며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건축물과 랜드마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상징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소속감을 심어준다. 특히, 현대 도시에서의 랜드마크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바이 프레임은 현대적 공공 랜드마크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은 2018년에 완공된 두바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높이 150미터, 폭 93미터의 거대한 액자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구조물은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며,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프레임의 상단 전망대에서는 두바이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하부 전시관에서는 두바이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와 기능적 특징들은 두바이 프레임을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도시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본 보고서는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 및 건축 과정을 분석하고, 이 랜드마크가 공공 건축물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두바이 프레임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여, 서울이 미래에 설계할 공공 랜드마크의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 요인과 디자인적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 랜드마크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두바이 프레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공공 건축물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 경관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공공 랜드마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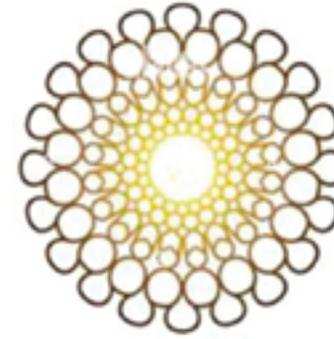
2 추진배경

두바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도시 발전을 이루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경제적 번영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바이는 석유 자원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으로 경제 기반을 다변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바이 프레임은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구조물로 기획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두바이의 역사적 변천사와 현대적 발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두바이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는 두바이 프레임의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두바이 정부는 공공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공공 디자인 정책은 공공 공간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설계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두바이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두바이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إكسبو 2020 دب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DUBAI, UNITED ARAB EMIRATES

1. 두바이 엑스포 로고 © EXPO2020 Dubai(<https://www.expo2020dubai.com/>)

1
두바이의 전통적인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 패턴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로 연결된 고리는 전 세계가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로고로 두바이의 혁신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은 경제 다변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바이 프레임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두바이 프레임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두바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의 건축은 엑스포 2020을 대비한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엑스포 2020은 두바이가 세계 무대에서 역량과 비전을 보여줄 중요한 행사로,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두바이 프레임은 엑스포 2020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두바이의 혁신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엑스포 준비 과정에서 두바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건축을 강조하였고, 두바이 프레임은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잡았다.

더 나아가, 두바이 프레임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설계와 건축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목표와 일치하며, 두바이 프레임이 미래 지향적인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두바이 프레임 전경. 두바이 프레임 외부에는 엑스포2020 로고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 임혜선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바이 프레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두바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두바이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두바이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는 국제적인 건축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이 공모전에서 프란시스 키레(Francis Kéré)가 설계한 디자인이 채택되었으며, 그의 디자인은 거대한 액자 형태로 두바이의 변화를 담아내는 독특한 콘셉트를 제시했다. 프레임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아랍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두바이의 역사적 뿌리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설계 과정에서 두바이의 기후 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첨단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두바이의 뜨거운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바이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유명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차단 유리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건물 외부에는 반사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반사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BIM 기술은 건축 설계, 시공,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3D 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설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건설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에는 최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이 시스템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이 도입되어, 필요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인다. 이러한 기술들은 두바이 프레임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두바이 프레임 외장재, 금속 디자인을 적용한 스테인리스 철강 합판을 사용하였다. 미적 요소를 담으면서도 경량화를 위해 스테인리스 철강 합판이 사용되었다 © 엄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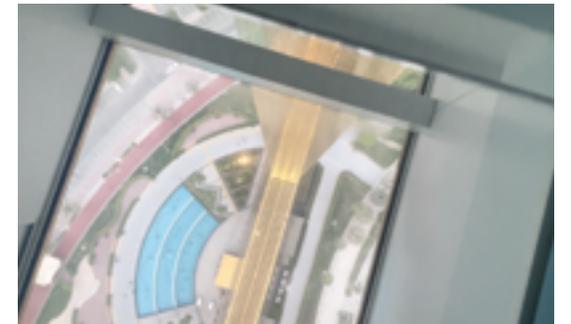
두바이 프레임 외장재, 3중 강화유리를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특수 제작 유리로 두바이의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 엄혜선



두바이 시내를 파노라마뷰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전경 © 엄혜선



두바이 프레임 전경, 150미터 높이 약 48층에 위치한 두바이 프레임 전망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55초만에 도달 할 수 있다 © 엄혜선



두바이 프레임 전망대 바닥에 설치된 유리 바닥 © 엄혜선

두바이 프레임의 구조적 설계도 매우 혁신적이다. 거대한 액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철골 구조와 복합 재료가 사용되었다. 특히, 두바이 프레임의 중심부는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경량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지진 및 강풍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구조 공학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두바이 프레임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설계 과정에서는 또한 방문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전망대에서는 두바이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60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투명한 유리 바닥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스틸 넘치는 체험을 선사한다. 전망대와 전시관을 연결하는 동선도 방문객의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편리하고 직관적인 관람 경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 과정에서 예술적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바이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두바이 프레임이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두바이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 과정은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두바이의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랜드마크를 탄생시켰다.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4 추진 현황과 결과

두바이 프레임은 2018년 1월 1일에 공식 개관한 이후, 빠르게 두바이의 주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개관 초기에는 두바이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일일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두바이 프레임은 독특한 디자인과 상징성 덕분에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방문객들은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받았다.

초기 운영 기간 동안 두바이 프레임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방문객 유치를 극대화했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두바이 프레임의 독창적인 특징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두바이 프레임은 개관 초기부터 높은 인지도와 방문객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서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다.

방문객 통계 두바이 프레임은 개관 이후 꾸준히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관광 성수기와 연말연시 기간에는 방문객 수가 급증하며, 연간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방문객 수는 두바이 프레임이 두바이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운영 시간 및 입장료 두바이 프레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과 어린이, 두바이 주민과 관광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두바이 주민에게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술적 혁신 도입 두바이 프레임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방문객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증강 현실(AR) 및 가상 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은 더욱 생동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두바이 프레임을 다른 관광 명소와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및 이벤트 두바이 프레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와

특별 이벤트는 두바이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야경 관람 프로그램과 사진 촬영 이벤트는 두바이 프레임의 독특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앞으로도 두바이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바이 프레임의 사례는 공공 랜드마크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다른 도시들에게도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것이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두바이 프레임의 개관과 운영은 두바이의 도시 이미지와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두바이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강화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독창적인 구조는 두바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두바이의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두바이 프



2024 새해 맞이 두바이 프레임 불꽃놀이 행사 전경

© 현지 언론 Gulfnews(<https://gulfnews.com/photos/news/look-dazzling-display-of-fireworks-ushers-in-new-year-in-uae-1.1704054807995?slide=13>)

레임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숙박, 음식, 교통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되었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방문객들에게 두바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문화 간의 교류가 증진되었으며, 두바이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관 이후 두바이 프레임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건축적 우수성으로 여러 국제 디자인 및 건축 상을 수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바이 프레임은 2018년 아키텍처 다이제스트 디자인 어워드(Architecture Digest Design Awards)에서 '최고의 공공 건축물' 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세계 건축 페스티벌(World Architecture Festival)에서 '최우수 공공 건축물' 상을 받았다. 또한, 2018년 베이징 국제 디자인 어워드(Beijing International Design Awards)에서도 '최고의 디자인'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디자인 혁신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수상 경력은 두바이 프레임의 명성을 높였고, 두바이의 건축 및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두바이 프레임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내용 © 임혜선

또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의 방문객 증가로 인한 입장료 수익과 주변 상업 시설의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두바이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 명소로서 두바이의 환경 친화적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이며, 두바이의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역사와 문화 소개는 문화적 유산 보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두바이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 사례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 랜드마크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두바이 프레임의 운영을 통한 파급력과 성과, 기대 효과는 두바이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5 접근성

두바이 프레임은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 시내의 자빌 공원(Zabeel Park)에 위치해 있어 도시 내 주요 교통수단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두바이 메트로 레드 라인(Red Line)의 알 자필리아(Al Jafiliya) 역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다양한 버스 노선도 이 지역을 경유한다. 이로 인해 두바이 프레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매우 편리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두바이 프레임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자빌 공원 내에 마련된 넓은 주차장은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방문객들이 주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바이 프레임의 입장료는 성인의 경우 50 AED, 어린이(3~12세)는 20 AED이며, 3세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정책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두바이 프레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두바이 주민들에게는 특별 할인이 제공되어 주민들은 성인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두바이 프레임을 자주 방문하고, 도시의 랜드마크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두바이 프레임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패키지 상품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온라인 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거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두바이 프레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 이벤트나 공휴일 기간에는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두바이 프레임 내부의 편의 시설 역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레임 내부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카페와 기념품 상점은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두바이 프레임과 관련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편의 시설은 방문객들의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더불어, 두바이 프레임은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객들을 위한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도 불편 없이 두바이 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두바이 프레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

또한, 두바이 프레임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 서비스와 안내 표지판을 통해 국제적인 방문객들도 쉽게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어, 아랍어 등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 서비스는 글로벌 관광지로서 두바이 프레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바이 프레임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두바이 프레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인기를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은 서울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도시 정체성 강화 측면에서 두바이 프레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며 도시 이미지를 확립했다. 서울 역 시 역사, 문화, 미래 요소를 통합한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혁신적 디자인과 상징성이 중요하다. 두바이 프레임의 독특한 디자인은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서울도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랜드마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관광 산업 활성화의 사례이다. 두바이 프레임은 관광 명소로서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도 새로운 랜드마크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친환경적 운영이다. 두바이 프레임은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미래 랜드마크 설계 시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두바이 프레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서울도 공공 랜드마크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공공 랜드마크 설계 시 역사, 문화, 미래 비전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두바이 프레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했다. 서울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전문가, 시민, 정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설계와 운영이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서울은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이 미래에 설계할 공공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 요소에서는 첫째,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강력한 상징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여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기능적 요소에서는 첫째,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전시관, 전망대, 인터랙티브 시설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재미있고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여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충분한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도 제공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셋째,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구한다. 넷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들이 도시의 역사, 문화, 미래 비전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랜드마크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서울은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공공 랜드마크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 사례는 서울시에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한다. 도시 정체성 강화, 혁신적 디자인과 상징성, 관광 산업 활성화, 친환경적 운영,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 등 여러 측면에서 두바이 프레임은 공공 랜드마크의 모범적인 예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서울은 역사, 문화, 미래 비전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공공 랜드마크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미래의 공공 랜드마크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 다양한 체험 공간,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 친환경 기술 도입,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 그리고 교육적 가치 제공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바이 프레임의 사례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의 설계와 건축을 넘어서, 그 장소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두바이 프레임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결된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공공 랜드마크가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바이 프레임의 성공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협력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바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통합하여 미래 지향적인 랜드마크를 구현했다. 서울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 랜드마크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바이 프레임의 사례는 서울이 미래에 설계할 공공 랜드마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서울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로써 서울은 더욱 풍요롭고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URBAN LEISURE POLICY

도심여가정책

: 도심의 쉼표를 디자인하다

LONDON

240

영국, 런던 | 생제임스 공원, 더리젠츠 공원, 하이드파크, 빅토리아 공원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단순하면서 화려한 런던의 공원 조경 및 공공 시설물 디자인

PARIS

262

프랑스, 파리 | 존 센시블 Zone sensible, 라빌레트 공원 La Villette
파리의 중심에서 농사를 외치다!



유튜브 영상

국가	영국
도시	런던
분류	도심여가정책

생제임스 공원, 더리젠츠 공원, 하이드파크, 빅토리아 공원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런던의 공원 조경 및 공공 시설물 디자인

구재은

런던의 디자인 대학교인 레이벤스본에서 애니메이션 학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초등 교사로 8년 동안 재직했으며, 현재는 런던에서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대를 탐방하며 이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koojaen@gmail.com

비가 자주 오는 런던의 날씨 때문일까요? 런던의 도시와 공원 내 울타리, 가로등, 쓰레기통 등의 공공 시설물은 90% 이상 검정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 안내문과 단순하지만 화려함이 공존하는 조경 속에서 런던 주민들은 오픈 시간 동안 언제든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어 생일 파티나 스포츠, 사교 모임의 장소로 애용되는 런던의 공원은 여유로움을 깨닫게 해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서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글과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UK, LONDON



생제임스 파크 가로등 © 구재은

런던으로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나무가 참 크고 우거져 있다는 것이었다. 키가 큰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지 않기 위해 머리를 숙여야 하며, 런던의 2층 버스에서 뒷 층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면 버스가 나무를 부딪치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듯 런던에서는 야생의 자연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여우나 청설모, 각종 새들도 많이 살고 있다. 기숙사에는 늘 여우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으러 왔으며, 최근에는 높은 울타리를 한번에 빠르게 뛰어 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쓸어 내린 적이 있었다. 얼마 전 공원에 친구와 피크닉을 갔을 때에는 청설모가 대놓고 먹이를 요구하는 듯한 시늉을 해서 과일을 줬다. 새 중에서 런던 공원에 있는 모든 백조는 왕의 소유라고 하여 그 개체 수가 꽤 되는데, 사람 몸집만큼 큰 백조에게 쫓김을 당해 무서웠던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공원에 혼자 쉬러 가는 것이 익숙지 않았다. 런던의 공원은 휴식의 공간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관광지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실 조사한 런던 중심부의 공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는 곳이기도 하다. 처음 런던에 관광객으로 방문 했을 때 왠지 이름이 가장 익숙했던 하이드 파크에 갔는데, 총 면적이 350에이커에 달하는 큰 공원이었지만, 파리에 넘어가야 했던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조금만 보고 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영국에 살며 문화를 살펴보니 영국의 공원은 관광보다는 휴식, 운동, 가족과 친구들과의 피크닉의 장소로서 의미가 더 컸다. 영국 사람들은 날씨가 맑은 날이면 햇빛을 찾아 무조건 밖에 나가서 열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건조한 날씨 덕분에 아무리 더워도 그늘 아래는 선선하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런던과 다른 도시들의 공원들을 많이 돌아다니며 다양한 공원 사진들을 많이 찍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규모의 영국 가드닝과 독특한 영국의 가로등의 디자인에 빠져서 영국의 봄을 만끽했다. 그 과정에서 공원들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공원의 공공 디자인 사례를 수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조사에서는 런던 공원관련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도심 속 런던을 대표하는 생 제임스 파크, 리젠트 파크, 하이드 파크, 빅토리아 파크의 공원 안내판, 화분(플랜터), 수목보호대, 식물(시설물)해설판, 이정표, 벤치(의자), 울타리, 쓰레기통 등 공원관련 시설물 디자인 사례를 수집한다. 또한 공원에 있는 자연물들인 꽃과 나무의 종류를 찾아보고, 이와 조화가 되는 인공 시설물들이 어떤식으로 배치가 되며, 재질과 색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한 자연물과 인공 시설물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사진자료와 영상 자료로 아카이빙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공원의 사회적, 공공적, 역사적, 교육적 역할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공원을 디자인 하게

2 추진배경

1
출처 : 런던 정부 사이트 PDF책자 - 2020년 런던 시장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expanding_london_public_realm_combined_final.pdf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2
공원의 관리 기관에 돈을 기부하면 해당 공원의 벤치에 계약 기간 동안 이름과 메시지를 적게 해주는 제도

된 배경과 그 방향성에 대해 조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인터뷰와 리포터의 생각을 풀어 서울의 공공 디자인과 공공 여가정책 적용 방안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한다.

영국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공원 컨텐츠가 따로 있는데, 영국에서는 크고 작은 27000여 개 이상의 공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열섬 현상도 막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왜 공원에 오는지에 관해 설문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의견도 소중히 여겨 공원에 대한 그들의 손편지를 아카이빙 하고 있다¹. 그러면서 영국 공원이 다양한 기능을 논리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 친교적 기능 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을 깨끗이 유지하자라는 뜻을 가진 킵 브리튼 타이디(Keep Britain Tidy) 라는 환경 자선 단체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1997년부터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공원을 시민들이 직접 뽑아 상을 주도록 하였는데, 우승을 하게 되면 해당 공원의 광고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뽑은 공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공원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이기 때문에 공원의 명예를 드높여 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국의 공원들은 매년 아름다운 조경과 깨끗한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듯 공원은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작은 변화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공 디자인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윤리 의식과도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런던에서는 2020년도에는 공공 영역의 확장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담은 책자, EXPANDING LONDON'S PUBLIC REALM DESIGN GUIDE FOR ALL LONDONERS - GOOD GROWTH BY DESIGN² 를 발행하였으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시민들에게 이로울 것인지에 관해 분석하고, 예시와 함께 소개하여 직관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원 디자인은 되도록이면 오픈된 장소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평평한 경사로와 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고려 해 놀이 시설 및 운동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며 이를 강조하도록 조각이나 기념비 등을 세울 수 있다.

자연 경관과 시설물의 조화를 위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에서 많이 나는 꽃과 나무를 이용하며, 야생동물들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도록 메모리얼 벤치³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원 곳곳에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하여 재활용과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사회적 역할로서 공원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공공 예술로서 벽화, 조각 등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이용객들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놀이터, 운동장, 피트니스 장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모임 장소로서 역할로 피크닉 테이블, 벤치, 정자 등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깨끗하고 접근성 좋은 화장실 설치하고, 위치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중간 중간에는 카페 및 음식점을 설치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및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해, 먼 곳에서도 올 수 있어야 한다.

2022년도 8월 1일에는 영국 정부에서는 공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하는 공원 조성 기금 투자 설명서(Levelling Up Parks Fund: Prospectus) 를 발행하였다. 전국 공원에 9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기금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원 프로젝트를 불러모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4 추진 현황과 결과

‘색’은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데, 런던은 전반적으로 도시와 공원의 가로등, 울타리, 쓰레기통의 색상이 90% 이상 검정으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곳도 있었는데, 생 제임스 파크 역에서 이어진 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문이었다.



생제임스 파크 가로등과 울타리와 가로등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울타리 © 구재은

이처럼 문과 가로등이 함께 있는 형태도 있었다. 제일 처음 방문했던 곳은 빅토리아 공원이었다. 이 공원은 영국 최초로 만들어진 공원으로 역사가 아주 깊었다.

울타리는 창살의 형태로, 간격은 촘촘하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150cm정도의 높은 높이였다. 뾰족한 부분은 크게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넘어가다가 발을 헛딛으면 위험해 보였다.

가로등의 디자인은 다양하나 편이나 주로 가로등은 원기둥의 콘 형태의 모양이 많았고, 꼭대기에는 뾰족한 장식이 있다. 중간 중간에도 등나무나 레이스, 꽃 문양 같은 크고 작은 곡선의 문양들이 있었다.



생제임스 파크 가로등 © 구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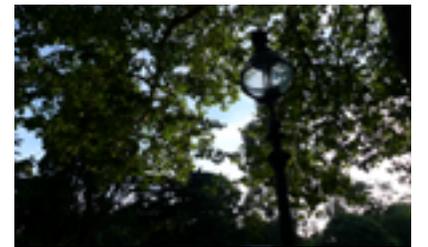
지금 내부의 광원은 전구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실제 불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점등했다고 한다. 실제로 불 모양을 형상화 한 가로등 전구도 있었다.

다시 최근에는 전기 절약과 긴 수명을 자랑하는 LED 등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오랜 전통이 있는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공원들은 LED등으로 바뀌지 않았다.

하이드 파크의 가로등은 구 형태를 띠는 것도 있다. 칠흙같은 검정색의 시설물들은 고풍스러움을 자아내며 무게감을 준다. 조금 우울해 보이기 는 하나, 고전적인 맛이 느껴진다. 또한 비가 자주 오면 시설물이 더러워지기 쉬운데, 이를 잘 가려주는 기능도 한다. 실제로 다른 색의 오래 된 가로등을 봤는데, 녹슬거나 오염이 된 듯한 것이 잘 보여 깔끔해 보이지 않았다.



생제임스 파크 가로등 원경 © 구재은



하이드 파크 가로등 © 구재은



생제임스 파크 다리 가로등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메모리얼 벤치 옆면 문양 © 구재은

이는 벤치의 색깔에서도 알 수 있었다. 벤치의 옆면 쇠 부분 문양은 나뭇잎으로 디자인 된 고풍스러운 문양으로 주로 어두운 톤이 많았고, 큰 오염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정면에서 벤치를 보니 거의 99% 이상의 벤치의 한 가운데에 작은 판을 볼 수 있었다.



빅토리아 파크 메모리얼 벤치 문구1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메모리얼 벤치 문구2 © 구재은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사람의 이름과 년도, 짧은 문구가 각인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벤치 각인을 살펴보니, 지인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름과 살았던 기간이 적혀있었다. 위 사진에도 보다시피 두명의 이름과 년도와 함께 '사랑을 담아 기억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로 문구에는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많았다. 또 다른 벤치에도 '사랑의 기억을 담아, 이 공원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말이 함께 적혀있다. 이러한 벤치를 메모리얼 벤치라고도 부르는데, 공원 홈페이지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주로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10년 동안 설치 할 수 있으며 공원의 위치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최소 5000파운드 부터 최대 15000파운드까지 금액대가 다양하다.

벤치 사이의 간격은 벤치 하나 정도 떨어진 정도로, 벤치 두개 다음 나무의 순서로 호수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배열해 놓았다.

4
www.royalparks.org.uk/support/
dedications/dedicate-bench



빅토리아 파크 메모리얼 벤치 원경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검정 대형 바퀴 휴지통 © 구재은

벤치의 중간 중간에는 나무 뿐만 아니라 휴지통도 곳곳에 있었다. 그 덕분에 공원은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였다.

이 휴지통은 주택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크기를 갖추고 있었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있다. 흰색의 글씨로 '가정용 일반 쓰레기만' 이라고 쓰여져 있고, 타워 햄리츠 런던 자치구 홈페이지 주소도 적혀 있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특이하게도 한 곳에서 여러가지 모양의 휴지통이 모여 있어 휴지통의 역사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 각자의 세월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빅토리아 파크 검정 원형 휴지통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검정 사각 휴지통 근경 © 구재은

위 휴지통은 글씨가 써지지 않고 그림으로만 휴지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 사각형의 휴지통은 그림과 글씨가 함께 있었고, 금색으로 배색을 하였다. 무거운 철 소재로 되어있고, 안에는 쓰레기를 쉽게 갈 수 있도록 비닐을 씌워 놔다.

이 외의 색깔로는 파란색으로 칠한 울타리들과 화장실 안내판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디자인은 다음과 같았다. 하지만 파란 울타리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중간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빅토리아 파크 울타리 © 구재은

이것은 큰 입구를 통과해 들어왔을 때 바로 오른쪽에 있던 울타리로, 풀이 울타리를 벗어 나와 퍼져있었다.

화장실 안내판의 글씨는 금색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고, 타워 햄릿츠 런던 자치구 마크를 붙여 해당 카운실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초록색을 배색으로 한 화장실을 볼 수 있었는데, 육각형 모양의 특이한 형태였다. 걸의 벽면은 밝은 갈색의 나무 소재로 문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었다. 가운데 윗 부분은 돔 형태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빈 공간을 가려냈다.



빅토리아 공원 화장실 안내판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남녀공용 화장실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화장실 사용 불가 안내문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경고문과 안내판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이정표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속도 제한, 보행자 우선 안내문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긴하지만,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검정색 굵은 글씨로 크게 숫자 5를 넣어 눈에 잘 띄게 해냈다. 또한 그 밑에는 항상 자전거의 비상등을 점등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간당 5마일(약 8km)로, 평균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시간당 3.5km에서 4km라고 하는데 그 속도의 두 배 정도로 제한하였다. 이는 인간이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는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주로 울타리의 색은 검정이나 진초록색이 많았으며, 가로등의 색도 비슷하게 검정과 진초록이 많았다.



빅토리아 공원 입구 내부에서 찍은 측면 © 구재은

대부분 영국의 큰 공원은 입구에 쇠로 된 울타리가 있고 밤에는 공원의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잠궜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담배를 피거나 대마초를 피기 위해 공원에 찾는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밤에 집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가다가 자전거 날치기범이나 폭력배 패거리들에게 휴대폰을 뺏길 수 있으며, 돈을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해가 지고도 열어 둘 경우 마약류의 거래,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벤치는 '메모리얼 벤치' 라고 하여,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몇몇 벤치는 나무랄 식 부분이 좀 남아보이기는 했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튼튼한 재질이었다.



빅토리아 공원 그린 플래그 어워드 상패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그린 플래그 어워드 팻말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그린팀 qr 및 안내문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육각 휴지통 © 구재은

그린팀은 1995년 이래로 젊은이들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용적인 보호 활동, 야외 활동, 환경 교육 및 개인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개인, 학교 그룹 및 추천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한다.



빅토리아 공원 도로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외부에서 찍은 입구 측면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대형 사각 나무 화분 © 구재은



빅토리아 공원 먹이 주지 마시오 표지판 © 구재은

5
 기사판의 영어 문구 :
 PLEASE DO NOT FEED BREAD TO THE WILDFOWL
 We feed six million loaves of bread a year to Wildfowl in England and Wales which causes damage to birds' health and also pollutes waterways. Please use oats, corn and peas as they are a much healthier option for the birds.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매년 6백만 덩어리의 빵을 야생조류에게 먹이로 주는데, 이는 새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물을 오염시킨다. 제발 새들을 위해 오트, 옥수수, 콩과 같은 더 건강한 옵션을 주세요'

런던 빅토리아 공원 호숫가의 표지판⁵에는 야생조류의 건강을 위해 빵을 주지 말라고 써 있다. 실제로 공원에서 사람들이 빵을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다른 대체품을 줘야 새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이는 자연과 이상적인 공생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효율적이다. 하지만 너무 글씨가 작아서 멀리서 잘 안보였다.

생제임스 파크에서는 좀 더 간단하지만 가까이서 잘 볼 수 있도록 경고판을 길 중간에도 설치하였다. 오리와 청설모의 손으로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모습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려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생 동물을 위한 노력은 리젠트 파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아래 경고판은 새들의 번식 장소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 달라는 안내판이다.



생제임스 파크 먹이 금지 경고판 © 구재은



리젠트 파크 번식 장소 안내판 © 구재은



생제임스 파크 새 안내판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새 안내판 © 구재은



리젠트 파크 번식 장소 안내판 원경 © 구재은



리젠트 파크 새 안내판 © 구재은

안내판에는 이 지역이 야생 서식지이므로 공공 장소로 오픈되지 않는다고 쓰여있고, 당신이 즐기고 있는 많은 수의 새와 포유류가 공원 내에서 있다고 쓰여있다.

다른 작은 호숫가에서는 물가 새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양한 야생 동물과 식물의 이름과 설명을 적어놓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많이 끼 있었고, 관리가 안되는 것 처럼 보였다. 그래도 생제임스 파크나 리젠트 파크의 경우에는 깔끔한 상태였다.

새 이름과 함께 풀 이름, 그림, 경치가 함께 그려져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남녀노소 모두가 흥미를 갖고 그림과 실제 동물들을 비교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이드 파크 조각품 © 구재은

또 다른 공원의 공공 디자인의 특징으로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각품과 장식품을 들 수 있다. 아래는 하이드 파크에 있는 전쟁 속 동물들을 기리는 조각품과 부조 벽화이다. 아래 작품은 공원 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

조각품의 설명에서는 동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되었고, 그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적혀있었다. 영국 정부가 동물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원에서 강아지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리젠트 공원의 강아지 출입 금지 안내판이다.



리젠트 파크 강아지 출입 금지 © 구재은



리젠트 파크 안내견 허용 © 구재은



리젠트 파크 스케이팅 자전거 금지 © 구재은

또한 구기 종목 게임도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리젠트 파크는 좀 더 보행자의 안전과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전거와 스케이팅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바닥에 페인팅으로 간단히 적어 놨는데, 주로 자전거 이용객들은 땅을 보며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출입 금지 된 것은 아니었다. 브로드 워크 게이트 문 쪽에서 자전거 길로는 자전거 출입이 가능했다. 또한 강아지 출입도 가능한 곳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만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강아지 쓰레기 전용 휴지통인데, 마찬가지로 검정색의 휴지통에 금색의 칠을 하여 일반 쓰레기 통과 색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강아지는 영국 사람들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다. 그래서 관련 표지판과 전용 휴지통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래서 경교판에서도 호수에 강아지를 못들어가게 하라는 문구가 많이 있다.



리젠트 파크 강아지 전용 휴지통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호수 경고판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물가 안내판 원경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선크 정원 경고문 © 구재은

하지만 이런 문구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아지를 수영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

위 사진을 보면 관리가 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든 쪽을 보면 아름답게 조경을 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빅토리아 파크의 선크 정원에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 낮은 울타리를 쳐놓고 위와 같이 제한된 구역이니 나가있어달라는 경고문을 써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이용객을 보았다. 이를 보면 좀 더 강력한 경고문 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이드 파크의 장미 정원은 너무 늦은 여름에 가서 그런지 장미꽃이 많이 시들었다.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정원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파크 선크 정원 원형 조경 © 구재은



리젠트 파크 가든 조경 원경 © 구재은



하이드 파크 장미 정원 경고문 © 구재은



리젠트 파크 조경 © 구재은



리젠트 파크 가든 조경 © 구재은



하이드 파크 조경 © 구재은



하이드 파크 조경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호수 조각상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호수 조각상 안내판 © 구재은



생제임스 파크 조경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김정 원형 재활용 휴지통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김정 원형 재활용 휴지통 원경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다리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에는 중국 풍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근처의 다리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통 문양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공원은 생일 파티나 스포츠 모임의 장소로도 애용되며, 이용객끼리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일깨워 주는 사회적, 공공적, 교육적 역할까지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생히 느꼈다.

공원 안내판과 울타리는 철 소재에 페인트를 칠했다.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두껍고 무거운 재질도 아닌, 굉장히 한국의 어릴 적 아파트 정원이 생각나는 예스러운 재질이었다.

디자인은 그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런던은 방수에 많이 신경을 쓰며, 더럽게 보이지 않도록 어두운 색, 특히 검정색을 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빅토리아 파크는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원' 투표에서 우승하여 2012년에 '그린 플래그 어워드'를 수상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린 팀'이라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연 관련 봉사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빅토리아 파크의 남녀 공용 화장실은 성 평등 문화를 장려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은 성 소수자들에게 더욱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수용받고, 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한다. 또한,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 만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간을 절약하고, 기저귀를 가는 공간도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 양육자의 성별에 대한 평등한 개념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 칸에 한 명씩 들어가도록 하고, 바닥이나 창문을 통해 안에 있는 사람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빅토리아 파크 남녀 공용칸 로고 © 구재은



빅토리아 파크 남녀 공용칸 로고 © 구재은

가. 시민 인터뷰

리포터: (벤치에 앉아서 쉬는 중) 오늘 정말 더운 날씨가네. 그렇지 않아?
 시민: 그렇다, 그래서 조금 쉬려고 벤치에 앉았어.
 리포터: 사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놀랐어. 원래 영국인들은 벤치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앉아 있으면 잘 앉지 않으니까.
 시민: 맞아, 근데 나는 저기 멀리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 좀 앉아서 쉬고 싶었어.
 리포터: 근데 공원은 왜 온거야?
 시민: 오, 좋은 질문이야, 나는 요 며칠 내내 컨퍼런스 때문에 실내에 갇혀서 에어컨 바람을 쐬야만 했어.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고 왔어. 공원은 다른 곳 보다 더 공기가 좋아. 나무에서 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평소에는 아침에 올 때도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 나는 가끔 맨발로 공원을 걸기도 해. 그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
 리포터: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좋은 답변을 받은 것 같아. 고마워! 사실 나는 서울 디자이너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어. 혹시 인터뷰 내용을 좀 써도 될까? 영상으로 찍어주면 더 고맙고.
 시민: 오, 영상은 안돼. 그치만 내용은 써도 좋아. 글로 적는것만 허용 할게!
 리포터: 알겠어! 너무 고마워.

나. 영국 워홀 2달차, 한국인 디자이너와의 인터뷰

리포터: 안녕, 벌써 영국에 온 지 두 달 차에 접어들었네.
 세비나: 응, 시간이 참 빠르다.
 리포터: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국의 공원은 어떤 것 같아?
 세비나: 사실 나는 영국 공원에서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은 없어. 다 지나가는 길에 빨리 가려고 공원을 가로질러갈 때 본 게 다야.
 리포터: 그렇구나. 그래도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세비나: 일단 영국 공원에는 '잔디 밟지 마시오' 같은 표지판이 없어. 그게 굉장히 신선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잔디에 앉아도 되고, 길 자체도 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 또 쓰레기통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좋았어. 한국은 쓰레기통이 별로 없잖아.
 리포터: 아, 그랬나? 역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차이점을 금방 알아보네.
 세비나: 응. 근데 위생이 조금 걱정되는 게, 반려동물들이 잔디에 쉬를 막 싸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앉을 수 있다는 게 싫었어.
 리포터: 맞아, 여기는 반려동물의 배변봉투를 많이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소변은 아무데서나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어?
 세비나: 그리고 내가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영국이 좋을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는 공원에 대부분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테니스장이 있더라? 하지만 조경적으로 예뻐 보이지는 않았어. 테니스 공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 철창을 높게 지어야 하는데, 그게 감옥 같은 느낌도 나서 미관을 해치더라고.
 리포터: 그러네. 역시 디자이너는 대충 봐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세비나: 또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넓은 것 같아. 호수가 중간에 있고, 거기에 백조도 많이 있더라고. 운동기구가 있는 곳도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도 좋고. 또 특이한 점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 입구와 담장이 있다는 점이었어.
 리포터: 맞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아. 아니면 밤에 놀이터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게 아닐까 싶네.
 세비나: 그리고 여기는 좀 규모가 작으면 가든이라고 하고, 규모가 크면 파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신기했어.
 리포터: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파악했네. 좋은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

다. 3년차 거주 영국인 친구와의 인터뷰

리포터: 안녕! 영국 공원에 대해 인터뷰를 하려고 해. 자기소개 부탁해.
 조이: 나는 런던에 3년 차 거주 중이고, 곧 공대 대학생이 되는 조이야. 외갓집이 모두 영국에 살았어서 어릴 때 여기서 잠깐 지내다가 싱가포르로 이사 갔어. 그러다 싱가포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경찰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3년 전부터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어.
 리포터: 그렇구나. 너는 영국 공원이 어떤 것 같아?
 조이: 나는 로열 파크는 다 좋아해. 영국은 정말 공원이 많은데, 도심 공원과 근교

공원으로 나눌 수 있지. 공원은 나무가 정말 많고 레크리에이션 장소도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축구를 할 수 있거나 테니스장, 호수에서는 보트를 타며 노를 젓기도 해. 휴식을 취하거나 피크닉을 하기도 하지.

리포터: 맞아. 나도 축구를 영국 와서 시작했어. 넓은 잔디가 있으니 절로 축구 생각이 나더라고! 혹시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어디야?

조이: 나는 브록웰 공원이랑 그리니치 공원이 좋아.

리포터: 그 이유는 뭐야?

조이: 어릴 때 자주 갔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리포터: 공원은 얼마나 자주 이용해?

조이: 주로 일주일에 두 번은 이용해. 정기적으로 공원에서 양궁 트레이닝도 받고 있거든.

리포터: 그럼 싱가포르 공원과 차이점은 무엇인 것 같아?

조이: 영국 대부분의 공원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심플한 것 같아. 하이드 파크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이나 가든 바이 더 베이도 관광객을 위한 공원이거든. 대신 싱가포르에는 아주아주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많은 것 같아.

리포터: 맞아, 영국 공원들은 딱히 건축물이나 조경, 안내판이 크게 없이 나무와 벤치, 잔디만으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지.

라. 리포터의 의견

조금은 깔끔함이 덜한 영국의 공원이지만, 그 어느 나라의 공원보다 화려하다. 벤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모두 나무 원목이거나 쇠에 페인트 칠을 한 검정색, 또는 나무와 검정의 조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공원은 진초록색을 기본으로 하고 파랑, 빨간색으로 간간히 포인트를 주며 디자인했다. 하지만 꽃은 화려한 색으로 조경을 디자인해 아름다운 색의 조합으로 방문하는 이들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입구에는 나무와 잔디, 벤치만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양한 색의 꽃과 풀들이 조화를 이루며 끝도 없이 펼쳐진 신세계를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영국 런던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걸어서 30분 거리 이내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고, 생일 파티도 하며 반려동물들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잔디밭에는 울타리가 없어 누구나 잔디 안에서 조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다. 공원에는 벤치와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스포츠 공간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국 런던의 또 다른 디자인 요소로는 다양한 문양과 상징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아직도 왕실이 존재하는 만큼 왕관을 차용한 디자인이 많았으며, 금색이나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원이 ‘로열 파크’라고 하여 왕실 소속의 공원이기 때문이다.

6 서울 적용 방안

우리나라도 서울을 브랜딩할 때 어떤 색을 주로 사용할 것인지 도시의 이미지와 견주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색이 우리나라의 계절과 날씨에 잘 어울리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공공 디자인 물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징물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기며 홍보할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환경을 생각한 소재 선택도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 시설물들은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여 자주 공원에 와도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 통일된 차분한 색과 단순한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메모리얼 벤치 문화를 정착시켜 지하철과 공원 벤치 설치에 대해 기부금을 받고 이름을 넣도록 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도시 이미지나 조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에 유용하다.

조경은 설치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꽃의 개화 시기와 만개 시기가 다른 만큼 계절별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줘야 한다. 영국의 경우 유럽에 많이 자생하는 꽃들로 화려한 색 조합을 만들어 정원을 꾸몄다. 특히 봄은 긴 겨울 뒤에 오기 때문인지 더 정성을 다해 꾸민 경우가 많은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봄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페르디타나 허리티지 장미를 비롯해 히아신스, 채송화, 데이지, 메리골드, 패럿 툼플, 수국, 앵초, 수선화를 많이 심었으며 국화나 동백나무도 많이 보였다. 간혹 프린세스 다이애나 수국이 나 스코틀랜드 앵초 등 영국의 역사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종들도 있었다.

여름에는 제라늄, 엔젤 윙스, 다알리아, 스위트 캐롤라인 퍼플, 백합, 아칸서스, 아네모네, 페투니아, 다이콘드라 실버 폴, 에키나시아, 코르딜리네 산파체스 등 꽃뿐만 아니라 독특한 풀들을 조합해 조경을 꾸몄다.

우리나라도 국화인 무궁화를 위주로 많이 심되, 그 꽃과 어울리는 다른 꽃이나 비슷한 종, 풀을 많이 심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꽃뿐만 아니라 관상용 풀들도 뽀뽀하고 다양한 종류로 많이 심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 공원을 이용할 이용객들에게 계절별로 다른 식물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7 마무리하며

런던에 살다 보니 공원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연히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큰 공원을 발견했고, 넓은 초록 잔디밭을 보니 공을 차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축구를 직접 공을 사서 해보게 되었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이용해 같이 운동 나온 근처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그 순간들이 즐거워 다시 공원을 찾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큰 공원에는 모두 큰 호수나 물가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새가 많이 살고 있지만, 가림막이나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빠져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물의 깊이가 사람이 다칠 만큼 깊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아이들의 보호자와 이용객들을 믿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이용객들에 대한 공원의 신뢰가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제는 가림막이 없어짐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공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공공 디자인의 다양한 기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전성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6



유튜브 영상

국가	프랑스
도시	파리
분류	도심여가정책

존 센시블 Zone sensible, 라빌레트 공원 La Villette

파리의 중심에서 농사를 외치다!

최서경

파리 아르데코에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자연을 활용한 새로운 리추얼을 만드는 것으로 오브제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잊고 있던 다양한 감각들을 되살아 나게 하는데에 관심이 있다.

seokyung.cho121@gmail.com

프랑스 파리는 녹지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원과 도심 농장을 통해 도시민들이 자연과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존센시블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여가 정책과 시민행사를 진행하는지 글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FRANCE, PARIS

1 들어가며



존센시블 허브존 © 최서경

저는 제 석사 프로젝트로 테라피 Terrapy(땅Terra+치유Therapy의 합성어)를 진행했습니다. 테라피는 생물을 소중히 여기고 특정 지역 문화 의식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줄여주는 유쾌한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 문화, 음식을 테마로 식품 생산 및 문화 장소인 생드니의 도시 농장인 존 센시블(Zone Sensibl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 생활 세계, 환경 보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워크숍을 제공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정원의 시간대를 활용해 계절별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과 생명체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농장인 존 센시블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술적 창의성, 환경 보존, 사회적 연대, 건강한 식품 생산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도시 농업을 통해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환경 보존 및 사회적 유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여가 정책과 공원 시민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추진배경

파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인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 유산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정원들은 시민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매년 여름에 열리는 “자르당 우베흐(Jardins ouverts, 열린 공원)”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이 지역의 녹지 공간을 홍보하고, 자연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하며, 자연 환경 내에서 문화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시작은 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에게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년 이 축제에는 가이드 투어, 워크숍, 예술 설치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모두 지역의 공원과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 교육, 문화적 풍요로움을 위한 녹색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녹색 공간을 탐험하고 즐기도록 장려합니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수년에 걸쳐 ‘자르당 우베흐(열린 공원)’는 일 드 프랑스의 수많은 정원이 참여하면서 그 범위와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속 가능성, 문화유산,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파리와 일 드 프랑스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 센시블이 위치한 생 드니 도시 농장은 일 드 프랑스에서 수세기 동안 시장 뒷밭을 가꿔온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1860년대 ‘미덕의 평원’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파리에서 판매되는 채소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으며, 특히 발타드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당시 정원사들은 그때 당시의 농사법에 맞춰 농사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케르산테 가문이 농장을 소유하며 연간 50만 개의 상추를 생산했지만, 1980년대부터 도시 개발로 땅이 매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생 드니 도시 농장은 생 드니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도시 농장으로, 오래된 품종과 전 세계의 품종을 한데 모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다문화 인구에 맞게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며,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젊은 이들을 위한 견습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개방되어 다양한 워크숍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수분”이라는 주제 아래, 파르티 포에티크Parti Poétique는 도시를 연구하는 다학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환경, 그 흐름, 긴장, 밀도 및 사회 조직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탐구하며, 대중이 도시를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도시의 “채집 구역”에서 예술가, 식물학자, 도시 계획가, 인류학자, 양봉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들은龐피두 센터Centre Pompidou,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등 여러 장소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2000년부터 생 드니Saint-Denis에서 유럽 최대의 도시 양봉장을 운영하며 “미엘 베통Miel Béton(벽돌 꿀)”이라는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예술가, 주민, 문화 및 과학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예술과 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Zone Sensible 도시 농장을 통해 “자연/문화/음식”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생 드니 지역의 농업 역사

19세기 중반부터 생 드니와 그 주변 지역은 프랑스의 주요 채소 재배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생 드니, 보비니, 오베르빌리에, 라 쿠르뇌브 등의 지역은 광대한 농경지로, 주로 감자, 양배추, 양파, 참마 등을 재배했습니다. 특히, 라 쿠르뇌브 지역은 1882년 조사에 따르면 760헥타르 중 540헥타르가 채소 재배지로 사용되었으며, 이곳의 비옥한 토양은 파리와 생 드니에서 수집한 도시 비료(분뇨와 가정 쓰레기 등)로 기름지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들 채소는 파리의 중앙 시장인 레 알(Le Halles)로 매일 아침 수백 대의 농작물 수

제로 운반되었습니다. 판매를 위해 농부들은 인증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생 드니가 오랜 농업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 센시블과의 연관성

파르티 포에티크(Parti Poétique)는 2016년, 생 드니의 마지막 19세기 시장 정원 농장인 플레네 데 베르투스(Plaine des Vertus)를 인수하여 도시 농장으로 재개발했습니다. 이곳에서 2018년 5월에 문을 연 예술 및 영양 생산 센터인 '존 센시블(Zone Sensible)' 프로젝트는 생 드니의 농업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존 센시블은 지하철에서 500미터 떨어진 야외 창작 실험실로, 200여 종의 재배 식물과 자연—문화—음식을 주제로 한 다학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생 드니에 거주하는 135개 국적의 문화적 생물 다양성과 요리 노하우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전시회, 콘서트, 토론회, 야외 영화관 및 극장), 레지던시(요리사, 예술가 및 연구자), 가이드 투어 및 실습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또한, 존 센시블은 교육 워크숍을 통해 예술, 생활 세계, 환경 보존 및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장을 통해 주민들이 농작물 및 공원 가꾸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생드니의 농업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2003년 설립된 파르티 포에티크는 예술과 환경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예술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존 센시블을 창작과 문화 전파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일 년 내내 시각, 음악, 공연 예술 및 시청각 이벤트와 외부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2018년에는 야외 창작 공간으로서 이 사이트를 선보이기 위해 에스파스 365를 설립했습니다. 현대미술의 '화이트 큐브'였던 이곳이 야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개방되었습니다. '그린 큐브'로 설계된 이 공간에는 도시 농장 내 생산 및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공연 무대, 야외 영화관, 매개 공간 등 모든 종류의 예술적 표현을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농장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비정형적인 이벤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및 목조 구조물, 피크닉 테이블 그리고 비닐 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 센시블은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매년 여러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초청된 각 예술가들은 현장, 이슈 및 지역과 관련된 연구와 창작을 수행하며, 예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서 현장을 홍보하기 위해 존 센시블에 전시될 지속적인 작품을 제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석고 회사인 생 고방 Saint Gobain과 협업해 새로운 건물을 존 센시블에 지을 예정입니다.

파르티 포에티크는 생물 다양성을 중시하는 생태계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채택하기 위해 퍼머컬처(퍼머컬처 또는 영속농업은 번성하는 자연 생태계에서 관찰



존센시블 입구 © 최서경



존센시블 피크닉 © 최서경

4 추진 현황과 결과



에코프린트 아틀리에 © 최서경

되는 배열을 채택하는 토지 관리 및 정착 설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여기에는 전체 시스템 사고를 사용하여 도출된 일련의 설계 원칙이 포함된다.)를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 센시블은 농약과 식물 위생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생산 계절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르티 포에티크는 매주 납품하는 레스토랑 오너와 협력하여 채소 껍질을 재활용하는 유기 폐기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판틴의 맥주 양조 업체인 갈리아와 협력하여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곡물을 회수하고, 이 지역의 승마 극장 및 서커스단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적지의 녹지 부서에서 나오는 나무 부스러기도 회수합니다. 존 센시블에서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약 200톤의 제품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센시블의 성장을 돕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파르티 포에티크 팀은 매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농장 참여형 원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퍼머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르티 포에티크는 일 년 내내 원예 및 조경 학교(파리의 에콜 뒤 브뢰유, 생제르맹 양 레이의 리세 호티콜 에 농업학교)에서 온 많은 교육생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전문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파르티 포에티크는 향후 센시블 존의 프로젝트에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동과 배달에 전기 자동차나 자전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운영의 모델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¹

현대 사회에서 음식의 중요성과 주민, 농부, 연구자, 요리사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파르티 포에티크는 식사를 중심으로 '잘 먹기'의 가치를 전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존 센시블은 정크푸드가 만연해 비만과 당뇨 등

¹ 존 센시블 <https://www.parti-poetique.org/les-lieux/zone-sensible/>



존센시블 허브 © 최서경



존센시블 허브티 아틀리에 © 최서경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로컬푸드의 장점을 홍보하는 식품 생산 지역이 자 가공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파르티 포에티크는 특히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요리 워크숍 등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 단체는 존 센시블에 교육 및 참여형 주방인 쿡(KOOK)을 오픈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셰프(파트너 레스토랑 셰프, 난민 셰프)를 상주시키고 음식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주방은 주민이나 지역 단체에 제공되어 그들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음식 관련 연대 이니셔티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쿡은 또한 연회, 식사, 공연 및 기타 음식 관련 문화 행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아뜰리에, 레지던스, 페스티벌등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 아뜰리에 프로그램인 수요일의 존 센시블(les mercredi sensible)에서는 4월에는 베티의 레시피, 인센스 제작, 존 센시블 투어, 허브티 블렌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월에는 베티의 레시피, 필름 카메라 수업, 허브티 블렌딩, 천연 염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월에는 베티의 레시피, 자전거 수리 수업, 에코 프린트, 인센스 제작, 자전거 스무디, 망치 염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각 월마다 주말에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5월 25일에는 축제합시다(Festoyons)가 진행되었고 6월 15일에는 생명을 위해(Pour la Vie)가 진행되었고 7월 17일에는 돛자리(La nappe)와 7월 20일 감자튀김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존센시블 인센스 아뜰리에 © 최서경



존센시블 허브 채취 © 최서경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2016년까지 상추 단일 재배를 대체한 존 센시블은 1헥타르에 200그루의 나무와 230여 종의 재배 작물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사무실에서 루카스와 엠마는 향후 프로젝트를 위한 파일, 예산, 커뮤니케이션 및 중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정원사인 프랑크 폰티에가 작물 순환 작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절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과일나무, 아로마 허브(바다 회향, 레몬 민트, 오레가노 등), 채소 등을 농업업 중심의 퍼머컬처 방식으로 심었습니다. 존 센시블의 경우 농장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는 겨울에는 문을 닫고 봄부터 여름까지 대중에게 문을 엽니다.

존 센시블 프로젝트는 프랑스 생드니에서 진행되는 도시 농업 및 문화 프로젝트로, 환경 보존, 사회적 연대, 예술적 창의성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SDG 2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

존센시블은 도시 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퍼머컬처를 활용하여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대 팬데믹’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불안정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파리내에서 파리 근교 농작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SDG 3 건강과 복지

존센시블은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존을 강조합니다. KOOK이라는 교육 및 참여형 주방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양한 아뜰리에를 통해서 제철 채소와 과일로 만든 다양한 레시피를 공유하고 함께 먹으므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SDG 10 불평등 감소

해당 농장에서 수확하는 작물들은 주변 단체들에 기부가 되거나 레스토랑에 판매되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농작물들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불평등 감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존 센시블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 노쇼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존센시블은 생드니의 옛 시장 정원을 복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존 센시블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갈리 농장과 합치면 4헥타르가 되는 공

간을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납을 이용한 농업을 해 땅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이 오염을 다시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땅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존센시블은 퍼머컬처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레스토랑과 협력하여 유기 폐기물을 수집하고 이를 퇴비로 사용합니다. 지역 내와 파리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유통 과정을 줄여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3
기후 행동

존센시블은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농산물 배달, 현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생드니 농장에서 파르티 포에티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하는 예술가들의 계도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책은 농장의 교육 투어와 퍼머컬처 워크숍, 커뮤니티 그룹을 통한 식량 기부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농장이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르티 포에티크는 시와 2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시 계획 프로젝트나 일회성 설치와는 거리가 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존센시블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디자이너, 요리사와 협업하여 아뜰리에와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존센시블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년 1명의 예술가 혹은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는 땅을 치유하는 주제로 진행한 조각가인 카롤린 르 메호트 Caroline le Méhaut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예술가는 존센시블에서 연구를 하며 다양한 아뜰리에들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소통할 수 있으며 함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존센시블은 파리 13호선 종점인 생 드니 대학 Saint Denis-Université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3호선은 파리 지하철 노선 중에서 길고 가장 악명이 높고 혼잡한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에서 파리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샹젤리제 Champs-Élysées-Clemenceau와 이번 파리 올림픽 경기장 중 하나인 앵발리드 Invalides를 지나고 파리 대표 역인 생 라자르 Saint Lazare역과 몽파르나스 Montparnasse—Bienvenue역을 지나갑니다.

존센시블이 위치한 생 드니 지역은 2019년 파리지역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파리 및 파리 근교 지역 중 가장 치안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생드니는 프랑스 본토에서 가장 가난한 구(인구의 27.6%인 160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 거주)이며 교사, 경찰관, 치안판사, 의사 등 모든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젊은 지역(주민의 42%가 30세 미만)이자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지만(호황은 주민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도 합니다. 파리 내 접근성을 보자면 실제로 저도 학교나 집에서 존센시블을 가기 위해서는 2번 정도의 환승이 필요하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리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심 농장들을 파리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존센시블이 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주변 도심 농장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센시블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생 드니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으며 생 드니 외 지역보다 내에서 참여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시간대에 따라 참여 연령대가 달랐습니다. 수요일의 존센시블 프로그램에서 오후 2시 반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변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노년층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청장년층의 경우 주변에서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구경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프리랜서나 여행을 와서 시간을 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청장년층 보다 노년층 유아청소년층이 더 많았습니다. 페스티벌의 경우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 노선도 © Ratp

5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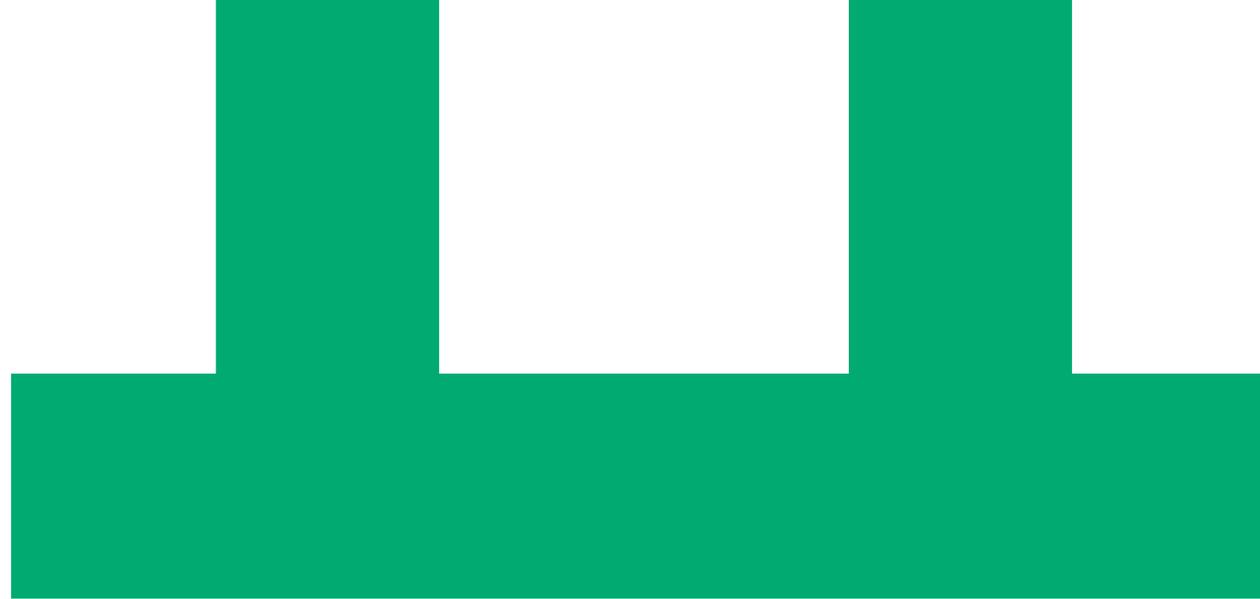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 공원 사이트에서 올려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공예, 운동, 공원탐방,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느낀 점은 공원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더 찾고 활용하려면 공원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심을 가질 수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내의 식물, 동물, 분위기,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 프로그램은 공원을 단순한 자연이 있는 공간으로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원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결지어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예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에서 사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주였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박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과 키링, 모기 퇴치제, 식물 컬러링, 화분 만들기 등이 있는데 공원의 공간성 및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프로그램들로 보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공원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존 센시블의 경우 인센스 및 차 블렌딩의 경우 공원, 도시 농장에서 직접 허브들을 채취하고 말려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공원을 누비면서 다양한 허브들과 친숙해지고 냄새 맡고 뜯어보며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천연 염색 역시 공원에 있는 꽃, 나뭇잎과 허브등을 참여자들이 직접 채취하고 활용해 공원이 장소여야 하는 이유를 주었습니다.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내 다양한 요거나 명상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있는 허브 공원은 강동구 둔촌동의 일자산허브천문공원입니다. 2006년 9월에 개원한 공원은 색의 정원, 감축의 정원, 향기의 정원, 차의 정원, 맛의 정원 등의 주제로 120여 종의 허브(32,448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약용식물과 자생식물 47종(9,138본)은 약초원과 자생원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² 존 센시블도 다양한 허브를 활용해 아뜰리에들을 운영했던 것처럼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역시 이런 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문이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만큼 밤에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24시간 개방되는 공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공원이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역시 2030 지속가능도시 계획에 있어 시민 먹거리 안전과 도농 유통 구조 개선 및 도시 농업 지원,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기후 변화 대응, 불평등 감소등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들은 존 센시블이 그러한 것처럼 공원 및 도시 농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 및 도시 농장을 조성할 때 조경과 같은 미적인 것들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닌 이 공간이 어떻게 자연과 사람들과 다시 관계성을 가져 활용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²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703>

존 센시블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양봉장 운영, 예술 설치 작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과 환경 보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워크숍과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연관되어 기아 종식, 건강과 복지,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행동 등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존 센시블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사회적 연대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프로그램은 공원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자연과 관계성을 맺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재료 대신 공원 내 자원을 사용하여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산허브천문공원은 다양한 허브와 천문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원과 도시 농장은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연과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DESIGN EVENT

디자인 행사

: 디자인의 가능성이 춤추는 곳

BERLIN

278

독일, 베를린 | 그린테크 페스티벌

'그린테크 페스티벌 베를린' 콘퍼런스 행사 방식과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FRANKFURT

296

독일, 프랑크푸르트 | 플랫폼 시티 프랑크푸르트의 MICE 산업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세계적인 박람회 유치를 중심으로





유튜브 영상

국가	독일
도시	베를린
분류	디자인 행사

그린테크 페스티벌

‘그린테크 페스티벌 베를린’ 콘퍼런스 행사 방식과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강유선 상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후 국제 비영리 조직 및 교육 행사 관련 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및 마케터로 활동하며, 현재 산업디자인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 그린 테크놀로지 산업 관련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 겸 예비 스타트업 창업가 강유선입니다.
modernartseoul@naver.com

2024년 5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표면적으로는 중요 산업 분야의 선두 주자들이 모여 최신 지속 가능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글로벌 쇼케이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진정한 가치는 더욱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각국의 정치인, 경제 전문가, 기업인, 그리고 UN의 연설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장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Financing the Green Future)라는 비전 아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일시적으로 성행하는 유행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으로써 재조명하며 발전의 길을 제안하는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객관적인 글과 영상으로 담아 관련 산업의 스타트업 창업, 디자인, 환경 운동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유하고 싶습니다.

GERMANY, BERLIN



그린테크 페스티벌 메인 배너 ©강유선

현대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린테크 페스티벌(GreenTech Festival)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 중 하나이다.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을 기념하고 촉진하기 위해 베를린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라는 기본적인 목적성과 함께, 행사의 기반이 마련된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였다.

첫째, 환경 문제에 대한 인류의 인식 증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는 정부, 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며, 대중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기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앞으로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며, 현재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화 및 개혁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둘째, 혁신 기술의 발전이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을 무한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전기차나 수소전기버스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지속 가능한 산업과 미래 자원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될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하나의 국가 예컨대, 미국이나, 혹은 EU 연합이 체계를 확립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때문에, 전 지구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셋째,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환경 정책 및 지원이다. 베를린은 독일 내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린테크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주의 교통수단 정책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독일 내 설립된 그린테크¹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사회 및 경제적 관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은 행사에 관련 중요 정치인들이 연설에 참여하거나, 스타트업의 스폰서십² 기회 등 이점을 제공하여 행사의 참여도를 높였다.

1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기술로, '녹색 기술'이라고도 한다.

2 기업이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스포츠, 이벤트, 문화 행사 등)에 자금,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의 용어.

3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캠페인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4 자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장소.

2 추진 배경

5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6 테스트 또는 시험용으로 계획된 활동.

넷째, 국제 협력과 네트워킹이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기업, 연구기관,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다. 예를 들어, 행사에서는 다양한 국제 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이 개최되어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기업이 서로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다. 혹은, 기업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의 협약 및 거래가 촉진될 수 있고, 곧 실질적인 자본이 탄생하여 행사의 자유도와 영리 목적을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강점들을 흡수한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모빌리티, 전자기기, 신소재, 건축, 패션, 생활 및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최신의 지속 가능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건 물론, 전 세계의 정치인, 경제 전문가, 액티비스트³, 연설가, 그리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물리적으로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거대한 아고라⁴이자 쇼케이스 플랫폼으로서 빠르고 성공적으로 우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 방향성, 그리고 성공 요인을 서울시가 향후 유사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요소로 이용한다면 단순 이익 추구를 넘어,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통찰력과 잠재력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의 속도와 그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가 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와 표준체계 정립은 전 세계 메가시티⁵가 이미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범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을 통한 문제점 해결이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출범한 글로벌 행사이다. 2008년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되었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경고와 지속 가능한 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작은 커뮤니티 중심의 이벤트였으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과 혁신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2010년 'Clean Tech Award'라는 이름의 파일럿 프로젝트⁶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현재의 그린테크 페스티벌(GreenTech Festival, 이하 GTF)로 발전하여 규모를 확대했다.

해를 거듭하며 본격적인 각국의 정치인, 경제 전문가, CEO들은 물론, 관련 스타트업부터 국제 조직인 UN의 연설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참가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시켰고, 관련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발 빠르게 자리 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그린테크 페스티벌이 강조한 주요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이 이끄는 협력과 프로젝트 실행과 더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치 체계 정립과 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소개 및 확산

최신 그린테크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술과 개발, 소비의 순환 과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 미래의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구현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구현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각 나라마다의 경제적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넘어 범지구적으로 함께 달성할 방안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대중 인식 제고 및 생활 방식 변화

일반 대중에게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국제적 협력 강화

기후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므로, 전 세계 기업, 정부, 학계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장과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24년부터 행사는 런던,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까지 총 3개의 대륙(유럽, 아시아, 미주)으로 확대되어 연례행사로 1년에 4번 개최된다. 이러한 행사 형태는 곧 국가와 시대에 맞게 특수하게 발전되어 각국의 개인과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창립 멤버 중 가장 잘 알려진 독일의 포뮬러 원 레이싱 스타 드라이버 니코 로스베르크(Nico Rosberg)는 행사의 발전과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로스베르크는 선수 생활 은퇴 후 그의 전문 분야인 모빌리티⁷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융합 및 사업화하여 제 2의 인생 출발점을 그리고자 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데아는 점차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그의 열정은 행사의 초석을 마련했다.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끌어오고, 조직을 만들며, 행사의 설계도를 그려 추진했다. 행사에 남다른 책임감을 보이는 그는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행사의 진행자이자 연설가로 참여하여 파급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립 멤버 니코 로스베르크(Nico Rosberg)
©https://bit.ly/nico-rosberg-1



창립 멤버 니코 로스베르크(Nico Rosberg)
©https://bit.ly/nico-rosberg-2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8 독일 에센에 위치한 유럽의 전기사업 및 에너지 산업 대기업

9 특정 분야나 공동된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활동으로 포괄적 의미.

10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협업 공간.

가. 행사 개요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매년 베를린에서 가장 먼저 개최되며,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사회과학 측면의 여러 환경 관련 이슈들을 정치, 문화, 경제 분야의 전문가 및 UN 소속 연설가들이 토론하는 메인 스테이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 직조물, 신소재 및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소개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솔루션 스테이지와 딥 다이브 스테이지, 마지막으로 에온⁸(이하 E.ON)의 주요 임원들이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기업 발전 및 윤리성에 주제로 토론하는 에너지 스테이지까지 총 4개의 큰 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총 2일간의 행사 날짜에 걸쳐 각 스테이지는 다양한 주제와 기업, 연사들로 구성된다. 또한 부수적인 공간에서는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무료 에스프레소 바와 코워킹 스페이스¹⁰가 상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주제 혹은 관심 연사를 따라 제약 없이 모든 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적에 맞게 공간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메인 스테이지 입구 ©강유선



행사 시작 전 메인 스테이지 ©강유선



포럼이 진행 중인 메인 스테이지 ©강유선



연사 입장 전 딥 다이브 스테이지 ©강유선



에너지 스테이지 전경 ©강유선



슬루션 스테이지 전경 ©강유선



공식 스폰서 네스프레소의 에스프레소 바 ©강유선

나. 행사 추구 방향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위해 자체 디자인 브랜딩 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사 전반에 적용했다. 이는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여 참가자들이 행사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왔고, 행사의 철학과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여 행사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그들이 집중하고자 했던 행사 추구 방향성 4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평등성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지속 가능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며,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모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사는 매년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 전시가 끊이지 않는 '메세 베를린'에서 진행된다. 지상 3층, 23개의 비행기 격납고 크기의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목적만 있다면 누구나 제약 없이 모든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눈여겨볼 점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스타트업 랜드(Start-up Land) 구역이다. 전 세계에서 선정된 5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각자의 개성 넘치고 역동적인 부스 디자인을 뽐내며 잠재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스타트업 랜드 뒤편에는 야외 공간으로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다. 시원한 분수대와 앞뜰이 펼쳐진 넓은 야외 공간에서는 저렴한 푸드트럭 음식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물리적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행사의 묘미를 끌어 올렸다.



코워킹 스페이스(2층)에서 바라본 스타트업 랜드(1층)



스타트업 랜드 참가기업 BetaFish의 마케팅 부장 Thao Trinh ©강유선



메세 베를린 뒤편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 ©강유선



야외 공연장 옆에 준비한 푸드 트럭 ©강유선



넓은 야외 공간과 분수대, 그리고 휴식 공간 ©강유선

11
유니버설 디자인(영어: 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보편적 설계)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이라고 한다.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선진화된 공간 디자인의 영역.

둘째, 유니버설 디자인¹¹

내부 전시장에서는 행사의 주요 목적을 잃지 않도록, 공간의 80%는 모빌리티, 디자인, 신소재, 패션 및 생활 가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물론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일답게 다양한 형태의 참가자 및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의 배리어프리¹² 요소는 필수로 채택되었다. 발이 닿는 쇼케이스 공간 중간중간에는 낮은 높이의 넓은 벤치와 함께 세로 전광판을 설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슬로건을 담은 짧은 영상을 재생시킨다. 이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넓은 행사장 안에서 잠시나마 물리적인 피로감을 낮추고 시각적인 환기를 돕는다. 또한, 같이 배치된 벤치는 낮은 이들이 앉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광장으로도 이용된다.



참가기업 소개 비디오 스크린과 벤치 ©강유선



행사 슬로건 홍보 영상 스크린과 벤치 ©강유선

행사장을 덮은 시각 디자인은 간결하지만 강력하다. ‘그린테크’라는 타이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상징적인 톤다운 그린과 미래지향적인 악센트가 조화를 이루는 네이비 색상을 메인 컬러로 사용했다. 또한 모든 시각 자료에는 깔끔한 산세리프 글꼴을 사용하여 정보 전달을 강화하였으며, 명확한 아이콘과 픽토그램을 삽입하여 영어나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도 행사장의 위치와 쇼케이스 부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사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크게 표시하고 세리프¹³를 제외하여 가독성을 높여 다양한 크기와 환경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모든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행사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복잡한 메시지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여 모든 참가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며, 행사의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13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와 기호를 이루는 획의 일부 끝이 돌출된 형태.



행사장 초입에 배치된 스폰서십 포토존 ©강유선



공식 로고와 행사 홍보 영상 스크린 ©강유선



행사장 출구에 배치된 웰컴 사이니지 ©강유선

셋째, 리사이클링 디자인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스를 제외한 행사장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벤치, 책상, 캔버스 백, 식음료 컵 등 모든 물품을 리사이클 재료로 만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종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모든 행사 관련 정보를 담은 브로슈어는 인쇄물이 아닌 곳곳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한다. 이는 참가자들이 현장 사진 및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할 때 행사 진정성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똑똑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사용 합판으로 만들어진 공용 벤치 ©강유선



네스프레소 바에서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강유선



네스프레소 바에서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강유선



리유저블 컵으로 제공받는 무료 탄산수 ©강유선



공식 스폰서 ChariTea(차리티) 사의 무료 음료 ©강유선

넷째, 글로벌화와 포용성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최선의 포용성을 위해 링구아 프랑카¹⁴인 영어를 주 언어로 채택하여 기본 디자인 체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선택은 독일어를 모르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얻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은 비단 언어뿐만 아니라 채용에도 적용되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내부 직원은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채용된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아시아 등 독일어를 할 수 없더라도 채용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행사 곳곳에서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일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실전에 투입된다고 한다. 이는 행사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모든 국적의 참가자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영리한 장치로써 작용한다.

학생 자원봉사자 인터뷰

리포터: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린테크 페스티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Erick: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세, 케냐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Erick입니다. 그린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라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 창업 기회를 모색하고 싶었어요.

리포터: 그린테크 페스티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된 과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여정이 있었나요?

Erick: 학교에서 그린테크 페스티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신청했어요. 독일어를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만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리포터: 자원봉사로서 근무에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Erick: 힘든 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학생이고 또한 훈련생이기 때문에 많은 걸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채용한 매니저 또한 그 방향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업무는 작게 나뉘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할당됩니다.

리포터: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행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Erick: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글로벌화 전략은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한 덕분에 많은 외국인 참가자가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언어적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2019년 그린테크 페스티벌이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첫 행사부터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어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과 기술 발전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2021년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 개최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그린테크 페스티벌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 논의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22년 점차적인 일상 회복과 함께 현장 참여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시 규모와 참여 기업 수가 확대되었다.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을 향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2023년 다양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정책을 선보이며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했다. 새로운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와 실천을 더욱 확대하였다.

2024년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파급력과 범위를 확장시켰다. 올해부터 베를린을 포함한 4개의 도시에서 개최되며,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업계의 선도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UN 및 여러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¹⁵를 적극적으로 선점하며, 국제 협력과 혁신의 주요 아고라로 자리 잡았다. 더 나아가 기술 전시, 패널 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르러 비로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속 가능성 박람회 중 하나로써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 글로벌 지속 가능성 논의의 중심이 되는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15 특정한 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주도권과 자발적인 계획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가. 사회적 파급력

그린테크 페스티벌(GreenTech Festival)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개인과 기업의 환경 인식 변화를 촉진함은 물론,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및 강연을 통해 최신 지속 가능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미래 세대의 교육에 기여한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했다.

나. 사업적 파급력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기업에도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의 규모에 규제 없이 자사의 최신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확장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스폰서십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 프로젝트 개발에 잠재력을 부여할 수 있다. 글로벌 행사인 만큼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에게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협력을 통해 기업과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그린테크 페스티벌에서 운영하는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의 기대 효과이다.

첫째,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지속 가능성 캠퍼스

그린테크 페스티벌에서 운영하는 지속 가능성 캠퍼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지식과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의 기반이다.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미나를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ESG 경영 수업을 제공한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지속 가능성 캠퍼스의 기대 효과

-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의 통합: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및 경제적 이익 극대화.
- 전문가 네트워킹: 혁신 역량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탐색.
-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방식 도입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직원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직원 역량 증대.

둘째, 투모로우 응용 과학 유니버시티와의 교육 협약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투모로우 응용 과학 유니버시티(Tomorrow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 협약은 젊은 세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투모로우 유니버시티와의 교육 협약의 기대 효과

- 미래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기술 혁신을 주도할 리더 양성.
- 도전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창업 동기부여.
-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 업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필수 기술 전파 및 학생 경쟁력 강화.

라. 기대 효과 및 추가 성과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지속적 운영은 다음과 같은 추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지속 가능한 기술이 소개되고, 이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 참가자들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사회적, 사업적 파급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대 효과와 추가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테크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도자인 미래 인재들을 교육하고 성공적인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성 분야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진정한 윈-윈 관계¹⁶를 기대할 수 있다.

¹⁶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꾀하는 전략.

5 접근성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혁신을 소개하는 국제 행사로,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편의성 제공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행사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목적성을 강조한다.

가. 도시 접근성 확대 : 다양한 도시에서의 개최

2024년 5월 베를린에서의 첫 개막을 기점으로 런던,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총 3개의 주요 도시에서 독자적인 추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도시에 방문 기회가 있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행사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유럽, 아시아, 미주의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나. 메세 베를린, 베를린 중심 위치 선정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은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주요 개최지 중 하나로, 뛰어난 위치와 접근성을 자랑한다. 메세 베를린은 베를린 중앙역(Berlin Hauptbahnhof)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기차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며, 도시 내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S-Bahn, 버스, 트램)과도 잘 연결되어 있다. 또한, 베를린 테겔 공항(Tegel Airport)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Berlin Brandenburg Airport)에서 행사장까지의 직행 교통편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 항공편으로 도착한 참가자는 공항 셔틀버스 및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방문이 가능하다.



메세 베를린 건축물 전경 ©https://bit.ly/messe-berlin-1



메세 베를린 건축물 전경 ©https://bit.ly/messe-berlin-2



메세 베를린 입구와 행사 배너 ©강유선

다. 최적화된 교통 인프라

참가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자전거 주차장을 제공하고, 자동차 주차 공간을 제한하였다. 특이한 점은 올해부터 독일의 도이체반(Deutsche Bahn)과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할인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 스쿠터 TIER 사의 이용권을 통해 베를린 시내의 단거리 이동 편의를 높였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제안을 통해 행사의 환경친화적 비전을 강화하고, 더 많은 참가자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접근성 강화 조치는 행사 참여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적 접근성을 넓히며, 가상의 참여를 통해 그린테크 페스티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제약 없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꿈꾸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6 서울 적용 방안

가.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의 그린테크 기술과 융합 아이디어 제안

실질적으로 그린테크 관련 업계를 키워나갈 원동력과 기술에는 ‘에너지, 수소, 음식, 재료, 모빌리티, AI, 아트앤컬처, 생활, 순환, 그린 빌딩 및 스마트 시티, 인프라, 물, 재정, ESG’등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컨대 ‘ESG’ 경영이다. 이는 에너지, 수소, 음식, 재료 등 모든 분야의 기술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인간의 윤리 원칙과 평등성, 투명성에 대한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이 잘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그린테크 관련 스타트업이나 기존 기업들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서울시 또한 그린테크 페스티벌의 이러한 가능성의 일부를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술력은 기존 대규모 기업들을 통해, 아이디어 제시와 성장 원동력은 스타트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교환하여 발전시키는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더욱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 국제적인 아이덴티티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Klein Grüner Bahnhof(작은 그린 역)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DB(도이치 반)라는 독일 내 대규모 철도 기업이 개발한 지속 가능한 재료, 지열 및 태양광 시스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차역 설계와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프로젝트의 물리적 개발 과정을 모두 DB사에서 독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소규모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일을 분산하여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행사 참가기업 DB 사의 작은 그린 역 프로젝트 담당 직원 인터뷰

리포터: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당신이 속한 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작은 그린 역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프란지스카 클렌베르그: 안녕하세요. 저는 DB 사의 지속 가능성 개발팀 소속의 프란지스카 클렌베르그라고 합니다. 우리 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은 그린 역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기차역을 설계 및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역을 이루는 소재들은 지속 가능한 재료, 예를 들어 재활용 알루미늄과 녹지 지붕을 사용합니다.

리포터: '작은 그린 역 프로젝트'라니 흥미롭네요!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요, 당신의 발표를 듣다 보니 한국에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프란지스카 클렌베르그: 한국도 친환경 에너지나 지속 가능한 건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가요?

리포터: 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발전소나 친환경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은 전 세계에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여러 친환경 건축물을 세우고 있죠. 말씀하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자면, 한국에도 DB와 비슷한 사업 형태의 기업인 KORAIL이 존재합니다만 당사의 친환경 기차역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프란지스카 클렌베르그: 우리 또한 아직 실험 과정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DB만의 선구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설치 중인 기차역 개장은 2024년 여름쯤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인터뷰 중인 프란지스카 클렌베르그 ©강유선

나. 연례행사 발전 및 글로벌 참여도 확대

서울시는 그린테크 페스티벌과 유사한 스펙트럼의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기술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에 앞장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행사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 테마를 시각적으로 반영한 로고와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행사 포스터와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기술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경제, 과학, 예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 미래 준비와 세계적 매력 및 시민 영역의 활용

해당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통해 EXPO와 같은 글로벌 행사를 유치할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고, 국제적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영역의 개발을 가속하여 멀티-섹터 엑스포 제안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본격적인 도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제2 출입구에 설치된 베를린 엑스포 2035 홍보 배너 ©강유선 베를린 엑스포 2035 홍보 캔버스 백과 덮서 스티커, 스트링 ©강유선

7 마무리하며

시대의 순행에 따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은 지속 가능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제 행사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자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린테크 페스티벌이 다루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 지속 가능한 건축, 그린워싱 대응 등 다양한 주제는 서울만의 독특한 도시 배경과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편견과 선호를 좇는 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윈-윈 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및 유럽과 미주의 선진 도시들이 참고하고자 하는 래퍼런스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솔루션 구현을 지원하고 테스트 실험실 및 구현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가 자원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지속 가능성의 문화를 만들고 그 일부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서울은 아시아의 '지속 가능성 메가시티' 타이틀을 얻기 위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영상

국가	독일
도시	프랑크푸르트
분류	디자인 행사

플랫폼 시티 프랑크푸르트의 MICE 산업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세계적인 박람회 유치를 중심으로

김경현 독일 포르츠하임 대학교에서 운송 디자인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기자자동차 프랑크푸르트 디자인 센터에서 인턴을 거쳐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랑스 니스 스튜디오에서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인턴으로 실습 중입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사용자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minipicasso@naver.com

독일의 경제 수도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교통, 금융 중심지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적인 박람회와 페어, 행사를 주최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모이고, 떠나고, 또다시 찾는 플랫폼 시티로 성장했습니다.

메세 프랑크푸르트 주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박람회를 유치하여 다가오는 2026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만큼, 프랑크푸르트의 각종 디자인 페어의 종류와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글과 영상에 담았습니다.

GERMANY, FRANKFURT

1 들어가며



1 독일의 경제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시내 전경

1, 프랑크푸르트 시내 전경 © 김경현

공향으로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도시, 인구 75만 중 25퍼센트가 외국인인 도시, 연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 프랑크푸르트가 2026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로 독일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이로써 미래에 디자인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그 중심에는 세계적인 박람회를 유치하며 국제적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같은 프랑크푸르트의 성격이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한 분야와 다른 분야가 만나는 경계에서 탄생한다는 말처럼, 창의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2 프랑크푸르트 MICE 산업의 배경



2 메세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 메인 입구

2, 메세 프랑크푸르트 입구 © 김경현

역사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라인 강과 마인 강이 만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무역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1세기 초부터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프랑크푸르트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독일의 시장으로 평가받으며 가족, 공예, 전자기술, 자동차 등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역 근처로 전시장이 이전한 것은 19세기 독일 제국 시절 농업 박람회를 개최

하면서부터이며, 글로벌 이벤트 주최사 메세 프랑크푸르트 그룹을 앞세워 프랑크푸르트 도시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이벤트의 절반 정도는 전 세계를 무대로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세는 독일어로 무역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은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 호텔, 레스토랑, 택시 등에도 부가 수익을 부여하고, 도시 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며 나아가 프랑크푸르트에 약 10만, 독일 전체에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을 겪으며, 2019년까지 매년 5%씩 매출이 성장하던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오프라인의 일시적 종말을 맞으며 대부분의 박람회 일정이 취소, 연기되는 만큼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모든 전시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 성과적인 측면에서 팬데믹 이전으로 전부 회복한 모습을 보이지만,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이벤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중 대표적으로 소비자 박람회 Ambiente, 도서 박람회 Buchmesse, MICE 산업 박람회 IMEX, 유로바이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전시 내용과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 증진의 도입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3 소비자 박람회 Ambiente (Ambiente)



3 2024 Ambiente Ambiente

3, Ambiente 트랜드 2024 © Messe Frankfurt

매년 1월 말~2월 초경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급의 소비자 무역 박람회로, 메세 프랑크푸르트 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전시 카테고리로는 크게 주방 관련(Dining), 인테리어 소품(Living), 문구(Giving), 사무용품(Working)이며, 2023년부터 규모를 키워 계절 및 축제 장식 관련 무역 박람회인 크리스마스월드(Christmasworld)와 취미, 수공예품, 예술용품 무역 박람회인 크리에이티브월드(Creativeworld)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5일간 170개국에서 약 4,500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약 10만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관람객의 75퍼센트가 외국 국적으로, 국제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벤트가 아닌, 도쿄, 상하이, 두바이에서도 각각 6월, 10월, 11월에 소비자 박람회를 주최하여 1월 말 프랑크푸르트 Ambiente를 포함하면 연중 내내 일관성 있는 이벤트를 각기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물리적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비엔테는 디지털 부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체 온라인 플랫폼 콘Zoom 솔루션(Conzoom Solutions)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여타 국제 소비자 박람회의 소식을 통합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2개월에 한 번 온라인 강연을 듣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 웹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연결성 강화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지는 1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3D 프린트, 주방용품, 유리공예 등 테마별 디자인 하이라이트를 피드에 이미지로 요약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 참여 업체는 스탠드 구역을 배정받은 뒤 스탠드를 구성할 때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세 프랑크푸르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 모듈러 스탠드 설비 업체 페어컨스트럭션(Fairconstruction)을 통해 스탠드의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필요한 바닥재, 가구, 조명 등을 개별적으로 주문·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장바구니를 통해 컨설팅사, 시공사, 관리사가 함께 계획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독일디자인어워드(German Design Award), 헤세 주립상, 주방혁신상 등 다양한 디자인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Plagiarus Award라는 표절 상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유죄판결을 받은 위조 제품에 시상하는 상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양심성을 고발하고 디자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반상입니다.

지속 가능성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 기준을 지킨 제품을 찾음에 따라 암비엔테의 최근 트렌드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시 참여 기업에게 Ethical Style이라는 라벨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을 찾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thical Style을 부여받기 위한 심사 조건으로 첫 번째, 환경에 영향이 적은 재생 가능 원료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소재 제품', 두 번째,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은 '자원 친화적 제품', 세 번째, 생산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제품', 네 번째, 재활용을 고려한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 수공예 기법을 유지하는 '수제 제품', 원자재, 에너지, 자원을 보존하는 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지속 가능성 혁신 제품'으로 6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접근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메세 주 전시장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중앙역에서 한 번 환승하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까지 S-Bahn 8, 9번 교

외 열차로 약 20분 정도 이동한 후, 중앙역에서 전시장까지 U-Bahn 지하철 4호선 또는 S-Bahn의 다른 호선으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시인 만큼, 공항으로 도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부여하고 독려하기 위해 박람회 입장권에 당일 프랑크푸르트 내 대중교통 무료 이용 티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등급에 따라 할인된 입장권 또는 동반 1인까지 무료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자가 이용하는 주차타워가 아닌 평지에 마련된 별도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내고 휠체어와 스쿠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내 건물들 사이를 이동할 때 촉촉한 무빙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동 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총 44개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열쇠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도서 박람회 (Buchmesse)



4 2023 도서박람회 외부 모습

4, 2024 도서 박람회 외부 © Messe Frankfurt

문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사회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는 단순히 출판사에서 책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회를 넘어서, 문자로 전달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식이 주기적으로 한곳에 모여 교류하고 건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도시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구텐베르크가 프랑크푸르트 근방 마인츠라는 지역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출판 미디어 박람회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2차 대전 이후 1949년 공식적으로 개최되어 2023년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세인트 폴 교회에서 200여 개의 독일 출판사들만 참가하며 시작한 도서 박람회는 점차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이 참가하며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방문객 수와 참가 기업의 수가 늘어나며 규모를 키워감과 동시에 국제적 이해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평화상을 시상하고, 프랑크푸르트 파빌리온을 통해 국제적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주변국과 슬로건을 갖춘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해 매년 10월 중순경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도서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지만, 곧 엄격한 방역 속에 2021년도 박람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코로나로 인한 시대의 변화와 전략에 대한 토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인권 시위와 관련한 의제가 설정되었고, 2023년 기준 약 21만 명의 방문객과 약 4천 개의 참가업체를 기록하며 코로나 시기 줄어들었던 규모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도서전의 주빈국은 이탈리아로, 'Roots in the Future'를 표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는 눈에 잘 띄는 빨간색 카펫과 비교적 눈에 덜 띄는 회색 간판을 사용해 관람객의 분포와 동선을 최적화하도록 계획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박람회장 터치 모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박람회장의 3차원 형상을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서비스, 휠체어와 전기 스쿠터 대여, 장애인 등급에 따른 할인 티켓 또는 동반 1인까지 무료입장 등이 제공됩니다.

지속 가능성

가장 먼저, 부스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와의 협력과 전시 참여 업체들의 지원으로 박람회 기간과 이후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비율을 90퍼센트까지 높였습니다. 재사용이 힘든 카펫과 안내판 등도 주변 자선단체, 공방, 공연장, 디자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가방, 공방 재료, 무대 장치 등으로 재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 참여 업체와 방문객이 전시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독일 철도 Deutsche Bahn과 협력하여 할인된 장거리 열차 티켓을 제공하고, 전시 업체 패스와 방문객 입장권으로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럽 최대 MICE 산업 박람회로, 전 세계 MICE 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홍보하고 새로운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2023년 IMEX의 경우, 전 세계 94개국에서 약 3,800명의 구매자가 모여 약 57,000건의 미팅이 열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MICE 산업을 위한 MICE라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를 MICE 산업 중심지로 전 세계에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메세 프랑크푸르트 메인 전시장에서 매년 5월 4일간 열리며, 첫날은 무료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둘째 날부터 대중적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시 기간 동안 세계 각 나라의 부스에서 주로 관광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과 바이어 미팅, 특색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은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공사 2개의 부스를 마련해 국내 MICE 산업 관련 기업·기관과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9~10월에는 IMEX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도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MICE 산업 박람회 (IMEX)

2024/2025년도에는 지구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책임이 있다는 'IMPACT'를 메인 토픽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촌 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변화하기 위한 영감을 받아가는 이벤트가 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오직 오프라인 네트워킹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IMEX RUN 프로그램

5, IMEX RUN © Messe Frankfurt

참가자와 방문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하지 않는다)과 환경적 책임(탄소 상쇄 프로그램,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 이용)을 지키겠다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 가능성 정책은 미트그린(Meetgreen)이라는 지속 가능성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전시의 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IMEX는 비엘 라운지와 마라톤 프로그램인 IMEXRUN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엘 라운지는 방문객들이 전시 중간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전시장 한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IMEXRUN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의 시간대에 마인 강변을 따라 5km를 달리는 행사입니다. IMEX 로고가 적힌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행사를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IMEX 참가를 위해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마인 강변을 따라 뛰면서 도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협력 업체를 통해 애프터 파티 형식의 네트워킹 행사를 열고 있는데, 인센티브 여행에 관련된 네트워킹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 SITE에서 주최하는 SITE Nite Europe, 이벤트 비즈니스 관련 매거진 CIM에서 주최하는 CIM 클럽 라운지, 웨라톤 호텔에서 격식 있는 만찬과 식사식을 볼 수 있는 IMEX 공식 네트워킹 사교 행사인 갈라 디너, 협회 리더들을 위한 교육 어소시에이션 포커스(Association Focus), 공공정책 포럼, 교육 행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끌만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고 물리적 부스가 철거되는 MICE 산업 특성 상, IMEX도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와 폐기물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넷 제로'라는 ESG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이행 과정을 보면, 2024년 기준 전시 업체들의 에너지 소비를 전년 대비 12퍼센트 감소시키고, 행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이벤트 폐기물에 대해 거의 99퍼센트 재활용하는 성과를 내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버리(Cloverly)라는 탄소 배출권 관련 협력 업체를 통해 참가자들이 출발 도시와 교통편을 입력하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대략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 플랜을 구매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2019년까지 매년 5퍼센트씩 매출이 성장하던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오프라인의 일시적 종말을 맞은 코로나19 시기 대부분의 박람회 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만큼 큰 손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를 디지털 전환의 계기로 삼아 유튜브와 블로그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365일 작동하는 데이터 관리 서비스 Nextrade와 Conzoom Solutions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합니다. 그중 Conzoom Solution은 소비자 박람회 Ambiente의 온라인 콘텐츠 허브로서 뉴스룸을 통한 트렌드 동향 정보 전달과 홍보를 담당하며,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업체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도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오프라인 행사의 참여 업체와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되었지만, 구축해 놓은 온라인 이벤트와 함께 하이브리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의 오래된 도시 구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오래된 대도시들은 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로 자전거가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자전거는 취미 레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동성에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미래 도심형 모빌리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로바이크는 세계 최대 규모 자전거 박람회로 2022년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왔습니다. 2021년 세계 최대 자동차 박람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AA가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논란 속에서 규모가 축소되고 원헨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유로바이크를 통해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프랑크푸르트로 옮겨진 이후 2년째 약 10퍼센트씩 방문객 수가 성장하여 2024년 현재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1,900개 업체가 참관하였고 약 3만 5천의 비즈니스 관람객과 약 3만 2천의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Hello Future, Hello Transformation으로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외에도 자전거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박람회 일정 5일 중 수, 목, 금 3일은 비즈니스 데어로 바이어들과의 B2B 미팅, 주요 콘퍼런스를 일정에 배치하였고 주말 2일간은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 자전거 체험 코스, 퍼포먼스 콘테스트를 일정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은 크게 8, 9, 10, 12 실내 전시홀과 건물들 사이에 배치된 야외 전시홀과 트랙, 묘기를 볼 수 있는 야외 액티브 존으로 나뉘고 자전거 외에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헬멧 의상과 같은 액세서리까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유로바이크는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주관하는 여타 이벤트와 같이 티켓에 대중교통 이용 옵션이 포함되는 점,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하는 점과 함께 차별화된 친환경 전략으로 박람회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자전거 전용 주차 공간과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을 마련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설하는 등 활동을 통해 2022년 기준 약 70%의 방문객이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 전시장에 도착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6 자연채광을 활용한 천장 구조와 모듈러 부스 시스템

6, 자연채광 천장과 모듈러 부스 © 김경현



7 2024 유로바이크에서 마련한 자전거 주차장

7, 유로바이크 자전거 주차장 © 김경현

6 유로바이크 (Eurobike)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 이벤트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 DDP와 코엑스의 MICE 산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의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과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성 전략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중에 편리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방문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 시설의 확장, 서울메트로와의 협업을 통해 행사 티켓 구매 시 주차장 무료 이용을 제공하기보다 당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티켓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버스 건설 부품을 최대한 공유하는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해 버스 설치와 철거 시 재활용률을 높이며, 이벤트 폐기물을 재활용한 디자인 제품 또는 콘텐츠를 추가한다면 서울이 가진 트렌디함,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깨끗한 시설 등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더 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플랫폼의 공룡으로 볼 수 있는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MICE 산업은 지리적 이점으로 시작해 오랜 기간 높은 인지도와 방문객 수를 유지한 것이 현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프랑크푸르트의 MICE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모터쇼로 명성을 떨치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2019년을 마지막으로 뮌헨으로 떠나갔고, 이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베를린에서 2021년에 야심 차게 가져온 프랑크푸르트 패션위크는 코로나 기간 연기되다가 2022년 첫 전시만에 작은 규모의 패션 라운지만 남기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대체제로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쉽고 빠르게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에 대중들이 익숙해지며 다시 오프라인 박람회 사람들이 찾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019년의 성적으로 완전히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 디지털 전환,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진정성 있는 경험의 발굴, 지속 가능한 이벤트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며 온라인이 효율적인 부분, 예를 들어 정보 전달과 홍보에서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또는 프랑크푸르트 외 지역에서 전시에 대해 뉴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콘셉트 설립과, 간결한 홍보를 위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이 가진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장점은 진정성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벤트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더 빠르게 넓은 범위에서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진정성 있는 네트워크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MICE 산업이 집중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마인 강변을 달리는 IMEXRUN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방문자들이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를 찾아오게 만드는 오프라인만의 장점을 살린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시장에서 환경적, 윤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큰 만큼 짧은 기간 물자 이동이 필요하고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MICE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전략을 수립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용화 모듈러 부품으로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자재의 90퍼센트 이상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낸 부분, 독일 철도 DB와 협업을 통해 전시 티켓에 당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 먼 거리에서 방문할 경우 기차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전략과 사례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시장의 MICE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참고할 부분은 지속가능성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이나 팝업 스토어와 같이 트렌디한 경험의 제공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에 있지만, 유럽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만큼의 지속가능성 분야는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러 협력 업체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예를 들어 버스 모듈러 시스템과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 관련, 탄소 배출 상쇄 프로그램, 전시장 소품의 친환경 소재 및 업사이클링 제품 활용 등을 도입해 나간다면 서울시의 MICE 산업이 기존의 트렌디하고 모던한 이미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또 하나의 K-컬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DESIGN EXHIBITION

디자인 전시회

: 디자인 감각을 깨우자!

MILANO

310

이탈리아, 밀라노 | 국제가구 전시회 SALONE DEL MOBILE 2024
디자이너 정명용(MICHI JUNG)과 떠나는 밀라노 가구 전시회 산책



19



유튜브 영상

국가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
분류	디자인 전시회

국제가구 전시회 SALONE DEL MOBILE 2024

디자이너 정명용(MICHI JUNG)과 떠나는 밀라노 가구 전시회 산책

정명용 MICHI JUNG	POLITECNICO DI MILANO- 밀라노 공대 산업디자인과 학사, 석사, 박사 중퇴, 현 밀라노 MICHI JUNG STUDIO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물론 이탈리아 다수의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michijung72@gmail.com
-------------------	---

밀라노 국제가구 전시회 SALONE DEL MOBILE는 가구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이 전시를 통해 세계 가구디자인 트렌드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로 62회를 맞이하는 밀라노 국제 가구전시회는 가정용가구와 부엌가구, 욕실 가구 등이 소개 됐다. 이러한 전시회를 현지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와 함께 둘러보며 올해 가구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ITALY, MILANO

ITALY, MILANO



1 들어가며

세계 디자인 도시를 말할 때 우리는 영국, 뉴욕, 밀라노, 파리 등을 생각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밀라노가 전 세계 디자인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생산 공장과 다양한 전시회가 열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탈리아의 디자인적 장점을 소개하며, 왜 이탈리아가 디자인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밀라노 가구 전시회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세계 가구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밀라노 가구 전시회를 보면서 올해 가구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추진배경

흑자는 이탈리아의 경우 조상을 잘 만나 그 관광 수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는 나라라고 들 말한다. 그러나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럽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독일에 이어 많은 제조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이탈리아 밀라노가 디자인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인을 말할 때 자동차, 가구, 조명, 패션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가구 전시회와 이 전시를 통해 밀라노 도시가 얼마만큼 큰 수익을 얻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2024 MILANO DESIGN WEEK
Salone del mobile 2024

이탈리아 가구 전시회 Salone del Mobile는 업계의 최신 기술은 물론, 인테리어의 미적, 정서적 가치를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업체 간 비즈니스 연결이 이루어지는 최대 비즈니스 박람회이다. 진화와 혁신은 국제 디자인 산업의 중요한 기준점을 가장 잘 정의하는 핵심 단어이다.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는 가구 산업의 발전과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전 세계 가구 디자인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최대 박람회 중 하나이다.

국제 가구 전시회 Salone del Mobile은 격년으로 가구, 사무용 가구, 조명과 가구, 부엌 가구, 욕실 가구로 각각 두 개의 큰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가정용 가구 Salone del Mobile, 부엌 가구 FTK (Technology for the Kitchen), 욕실 가구 Salone Internazionale del Bagno 등의 전시가 이루어졌다.



EuroCucina 2024

이번 전시에는 욕실 및 주방 전용 전시 공간을 다채롭게 기획해, 새로운 방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00여 개의 업체가 부엌 섹션에 참가하는데, 이 중 2, 4관이 메인 관으로 부엌 가구의 디자인 트렌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주방 프로젝트는 유쾌함, 웰빙, 평온, 자연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라는 복잡한 시대의 이야기와 가치를 반영했으며, 부엌제품의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FTK, Technology For the Kitchen부스에서는 올해의 혁신적 제품 및 프로토타입 등이 발표돼, 미래 기술을 볼 기회를 제공해 줬다.



Salone internazionale del bagno 2024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국제 욕실 전시회는 제품 기능성, 에너지 소비 등 기능과 미적인 요소가 결합한 전시로, 욕실 가구 관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이다. 전시관 6.10번에 18,000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에 180개 전시업체가 참가하며, 가구와 액세서리, 샤워 캐빈, 워생 도자기부터 라디에이터, 수도꼭지, 욕조 등 세계 최고의 제품을 선보였다. 욕실은 거실의 확장을 의미하는 현대 트렌드에 맞게, 거실과 같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과 기능성을 높인 시스템 가구가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젊은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인 Salone satellite에 전 세계 총 600명의 디자이너와 22개 디자인 학교가 참여했다.



국제가구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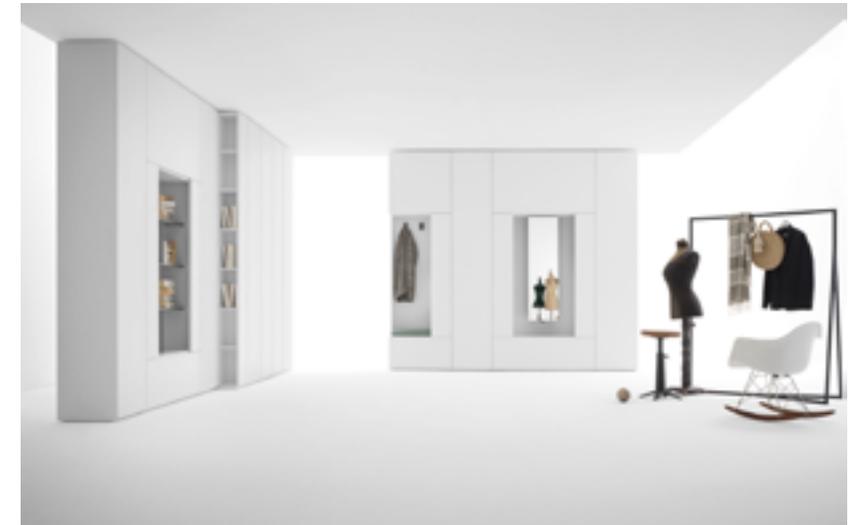
SALONE DEL MOBILE 2024 디자인 트렌드

가구 디자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밀라노 가구 쇼는 앞으로 디자인 발전에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적용을 보여주는 디자인적 특징은 앞으로 가구산업의 방향성을 미리 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밀라노 가구 전시회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겠다. 2024년 밀라노 전시회에서 나타난 디자인적 특징을 살펴보면 향후 디자인의 방향성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맞춤형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다양한 시스템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점점 요구되는 것은 아마 기존 구조적 벽의 의존도를 떠나 자유자재로 공간을 연출하고 자는 니즈일 것이다. 맞춤형 칸막이, 보이세리(나무 벽면 장식), 벽장형 출입도어 등이 있는 시스템 옷장은 기존 단순한 건축적 솔루션이 아닌 디자인적으로 풍요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가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가구들은, CACCARO, MOLteni&C, PORRO, POLIFORM 등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위 특징의 가구 조합을 통해 공간의 다양한 연출과, 표면처리 등 디자인적 우수성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버건디(와인 색상) 마감재를 통한 다양한 연출.

버건디 색상의 사용은 고가 제품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다. 와인과 루비 레드 사이의 중간 색상이 주는 신비로움과 깊이감을 느끼게 하는 버건디 색상은 고급 가구의 가치를 높여주는 색상으로 살로네에 참가한 다양한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특징이기도 했다.

Minotti, Radice, Lago 및 Baxter등이 2024 컬렉션에 버건디 색상을 채택한 것만 보아도향후 고가 가구의 트렌드가 버건디로 갈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에서 버건디 외에 오렌지, 그린 등의 색상을 볼 수 있었다면 푸오리 살로네의 경우 여러 이벤트와 행사에도 버건디 색상을 많이 사용해 가구뿐 아니라 패션 등 다양한 디자인 업체에서 시그니처 수 있는 버건디를 채택한 것만 보아도 이 색상이 전체적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운드 형태의 마감.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라운드 형태의 웨입은 올해 들어 확실하게 그 자리를 잡은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업체에서 라운드 형태의 제품들을 선보였다. 라운드의 곡선은 실내 장식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구 및 가구 액세서리로 확대되고 있다. Meridiani의 반달형 침대협탁이나 Gallotti & Radice의 원통형 찬장, Poliform의 Duke 모델, 등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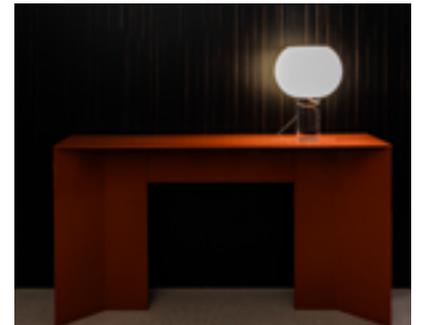
레트로 바이브(Retro Vibes): 70년 이후 디자인에 동경.

과거를 돌아보되 그 향수에 따라가지는 않는 디자인. 레트로 디자인의 특징은 이번 년도에 많은 스탠드에서 보인 특징으로 70년대 디자인을 새로운 재료를 적용해 전시하고, 이 특징들을 디자인 모티브로 해서 보이는 제품들이 많이 선보여 졌다. 과거의 디자인을 돌아보며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의 탄생을 보여준다. Giampiero Tagliaperri가 디자인 한 Minotti의 Supermoon 컬렉션은 원형에 도화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커피 테이블, 벤치 및 안락의자 등으로 완성되고 있으며 덮개를 씌운 모듈형 가구는 70년대의 디자인적 영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빈티지의 경향은 로즈우드 벽면과 카페트 등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디자인적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빈티지 디자인의 영향은 발전에 Molteni & C의 창립 90주년 기념에 소개된 Vincent Van Duysen이 디자인한 컬렉션 등을 통해 디자인 거장 Piero Portaluppi의 작품을 다시 유행시키며 과거 디자인에 세련미를 접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광택 있는 표면, 래커, 가죽 소파, 펜던트 가죽 조각, 테이블 베이스, 철재 디테일 등은 우리에게 과거 디자인적 회귀를 보여주는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구 디자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밀라노 가구쇼는 향후 디자인 발전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적용을 보여주는 디자인적 특징은 향후 가구산업의 방향성을 미리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밀라노 가구 전시회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겠다. 2024년 밀라노 전시회에서 나타난 디자인적 특징을 살펴보면 향후 디자인의 방향성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라이트 우드

물푸레나무, 티크, 생참나무, 내추럴 참나무 등은 올해 생활공간에서 쉽게 접할 디자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어두운 나무의 사용은 지속하겠지만 새로운 밝은 색 나무의 사용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밝은 나무의 사용은 주변환경에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가구가 주는 딱딱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함은 물론, 밝은 느낌의 마감은 공간을 보다 자연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보이는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무늬 세라믹, 대리석 무늬 레진 등 대리석은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의 많이 사용된 재료일 것이다. 표면재에 있어서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통해 제품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어서 모든 고객의 취향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리석 또는 대리석 무늬 세라믹의 사용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으로, 제품의 장식하는 조각 혹은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표면 재료, 통합적이지만 작은 요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품의 특징을 살려주는 요소로 사용되며, 금속, 가죽 등과의 조합을 통해 제품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attelan Italia는 Keramik 컬렉션에 추가된 새로운 Colosseo 세라믹 마감재를 사용해, 유백색에서 호두나무로 변하는 표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인트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다. Riflessi는 또한 Silver Root 마감재를 위해 Marazzi사와, Noisette Lucido 마감재를 위해 Florim과 같은 세라믹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동안 일본 대리석 대부분은 베르데 알피(Verde Alpi), 트라베르티네(travertine), 로소 레반토(Rosso Levanto)등이 적용됐다.



코너 열림 구조를 통한 개방성의 극대화.

이번 살로네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특징은 많은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코너 닫힘 메커니즘이다. 미학적 트렌드를 넘어 지속적인 효과로 문을 개방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흥미로운 기술로 이전 전반적인 지속하겠지만 자리 잡아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이러한 장소에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구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디자인적 투자가 이루어져, 언젠가 세계적 디자인 축제인 salone del mobile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4 추진 현황과 결과

1961년 시작해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한 밀라노 국제 가구전시회(salone del mobile)가 밀라노 RHO 전시장에서 (210,000MQ의 전시 면적, 코엑스 전시장의 7배)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2023년 대비 20.2%(전 세계 35개국 1950개 업체 참가) 증가했으며 관람객은 전년 대비 28.6% 증가 한 37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외국 관람객은 65.6%를 차지했다.

5 접근성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시 전체에서 열리는 푸오리 살로네는 가구는 물론, 디자인 관련 여러 기업이 참여해 *salone del mobile*가 진정한 디자인 축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23%가 증가한 이벤트들이 밀라노 시내 전역에서 열려 밀라노 찾은 많은 관람객에게 풍부한 볼 것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성공에는 지속 가능한 이벤트 개발과, 사람들과의 관계, 디자인, 패션, 예술 등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이라는 공통적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와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등이 이루어진 것이 성공의 주된 요인이라 하겠다.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가구전시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밀라노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FUORI SALONE는 가구 디자인 축제를 뛰어 넘어 전체 디자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가구 디자인 뿐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관련 행사가 이 기간에 열리면서 각 기업들의 마케팅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향후 밀라노 국제가구 전시회는 지금 보다 더욱더 큰 전시회 발전은 물론 전세계의 디자인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Salone del mobile - Rho fiera.

시작연도	1961년, 올해로 62회
전시구성	클래식 가구, 모던가구, 디자인 가구, Salone satellite(영 디자이너 등용문), 부엌가구, 욕실(격년 사무용, 조명)
전시기간	2024년 4월 16-21일 (일반인 관람 4월 20.21)
주요타겟	기업, 바이어 등 가구산업 관련 종사자.
전시장소	밀라노 RHO FIERA.

Fuori salone - 밀라노 시내에서 열리는 기획전시

전시구성	가구, 패션, 토탈 디자인 (이벤트성 기획 디자인 행사)
전시기간	2024년 4월 15-21일 (밀라노 피에라 전시장보다 하루먼저 열림)
전시장소	밀라노시 전 지역 ZONA TORTONA, BRERA, UNIVERSITÀ DEGLI STUDI DI MILANO, PORTA VENEZIA, TRIENNALE DI MILANO

6 서울 적용 방안

대한민국의 경우도 3차 산업만이 아닌 2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 제조업이 있다는 것은 디자인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90년대 이후 3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외치며 많은 제조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마 가장 큰 오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에 강하던 제조업 기반의 제품들이 점차적으로 그 힘을 잃어간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구 산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기존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싼 제품을 수입해 파는 것에서 비롯되다 보니 국내 업체들의 생산력 저하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디자인 도시인 서울시가 디자인의 장을 만들어 밀라노 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Salone del Mobile와 같은 전시회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업체들에게 비즈니스 장을 열어 줌으로써 가구 산업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높여 서울시가 동남아시아의 디자인 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가 갖는 디자인 파급 효과를 서울시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의 발전은 하나의 요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시, 기업 등이 서로 협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에 서울디자인재단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7 마무리하며

이탈리아의 디자인 수도 밀라노

이탈리아 내에는 약 31,896개의 디자인 관련 회사가 있으며, 약 50,226명이 이 회사들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2020년에 25억 유로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 회사들은 이탈리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60%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롬바르디아, 피에몬테, 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에 집중되어 있다.

중요 도시별 업체 분포도를 살펴보면, 경제 수도라 할 수 있는 밀라노에는 전체 디자인 기업의 20.5%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디자인 매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로마(6.7%, 5.3%), 토리노(5%, 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라노가 속해 있는 롬바르디아 주는 이탈리아 전체 부가가치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큰 부가가치를 밀라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도시의 특성과 이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디자인 도시로서 목표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밀라노로부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서울에서도 하루 빨리 전 세계의 디자인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전시 및 행사들이 더욱 많이 열리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GRAZIE.



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
: 모두를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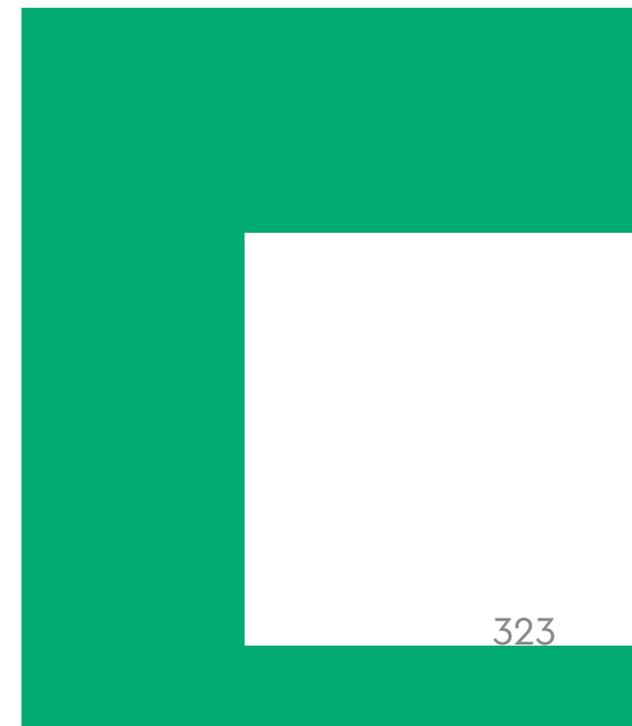


FUKUOKA

일본 |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공중화장실의 사례-오스트메이트(Ostomate)를 위한 시설관련

324





국가	일본
도시	후쿠오카
분류	유니버설 디자인

후쿠오카의 공중화장실

오스트메이트(Ostomate)를 위한 시설

이윤규

국내의 제품디자인 현장에서 10년의 경험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깨닫고 일본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디자이너
leeyk072@naver.com

후쿠오카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라는 컨셉을 수립했다. 이는 일본 전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부터 태동되어 공공시설 내에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리포터는 너무나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오스트메이트(Ostomate)를 위한 공중 화장실을 소개하며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스트메이트(Ostomate)란?

‘장루(ostom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루는 대장이나 소장 등 소화기관 또는 방광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만들어진 인공적인 배출구이다.

JAPAN, FUKUOKA

1 들어가며

1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https://www.mhlw.go.jp/stf/newpage_21481.html

2 추진배경

1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https://www.mhlw.go.jp/stf/newpage_21481.html

2 장루(腸瘻): 창자셋길 이라고도 하는데, 창자 안과 외부를 연결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셋길 (표준국어대사전)

3 요루(尿瘻): 소변이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 회장과 요관을 연결해 복부로 소변이 배출되도록 만드는 길

4 한국장애인개발원

5 Crohn's disease: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6, 7 Kim, 2021, 오스트메이트 대응 세척기 디자인을 위한 선행사례 및 실태조사 분석

과학의 발전, 의료기술의 진보, 공공위생, 식생활 및 주거 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건강한 상태로 생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1947년~1951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団塊の世代 단카이세대라고도 함) 세대가 7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7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204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5%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제시되고 있다.¹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후생노동성 장애복지과에서 발표한 장애복지분야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일본 내 장애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장애인 수는 약 964만 7천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7.6%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적지 않다. 이 중 신체장애인은 약 436만 명이며, 이들의 74%가 65세 이상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상자를 수용하고 배려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장루·요루 장애 환자들은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고, 여가 및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장루²·요루³ 장애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루·요루 장애는 대변 기능 또는 배뇨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장루나 요루 시술(인공 배설 통로)을 통해 배설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외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부장애이다. 이러한 장애는 주로 암 치료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크론병⁵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장루·요루 장애 환자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메이트(인공항문, 인공방광을 보유한 사람)들은 외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지원은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⁶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루·요루 장애인은 16,012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공공화장실 중 인공항문 세척 시스템을 갖춘 시설은 수도권에 소수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서남단에 위치한 후쿠오카는 큐슈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일본 내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세 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 도시이다. 후쿠오카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니버설 도시 후쿠오카(ユニバーサル都市・福岡)”라는 슬로건을 수립하고, 다양한 장소와 대상에서 그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특

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후쿠오카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념이 공공시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해당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개요

8 유니버설도시·후쿠오카 직원 행동 지침 중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jirei/cases/case_0059.html

9 국토교통성에 의한 건축물의 배리어 프리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jutakukentiku_house_fr_000049.html

후쿠오카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⁸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쿠오카시는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기 쉽게”라는 유니버설 디자인 철학을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도시 전반에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2005년 7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령은 기존의 두 가지 법률을 통합하여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하트 빌딩법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건축물의 정비를 의무화한 법률이다. 두 번째는 교통 배리어 프리법으로, 고령자와 신체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배리어 프리(bareier-free)화를 촉진하는 법이다.⁹ 이 두 법률의 융합을 통해 일본 정부는 특정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향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4
추진 현황과 결과

가. 추진 경과 및 현황

현재 일본 후쿠오카시는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시의 모든 부처가 다양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원숭이를 모티브로 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의 의미를 담은 로고를 제작하여 도시 곳곳에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 캐릭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캐릭터의 얼굴 안에 친절함의 상징인 “하트 마크”와 그 안에 사람을 나타내는 “1”을 배치하여, 사람이 친절함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도안화하였다. 또한, 환경을 형상화한 녹색, 사람을 형상화한 분홍색, 도시를 형상화한 파란색의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¹⁰

더불어 후쿠오카시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10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 캐릭터의 상세 설명 <https://www.city.fukuoka.lg.jp/ucf/UD.html>



그림 1.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의 메인 캐릭터 © 유니버サル都市·福岡



대중교통에 적용된 포스터 © 유니버サル都市·福岡

11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의 로고 소개 <https://www.city.fukuoka.lg.jp/ucf/UDmark.html>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 “유니버설 도시·후쿠오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로써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해 고안된 로고들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첫째로, 신체 내부(호흡 기능, 심장, 면역 기능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외관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워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석을 이용할 때 오해를 받는 등 주위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질환자를 나타내는 “하트-플러스 마크”(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하트-플러스)를 제작하였다. 후쿠오카시에서는 지하철 차내 우선석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시내 전차나 버스 내에서 음성으로 송출하여 관련 로고를 소개하는 등 “하트-플러스” 마크를 부착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촉구하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신체 장애인 표시와 시각장애인 로고이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표식 중 하나로, 신체 장애인을 나타내는 로고는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한다. 이 로고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위의 운전자는 보호 의무를 가지며, 끼어들기(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교통 위반이 된다.

다음으로, 세계맹인연합에서 1984년에 제정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세계 공통 마크가 있으며, 이 마크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과 배리어 프리를 고려한 건물, 설비, 기기 등에 부착되어 사용한다. 주로 거리의 신호, 국제 점자 우편물, 서적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이 로고를 통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하트플러스마크의 로고 © 유니버サル都市·福岡



시각장애인 도로교통법 표지 © 警視庁



시각장애인을 나타내는 로고 © World Blind Union

12
사단법인 전일본난청자·중도실청자단체연합회 <https://www.zennancho.or.jp/>

세 번째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로고로써 청각 장애를 겪는 사람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고안된 것이다.¹² 이 로고는 공공기관 및 다양한 시설의 접수 창구에 게시됨으로써, 청각 장애인이 “자신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해당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를 인식한 상대방은 청각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명확한 입 모양을 통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다음의 로고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표식으로, 청각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식은 청각 장애인의 자동차 면허에 특정 조건이 부가된 경우 사용되며,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들은 해당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한 끼어들기(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청각 장애인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타내는 로고 © 中途失聴者団体連合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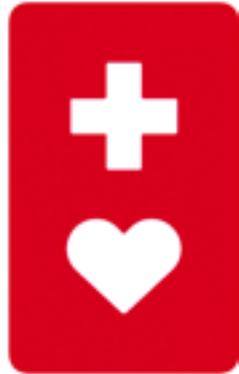
청각장애인 도로교통법 표지 © 警視庁

마지막으로, 헬프 마크(Help Mark)와 인공항문 또는 인공방광을 착용한 사람을 나타내는 오스트메이트(Ostomate) 로고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헬프 마크는 의족이나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사람, 내부 장애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인지능력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임신 초기의 여성 등 외관상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으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로고이다. 이 마크는 주위 사람들에게 배려와 협조를 요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본산업규격(JIS 규격)에 의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에서는 재해 발생 시 헬프 마크를 착용한 사람들의 대피를 지원하거나, 전철 및 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적절한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헬프 마크는 스트랩 형태로 제작되어, 장애복지과에서 배포하고 있어 착용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3과 같이 오스트메이트 로고는 공공화장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에서 볼 수 있으며,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의 경우, 배설물 처리, 스토마 장치의 교환 및 세척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로고는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오스트메이트의 편의를 보장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 항목에서 오스트메이트의 세부적인 추진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헬프마크의 로고 © 유니버サル都市・福岡



그림 2. 헬프마크의 스트랩 © 유니버サル都市・福岡



그림 3. 오스트메이트를 표시하는 로고 © 国土交通省

나. 추진 결과 및 성과

일본 내에는 약 20만에서 30만 명의 오스트메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메이트는 직장암, 방광암 등으로 인해 장기 기능 장애(내부장애의 일종)를 겪고, 수술을 통해 인공적으로 복부에 인공항문 또는 인공방광 배설구(스토마, Stoma)를 형성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대변이나 소변을 조절할 수 없어, 이를 모아두기 위한 파우치(배설물 봉투)를 복부에 부착하고 생활한다. 파우치에 모인 배설물은 일정한 시간마다 변기나 오물 싱크대에 버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파우치 및 복부의 세척이 필요하다.¹³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일본 전역에는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특수 설비가 갖춰진 화장실이 설치되었으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이러한 세척 시스템이 구비된 화장실에는 오스트메이트 로고가 부착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는 오스트메이트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본 오스트메이트 협회(JOA)는 1999년부터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의 정비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12월에 배리어 프리 신법(고령자 및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해당 법률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작으로, 여객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다양한 시설까지 확대되었다.¹⁴

또한, 오피스나 학교에서도 배리어 프리 신법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층에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갖춘 화장실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림 4와 같은 기능을 갖춘 오스트메이트용 세척 화장실은 전국의 다양한 공공시설에 점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배설물 처리와 스토마 장비 교체 및 장착, 오염된 복부를 세척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¹⁵

- 선 채로 배설 처리가 가능한 오물 처리 도기 설치
- 복부의 오염이나 스토마 장비를 행구는 온수 샤워
- 복부 관리 용품이나 스토마 장비를 둘 수 있는 거치대
- 소지품 또는 파우치(배설물봉투)를 걸 수 있는 후크
- 상태확인용 거울 및 갈아입을 옷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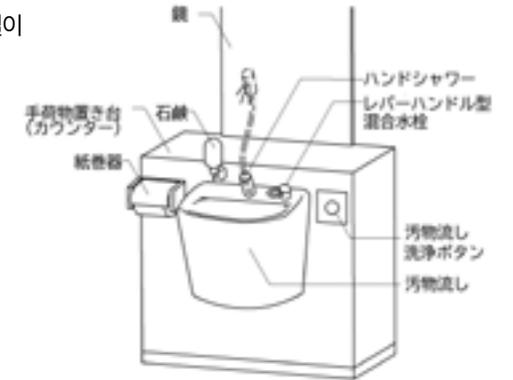


그림 4. 오스트메이트용 세척 설비의 세부기능 © 国土交通省

13
公益社団法人日本オストミー協会
(일본 오스트미 협회) 자료 <https://joa-net.org>

14
JOA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 현황의
내용 중

15
국토교통성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에 배려한 건축설계표준

이러한 화장실은 대중교통 시설(지하철), 사회 복지 시설, 관공서, 백화점, 쇼핑센터, 미술관, 도서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병원 등 여러 환경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입구에는 국토교통성이 디자인한 오스트메이트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의 정비가 전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메이트 당사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또는 “이용 시간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JOA 홈페이지에서는 교통기관의 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 정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를 제작하여 설치 장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쿠오카를 포함한 일본 전국 내에는 오스트메이트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관련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공중화장실 로고 © 株式会社ミライロ

5 접근성

접근성 측면에서 오스트메이트 대응 공중 화장실에 대해 온/오프라인 두개의 카테고리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후쿠오카시의 주요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하여, 여행자나 관광객의 여정을 가정한 이동 경로를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화장실을 이용한다. 공항 내에는 총별로 다양한 기능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1층에는 남녀 장애인 화장실에 각각 오스트메이트 세척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3층에는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가 마련되어 있다. 화장실의 메인 입구에서는 오스트메이트 로고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내부 안내 그림을 통해 남녀별 시설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후쿠오카공항 내 공중화장실 © Yunkyu Lee

다음 여정지는 후쿠오카시의 미술관이다. 후쿠오카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찾는 오후리 공원 내부에 미술관이 위치해 있다. 문 입구에서부터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내부는 매우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여러 형태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오카 미술관 내 공중화장실 © Yunkyu Lee

다음으로 이동 할 곳은 야구 돐과 밀접해 있는 대형 쇼핑몰을 살펴본다. 이 쇼핑몰은 야구 경기 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입구부터 장애인 표시가 독특하게 액자 틀로 강조되어 있다. 실내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의 대비를 사용하였으며, 안전바에는 진한 푸른색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사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MARK IS 福岡ももち内の 공중화장실 © Yunkyu Lee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SA)를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SA 내 장애인 화장실에는 지게구 교환대와 오스트메이트 세척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야마다 SA의 경우 장애인 차량 진입 구역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교통약자를 위한 다기능 설비가 설치된 화장실과 오스트메이트 전용 화장실을 분리하여, 이용자의 분산을 통해 특정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山田SA의 공중화장실 © Yunkyu Lee

이와 같은 현장의 세부 사항들은 디자인 재단의 영상 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대응 공중 화장실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일본 내 온라인 접근성 측면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애플리케이션은 “オストメイトなび” (오스트메이트 내비)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비영리단체(NPO)가 제작한 것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고민이나 불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보기술(IT)의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개선책의 검토와 제안,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⁶

16
オストメイトなび(오스트메이트 내비)
<https://m-akt.jp>



오스트메이트 내비 앱의 세부 기능 © 오스트메이트나비

오스트메이트 내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화장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홈 화면에서 화장실 아이콘을 터치하여 화장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콘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설비의 완성도에 따라 색상과 형태 바꾸어 표시하고 있다. 또한, 검색창에 지명이나 시설명을 입력하면 해당 시설 부근으로 화면이 이동하는 편리한 기능도 제공된다.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터치하면, 상세 페이지에서 화장실 설치 시설과 설비에 대한 자

제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오스트메이트 및 그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오스트메이트 내비 애플리케이션은 그림 4와 같이 매장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기본적인 기능은 화장실 검색과 유사하며, 아이콘을 터치하면 오스트메이트가 사용하는 스토마 용품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병원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이 기능은 화장실 검색 및 매장 검색과 유사하며, 인정 간호사의 재적 여부나 병원의 수용 정보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메이트 내비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메이트 내비에 등록된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공중화장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 중이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등록되지 않은 화장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스토마 매장의 검색 기능 © 오스트메이트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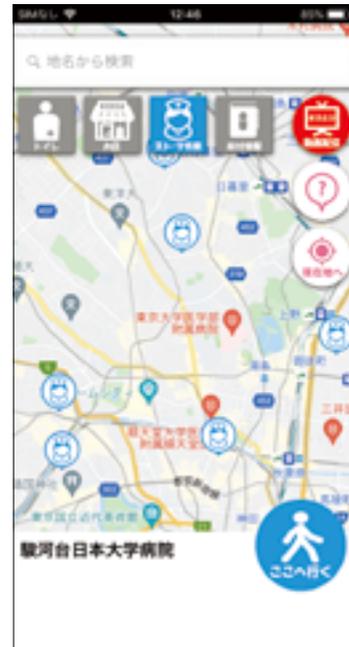


그림 5.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병원 검색 기능 © 오스트메이트나비

두 번째로 소개할 애플리케이션은 오스트메이트 화장실 검색 사이트인 “오스트메이트 JP” (오스트메이트 JP)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1989년에 설립된 협회에서 제공하며, 오스트메이트의 사회 복귀와 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단체이다. 오스트메이트 JP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는 2007년에 공개되었으며,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⁷

그림 6을 통해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시설명으로 후쿠오카의 오스트메이트 화장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주소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섹션에 접근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다.

17 오스트메이트 JP(오스트메이트 JP) <https://www.ostomate.jp/>

이상의 내용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성을 살펴보면 일본 내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공중화장실 지원 현황이 선진국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각자의 활동 반경에서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신규 등록을 통해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스트메이트JP사이트 내의 리스트 현황 © 오스트메이트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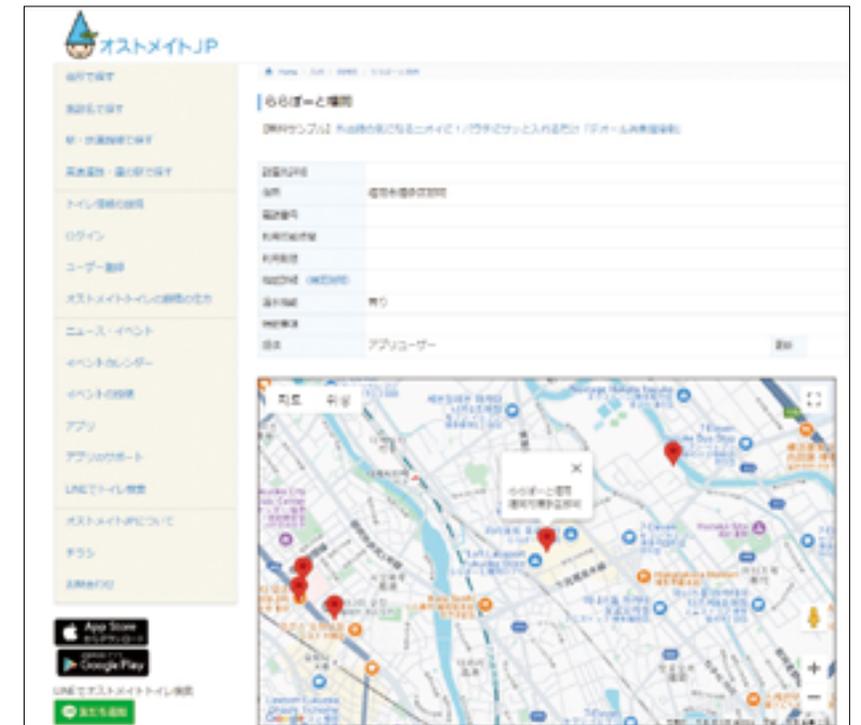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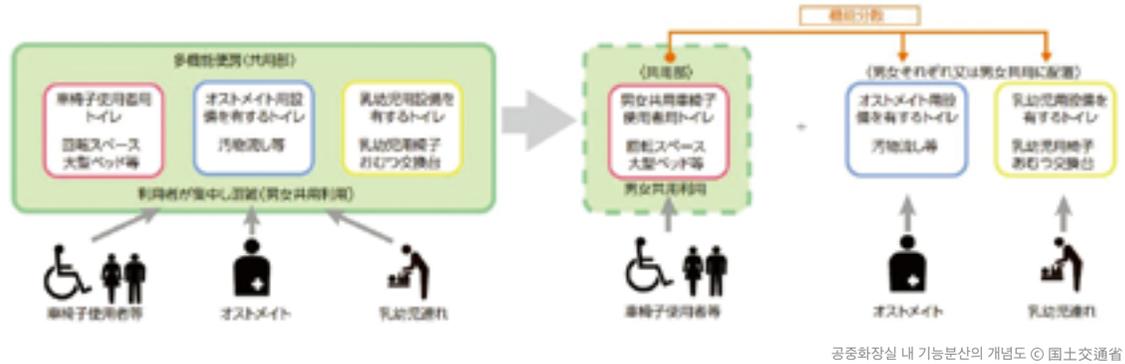


그림 6. 오스트메이트JP사이트 내의 리스트 현황 © 오스트메이트JP

6 서울 적용 방안

18
国土交通省「共生社会におけるトイレの環境整備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국토교통성의 공생사회의 화장실 환경정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2021)

NHK의 취재에 의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일본 東洋大学の 高橋儀平(Takahashi Gihei) 명예교수는 다목적 화장실 수를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갖춘 화장실을 늘림으로써 다목적 화장실에 집중되었던 이용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그의 의견과 유사한 형태로써 공중화장실의 기능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목적 화장실만큼 많은 기능이나 넓은 공간이 없어도, 일반 남녀 화장실 내에 휠체어용, 유아 동반용, 오스트메이트용 등의 기능을 분산시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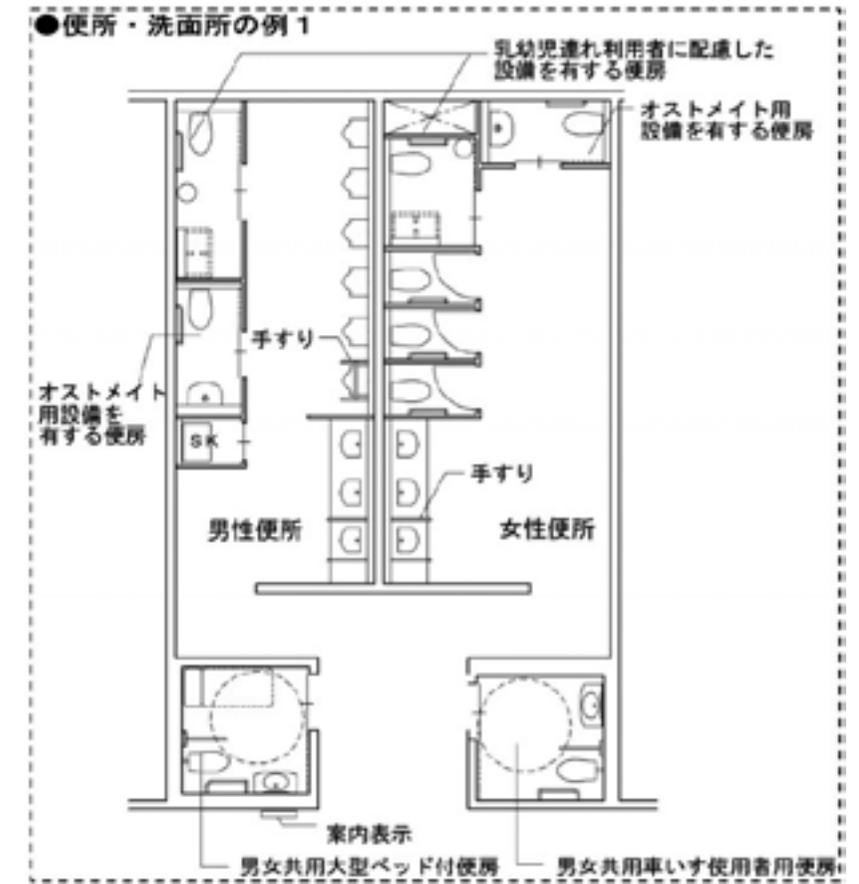


분산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사용자의 다양화에 따른 화장실 정비가 진행되는 한편,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설비가 설치된 결과 다목적 혹은 다기능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및 특정 설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다양한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다목적 화장실 내에 있던 기능 및 설비를 화장실 전체에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실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화장실과 다목적 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해 화장실 기능의 분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화장실 기능의 분산을 고려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들이 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사용자들의 행동 범위를 제약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메이트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이다. 한국의 EBS와 유사한 일본의 공영방송에서는 평일 아침 방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오스트메이트에 대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활용해 쉽게 전달하고 있다. 오스트메이트는 외관상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오스트메이트와 관련된 질병 및 그들의 필요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포용적이며 상호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정비 지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에는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세척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정비 지침을 개발한 것과 같이 해당 설비에 대한 구



19
高齢者、障害者等の円滑な移動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標準に示された機能分散の考え方(平成28年度改正版)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을 배려한 건축설계표준에 나타난 기능 분산의 개념(2016년도 개정판)

19. 그림 7. 건축설계 표준의 기능 분산 개념 © 국토교통부

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질병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사용의 가능 범위(오물처리기의 높이, 선반의 위치 등)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오스트메이트를 포용하는 지침 및 보다 잠재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여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공중화장실에는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세척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 정비 지침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스트메이트 설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오물 처리기의 높이나 선반 위치 등 사용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의 오스트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오스트메이트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오스트메이트 대상자에 대한 조사, 외출 빈도, 주로 이용되는 장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설치 경로를 선정한 후,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음으로는 오스트메이트임을 표시할 수 있는 휴대용 스트랩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트랩을 통해 오스트메이트 사용자는 세척기가 설치된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스트메이트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일반 사용자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방안으로써, 우선적으로 기존 공중화장실의 최소한의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세척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과 계획 수립,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설비를 완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오스트메이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현존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공중화장실 또는 다목적 화장실에 선반대를 설치하여 스토마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개선책을 통해 오스트메이트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마무리하며

일본 사회의 대응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국내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화장실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곤 했다. 이는 화장실의 위치만 파악해도 부모로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오스트메이트의 경우, 외출 자체가 큰 도전이 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출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이지만, 오스트메이트와 같은 특정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외부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조차 심리적 부담이 크고 어려운 과제가 된다. 따라서 신속한 설비 조성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외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일본에서는 단순히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JOA협회에서 20/40 Focus Group이라는 별도의 활동을 통해 20대에서 40대의 오스트메이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²⁰

이처럼 일본은 환경 설비 구축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련 단체가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을 보면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공공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대응한다면,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단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오스트메이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
20/40 Focus Group
http://2040focus.jp/wordpress_f/

디자인이 머무는 도시, 세계 도시 디자인 트렌드 2024

: SEOUL DESIGN REPORTER

발행일

2024.9.

발행처

서울디자인재단

발행인

이경돈 대표이사

주소

03098 서울특별시 중로구
울곡로 283

사업기획

이경돈 대표이사
박진배 디자인진흥본부 본부장
엄아영 대외협력팀 팀장

큐레이팅

정나은 대외협력팀 선임

디자인기획

씨앤씨우

편집-디자인

씨앤씨우

인쇄-제작

태웅씨앤피

집필진

강기향	미국, 시카고	gihyangkang@gmail.com
강유선	독일, 베를린	modernartseoul@naver.com
구재은	영국, 런던	koojaen@gmail.com
김경현	독일, 프랑크푸르트	minipicasso@naver.com
김영인	이탈리아, 토리노	kimyi525@gmail.com
김홍	싱가포르, 싱가포르	kimhong.draw@gmail.com
김효중	미국, 뉴욕	hyojoong1219@gmail.com
박춘석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parkchoonseog@gmail.com
박효선	네덜란드, 로테르담	hyoseon.park.27@gmail.com
안자은	캐나다, 밴쿠버	thubi@hanmail.net
엄혜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haley28@kakao.com
이미현	폴란드, 바르샤바	mihyeon.art@gmail.com
이윤규	일본, 후쿠오카	leeyk072@naver.com
이주원	스웨덴, 룬드말뫼	iguanawon95@gmail.com
이주현	핀란드, 에스포	leeju@snu.ac.kr
이현경	태국, 방콕	orange0322@gmail.com
정명용	이탈리아, 밀라노	michijung72@gmail.com
조서영	중국, 동관	hoochoois@naver.com
최서경	프랑스, 파리	seokyung.cho121@gmail.com
황지은	스웨덴, 스톡홀름	jehwang10@gmail.com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리porter
모아보기



서울디자인리porter
e-book 다운로드



서울디자인리porter
매거진 바로가기

ISBN 979-11-93840-04-7



9 791193 840047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5월.매월
특별시선

